



제5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The 5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참여와 나눔

Participation and Sharing

일시_ 2015. 10. 1 (목) 09:00~16:50

장소_ 가톨릭대학교 International Hub 컨퍼런스룸 (IH366)

주최_ 가톨릭대학교

Date_ Oct. 1 (Thur) 09:00~16:50

Venue_ Conference Room (IH366) International Hub

Host_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목 차

- 04 **초대의 말씀** | 박영식 총장 (가톨릭대)
- 06 **축 사** | 조규만 총대리주교 (서울대교구)
- 10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의 배경**
- 12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 16 **프로그램**
- 19 **Session 1**
- 사회자 | 윤정우 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 기조연설 | 이덕효 신부 (워싱턴 대교구), “Cultivating a Culture of Care”
- 기조연설 | William Cavanaugh 교수 (DePaul University),
 “Walking Humbly: The Church,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 93 **Session 2**
- 사회자 | 심영숙 교수 (가톨릭대 영어영미문화전공)
- 발 표 | 곽병은 원장 (갈거리 사랑촌), “복지형 협동조합”
- 107 **Session 3 --- 학생참여 프로그램**
- 사회자 | 이상민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
- 109 **Session 4 ---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
- 사회자 | 정윤경 교수 (가톨릭대 심리학전공)
- 개회사 | 구분만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장)
- 발표 1 | 임효창 교수 (서울여대 경영학), “기업과 가정: 친가정경영과 영적조직의 인사관리”
- 토론 1 | 이영민 교수 (숙명여대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 발표 2 | 양용희 교수 (호서대 사회복지학), “한국 사회에 기부 증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토론 2 | 정무성 부총장 (송실사이버대)
- 발표 3 | 오승민 교수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국제개발협력활동에서 윤리적 접근의 중요성”
- 토론 3 | 김준석 교수 (가톨릭대 국제학부)
- 201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 Contents

- 04 **Message from the President** | Fr. Yeongsik Pahk (President, CUK)
- 06 **Congratulatory Remarks** | Auxiliary Bishop, Vicar General Basil Kyuman Cho (Archdiocese of Seoul)
- 10 **The Background of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 12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 16 **Program**
- 19 **Session 1**
MC | Prof. Christine Y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and Media Contents, CUK)
Keynoters | Fr. Paul Lee (Archdiocese of Washington D.C.)
 | “Cultivating a Culture of Care”
 | Prof. William Cavanaugh (DePaul University)
 | “Walking Humbly: The Church,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 93 **Session 2**
MC | Prof. Youngsook Shim (English Language & Culture, CUK)
Presenter | Dr. Byungeun Kwak (Kalgury Sarangchon Social Welfare Institute)
 | “Welfare Model of Cooperatives”
- 107 **Session 3 --- Student Participation Program**
MC | Rev. Bonman Koo (The ELP College, CUK)
- 109 **Session 4 ---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Moderator | Prof. Yoonkyung Jeong (Psychology, CUK)
Opening Address | Fr. Bonman Koo (Dean of the ELP College, CUK)
Presenter 1 | Prof. Hyochang Lim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Business and Family: Family-friendly Management and HR in Spiritual Organization”
Discussant 1 | Prof. Youngmin Lee (Graduate Schoo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esenter 2 | Prof. Yonghee Ya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onation Increase in Korean Society”
Discussant 2 | Prof. Moosung Chung (Vice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Presenter 3 | Prof. Seungmin O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UK), “The Definition
 of Development and its Ethical Meaning”
Discussant 3 | Prof. Joonsuk Kim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CUK)
- 201 **Themes of the Forum**

| 초대 말씀



“제5회 이원길(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톨릭 정신에 따라 평생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이원길 선생의 영성과 유훈을 기리고자 2011년에 시작된 본 포럼은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가톨릭 인본주의에 관한 사상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 해 포럼의 주제는 “참여와 나눔”입니다.

“참여와 나눔”에 대한 학문적 심층 논의를 위하여 포럼은 4부로 진행됩니다. 제1부의 기조 강연으로 드폴대학교 William Cavanaugh 교수의 “Walking Humbly : The Church,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와 미국 워싱턴대교구 성유다 성당 이덕효 신부의 “Cultivating a Culture of Care”가 발표될 것입니다.

제2부에서는 “복지형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갈거리사랑촌 관병은 원장의 강연과 “제3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이 상(賞)은 이원길 선생이 실천한 가톨릭 정신을 사회 안에 확산,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포럼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모범적 삶을 사는 분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 해 수상자는 199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23년 동안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김하중(Bordo Vincenzo) 신부입니다.

제3부는 가톨릭 대학생 토론회와 외국인 대학생 연설대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등 학생의 참신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올바른 가치관을 진지하게 모색할 교류의 장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제4부에서는 국내 학자들이 포럼 주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연구해 온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며 함께 공유하는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이 있을 것입니다.

본 포럼은 소외된 이웃과 사회공동체를 위한 실천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와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하고 우리사회의 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가톨릭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성, 영성, 지성을 고루 갖춘 윤리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포럼을 통해 가톨릭 인본주의 정신이 널리 전파되어, 우리사회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는 올바른 사회로 변화되기를 염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영식 신부

박영식

Message from the President

On behalf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 am pleased to invite you to the 5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The Forum was launched in 2011 to honor the noble spirit and faith espoused by the late Bernard Wonkil Lee, who practiced the love of God and neighbor throughout his life. The Forum provides a place for outstanding individuals from home and abroad to exchange insights and experiences regarding Catholic humanism. The theme for this year's forum is "Participation and Sharing."

For in-depth discussions, we have organized a total of four sessions around this year's theme. The first session is devoted to keynote speeches including "Walking Humbly: The Church,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by Professor William Cavanaugh from DePaul University, and "Cultivating a Culture of Care" by Fr. Paul Dukhyo Lee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D.C.

In the second session, Dr. Kwak Byung-eun, Chief of Kalgury Sarangchon, a social welfare community, will deliver a speech on "Welfare Model of Cooperatives," which will be followed by the presentation ceremony of the 3rd *Bernard Wonkil Lee Catholic Humanism Award*. The award was established to spread and promote in our society the spirit of Catholicism, the kind practiced by Bernard Wonkil Lee. It recognizes individuals leading an exemplary life in areas related to the theme of the Forum. The recipient this year is Fr. Hajong Kim (Bordo Vincenzo) from Italy, who has lived a life of sharing with alienated neighbors for 23 years since 1993.

The third session features student-led events including the CUK student debate, a Korean speech contes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an awards ceremony for the "idea contest," all of which will provide a forum where students exchange novel ideas and cultivate ethical values. Finally, the fourth session presents a symposium organized by the CUK's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where domestic scholars present and discuss their research findings on the theme of the forum.

This forum offers participant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true meaning of "participation and sharing" and promotes a culture of giving and sharing as we strive to devise pract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help people and communities in ne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fostering university students equipped with decency, spirituality, and intelligence in the spirit of Catholicism. I sincerely hope that this forum will help spread Catholic humanism and better our society, enabling us to live in harmony with our neighbors and defend human dignity.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participation.

September, 2015

Fr. Johan Yeongsik Pakh, S.S.D

Presiden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축 사



찬미 예수님!

올해가 다섯 번째입니까?

우선 제5회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을 계속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원길 베르나르도 선생님은 사실 저의 동창 신부 이덕효의 아버님이십니다.

동창의 아버님이시지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았고, 이덕효 신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국제포럼이 시작되면서 ‘우리 동창 이덕효 신부의 아버님이 훌륭한 분이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보다 앞선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를 ‘재수 없는 하루살이 세대’라고 이름 붙이고자 합니다.

제가 보좌시절 주임신부님께서 어느 주일에 이런 강론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하루살이가 태어났답니다. 하필 그 날은 비오고 바람 불고 천둥 벼락 치는 날이었답니다.

정말 재수 없는 하루살이였답니다.”

우리 인간은 살다보면 맑은 날도 맞이하고, 흐린 날도 맞이합니다만, 맑은 날도 많은데, 그 하루살이는 평생을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원길 선생님을 비롯한 저희 아버님 세대가 말로 정말 ‘재수 없는 하루살이 세대’를 사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제치하에 태어나셔서, 식민지의 설움을 겪고, 대동아전쟁을 겪으셨습니다.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터에 나가셔야 했습니다. 국방 창설대에 지원하신 저의 아버님은 여수순천사건, 지리산 작전, 제주도사건, 6.25전쟁 등 모든 전투에 다 참여하셨습니다. 발목에 맞은 총탄으로 지금은 전상군경 제7급이라는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경제계획5개년의 프로그램을 따라 허리를 졸라맨 세대들이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살만하니까, 인생의 황혼이 되었습니다. My car 시대가 되었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작년입니까? 우리 서울교구청 식구들이 단체로 ‘국제시장’을 관람했습니다.

한 노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았습니다. 흥남부두에서 피난 길에 오르면서, 국제시장 슈샤인 보이로 출발하여,

| 축사

자갈치 사장 집꾼, 파독 광부, 베트남전쟁 참전 등 우리나라의 온갖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살면서도 흥남부두에서 잃어버린 막내 여동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다가, 마침내 KBS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끝내 약속했던 아버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화 대사에 나타나듯이, “당신 인생이었는데 당신이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한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 덕수의 마지막 말은 강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을 잘 지켰지요? 막손이기도 찾았고요. 이만하면 제가 잘 살았지요? 그런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살만해졌습니까?

미국 시사잡지 포린 폴리시는 몇 년 전 9월호에서 지난 10년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기간”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치와 통계를 살펴보면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평화롭고 부유한 인생을 즐긴 적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인구 총생산량 GDP 2008년 금융위기로 주춤하긴 했지만 2000년 32조 달러에서 2008년 61조 달러로 2배 성장했으며, 전 세계 인구 평균 소득 2010년 1만 600달러(약 1250만원)로 2000년 평균소득보다 25%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 발전 1990년 세계 인구의 50%가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 2007년 28%로 줄었으며, 영양부족의 위기에 처한 인구가 10억(17%)이나 되지만 1970년 35%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었으며, 세계 평균 수명은 1990년보다 2년 늘어난 69세, 그 밖의 여러 가지 수치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기간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 미래 보고서 2045’에 따르면, 세계 GDP는 2013년 83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 되면 1인당 평균 GDP는 신흥 경제성장국은 1만 달러, 선진국은 5만 42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1에서 2020년은 더욱 풍요로운 기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은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보면, 상중의 상인 셈입니다. 국민소득이나 대학 진학률, 여성 사회 진출률 등 모든 수치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수치는 평균치를 한창 넘어서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영화를 만든 구 소련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화감독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살만하다면 그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희생한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만하다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앞선 우리 아버지 세대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루는 가톨릭인본주의는 그런 점에서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포럼을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2015년 10월
서울대교구 조규만 총대리주교

Congratulatory Address

+ Glory be to Jesus,

I wish to extend my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5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The late Bernard Wonkil Lee is the father of my fellow priest, Fr. Paul Dukhyo Lee. Though I was not well acquainted with Mr. Bernard Wonkil Lee, I am very pleased to learn through this forum that he lived a great life serving God and helping other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title of "The Unfortunate Mayfly" to define the generation of our fathers and grandfathers. Back during the days when I served as an assistant priest, our parish priest told this story in his homily one Sunday: "One summer day a mayfly was born. However, it was not a bright sunny summer day, but one of wind and rain due to a thunderstorm that had rolled in. It was a very unlucky mayfly." We as humans can experience both sunny and rainy days in our lives, but the mayfly had to spend its entire life—one 24-hour day—living during a stormy day.

I think our fathers were the "Unfortunate Mayfly Generation," living through all kinds of hardships. Born under Japanese rule, they were forced to fight in the Pacific War and had to endure hard tim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y experienced the tragic division of their own people. My own father volunteered for the National Defense Activation Unit and participated in the Yeosu-Suncheon Incident, the Jirisan Operation, the Jeju Incident, and the Korean War. Wounded in action from a gunshot to his ankle, he is now recognized as a man of national merit, a soldier disabled in action.

This generation tightened their belts to successfully achieve the goals established by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y barely ate, but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New Village Movement. Their sacrifice and hard work made Korea what it is today. Korea has finally reached an era where its citizens may enjoy its prosperity, yet the "Unfortunate Mayfly Generation" is now in their twilight years. Automobiles are now commonplace on the roads, but our senior population is unable to drive a car because they are too elderly and during their younger days, they hardly had an opportunity to learn to drive.

Last year, all members of Archdiocese of Seoul went to see the movie 'Ode to My Father' together. The movie centers on an old man who had lived a life full of ups and downs. The man, who escaped from Hungnam during the Korean War, struggles to support his family throughout the turbulent times of Korea by performing various kinds of jobs such as shoe-shiner, porter at the Jagalchi Market, miner sent to Germany, and soldier in the Vietnam War. Later in life he is able to meet his long-lost sister, Maksoon, through a TV program that reunites family members separated during the Korean War. He is, however, unable to meet his father again, who remained behind in Hungnam and promised to come reunite the family later. As the movie shows, our fathers have left "no room for themselves in their own lives." The movie is the story of our fathers. They gave up all of their dreams for the sake of their families. The main character's last lines in the film still lingered in my mind. "Father, I kept my promise. I found Maksoon, too. I



| Congratulatory Address

did good, right? But it was really, really hard."

Now we live in greater affluence than ever before. A few years ago, *Foreign Policy*, an American magazine, prospected that the last 10 years would be forever recorded as the wealthiest period in history. Figures and statistics tell us that there has never been a time in human history when this many people have enjoyed greater peace and wealth in their lives.

Although the economy slowed down in 2008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world GDP in 2008 was nearly twice as much compared to 2000; it went from \$32 trillion to \$61 trillion. Also, the average income of people rose by approximately 25% from 2000 to 2010, reaching \$10,600. Throughout the world,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absolute poverty, that is earning less than \$1 a day, has declined from 50% to 28% between 1990 and 2007. Although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from undernourishment still amounts to 1 billion, which accounts for 17% of the world's population, that number is half of what it was in 1970, 35%. The world's average life expectancy became 69, an increase of 2 years since 1990. These and many other figures and numbers provide adequate support for the claim that we now live in the richest period in all of human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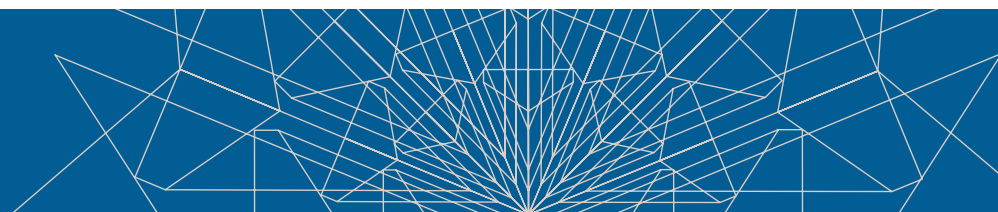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recently released UN Future Report 2045, the world GDP passed \$83 trillion in 2013. The report also forecasts that in 2018 the average GDP per capita will reach \$10,000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and \$50,420 in advanced economies. The world is becoming more prosperous. Presumably, the period between 2011 and 2020 will set a new record for the wealthiest human time span.

A review of statistics shows that Korea ranks very high in many areas amo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example, figures for Korea in fields including national income, college enrollment, and employment for women are considerably above the world average.

Andrei Tarkovski, film director from the Soviet Union who produced the movie *The Sacrifice* said, "If this world is a good place to live in, we owe it to those who sacrificed themselves, although we don't know who they are." We are well aware that if the world has turned into a better place and we are now enjoying the benefits, we owe it all to our forefathers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us.

With all the affluence that we have today, however, what is the point of life if we lose our humanity? I strongly believe that Catholic humanism, which we delve into at this forum, will help us lead a more meaningful and fulfilling life. Thank you for all your help in preparing for this forum. May God's grace be with you all.

October, 2015
Vicar General Basil Kyuman Cho
Auxiliary Bishop
Archdiocese of Seoul



포럼의 배경

2009년 9월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교포 기업가 이덕선·이덕형 형제는 본 대학의 발전기금을 기부하였다.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이들 형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아버지 Bernard Wonkil Lee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 형제는 아버지 Bernard Wonkil Lee는 하느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 따라 가톨릭 성가정을 이루어 간 분으로 회고하고 있다. 적극적인 사고와 믿음, 나아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마음깊이 간직한 채 삶을 매우 낙천적으로 이끌어간 존경할 인품의 소유자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가톨릭 인본주의 정신은 우리 가톨릭 대학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사랑, 봉사의 정신과 일치한다. 그것은 진리와 정직, 사랑과 남에 대한 깊은 배려로 인생을 매우 뜻 깊게 살았던 고인의 철학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대학교는 이덕선·이덕형 형제의 기부금을 받아 여기서 발생하는 과실을 재원으로 Bernard Wonkil Lee Fund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동 펀드에 기초하여 운영할 포럼을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이란 이름을 부여 하고, 그의 정신에 따라 가톨릭 인본주의 사상을 고취하고자 한다.

본 포럼을 개최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톨릭 정신에 따라서 영성·인성·지성을 고루 갖춘 대학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톨릭 인본주의의 실현에 기여함과 아울러 가톨릭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그에 따라 이 포럼은 국내외의 저명인사의 초청 강연 및 학술행사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행사로 운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은 "인간과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매년 개최할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의 주제 방향으로는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공동체와 책임" 등으로 설정하여 이런 정신을 더욱 심화시켜 가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은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을 깊이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가톨릭 인본주의 및 인간과 공동체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The Background of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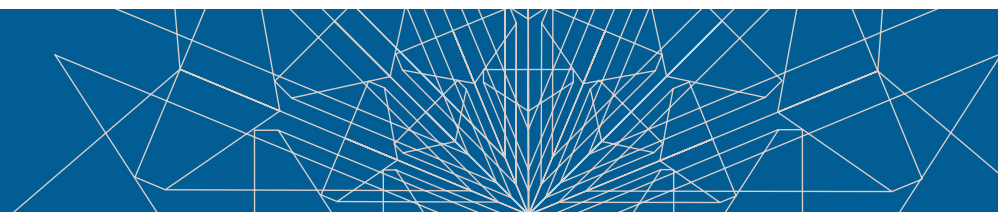
The background of the forum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Washington D.C. based Korean-Americans, donated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or its development in September 2009. The Lee brothers, as successful businessmen, do not hesitate to name Bernard Wonkil Lee, their father, as the most influential person in their lives. They recall their father was a man who strived to establish a holy Catholic family in the faith of God. Bernard Wonkil Lee was a respectable man who led an optimistic life with a proactive way of thinking, faith in God, trustfulness, and respect for people.

Catholic humanism upheld by Bernard Wonkil Lee is consistent with the founding ideology of our Catholic University: honesty, love, and service. In other words, the spirits of our university are what he believed in and the way he lived. In this regard,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cided to form Bernard Wonkil Lee Fund based on the donation made by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and its consequential profits. And the forum to be hosted by the support of this Fund shall be named the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hereafter referred as the BWL Forum). The forum shall become a venue for instilling the philosophy of Catholic humanism.

The purpose of the forum is to nurture college students equipped with spiritual power, personality, and intellect in the spirit of Catholicism. It is our hope that this will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bond members of a community. In turn this will help to uphold the founding ideology of our university and eventually realize Catholic humanism in society. This forum shall be an international academic event, inviting renowned speakers from home and abroad.

The BWL Forum will be held every year under the general theme of "Mankind and Community." For the first 10 years, the directions of the discussions shall b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As the forum proceeds, the discussions will be intensified and the forums will serve as a venue to look into the philosophy of Bernard Wonkil Lee an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Catholic humanism, mankind and community.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은 자기희생(self-sacrifice)과 자신을 남에게 베푸는(self-giving) 삶을 사신 분이다. 그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사셨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특히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개척자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확고부동하고 깊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미국 Maryland주 Gaithersburg에서 2001년 11월 4일 84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큰 아들 이덕선 박사는 “적극적인 사고, 믿음, 그리고 소망”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가정 먼저 떠오르는 분이 아버지라고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저의 아버님께서서는 불치의 낙천가 이셨습니다. 그의 삶은 낙천주의, 적극적인 사고, 믿음, 그리고 희망의 전형적인 본보기였습니다. 항상 작든 크든 간에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분이셨고 이 세상의 삶을 최대한으로 즐기며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현재의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는 가진 것에 대해 감사 드리고 그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결코 불평하지 않았으며,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바른 말과,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부, 사냥꾼, 낚시꾼, 아마추어 엔터테이너, 그리고 준 의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꿈을 꾸는 개척자였으며, 무엇인가 일을 만들려고 하였으며,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착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우선 튼튼한 가톨릭 성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가톨릭 교회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향 동네의 문맹을 퇴치시켰습니다. 그는 많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는 깃발을 천수답으로 변경하여 수백 가정의 주민들에게 농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으며,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러한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물잔의 반이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이 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남과 나누고 남에게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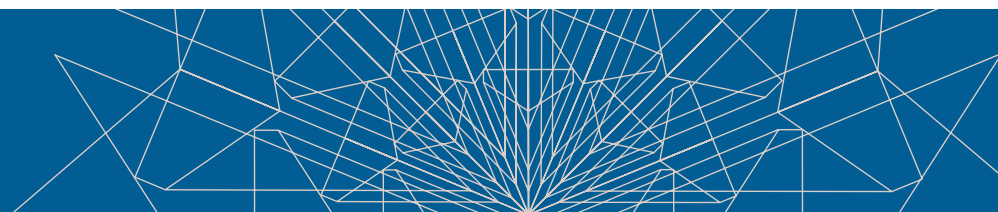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Bernard Wonkil Lee lived a life of self-sacrifice and self-giving. He lived the life of a happy man, he was a positive thinker, and he was a pioneer in spirit and deeds. Above all else he was a man of deep, unshakable Catholic faith. He died on November 4, 2001 when he was 84 years old in Gaithersburg, Maryland.

His eldest son, Dr. Matthew Duksun Lee, says whenever he thinks about positive thinking, faith and hope, what comes to his mind first is his father. He remembers:

“My father was an incurable optimist. His life was the epitome of optimism, positive thinking, faith and hope. He found happiness in all things, small and large. My father was indeed a happy man who enjoyed his life on this earth to the fullest. He enjoyed the present. He appreciated what he had and never complained about what he didn’t have. He was a person of impeccable integrity and honesty. He was never afraid to speak the truth and express his true feelings. He was a farmer, a hunter, a very good fisherman, an amateur entertainer and a paramedic among other things. He was a dreamer, a pioneer, a builder of all things and a leader. But above all else he was a man of faith.

My father had many accomplishments in his lifetime. He built a strong Catholic family. He built three Catholic communities. He eliminated illiteracy in our hometown. He fed the hungry. He created farmland for hundreds of people by converting tidal mud flats into rice paddies. How did he do all those things? It was possible because my father was an optimist and positive thinker, and he had faith in God. For him the cup was always half full, not half empty. His whole life was about faith. It was about sharing and giving. It was for other people not just for himself.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의 생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고 배운 아버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저는 행복하고, 인자하고,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양육된 것을 매우 운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룩한 모든 것들은 제가 받은 훌륭한 가정교육과 특히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제 삶의 기초가 된 매우 귀중한 가치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의 아들이 된 특권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 계속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수 있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항상 남에게 잘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은 1917년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황해도 여러 곳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8년 후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연안 반도에 있는 갈인재라고 불리는 조그만 어촌 마을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은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을 탈출하여 강화군 교동도에서 1954년까지 3년을 살았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과 그의 가족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의 땅이 되어버린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로 이사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맏아들인 마태오 이덕선, 셋째 아들 베드로 이덕성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나머지 가족과 함께 1988년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까지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미국에서 참으로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그는 은퇴 후에는 아들과 딸들의 사업을 도와주었으며,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을 돌보아 주기도 하였으며,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의 소명을 계속하였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을 추모하는 뜻으로 그의 가족은 Maryland주 Potomac의 매우 아름다운 곳에 수녀원을 지어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라는 수녀회에 기증하였다.

그는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19명의 손녀, 손자, 증손녀와 증손자들을 남겼다. 그의 다섯째 아들인 바오로 이덕효 신부는 현재 워싱턴 대교구의 신부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부인 황 수산나는 2015년 9월 97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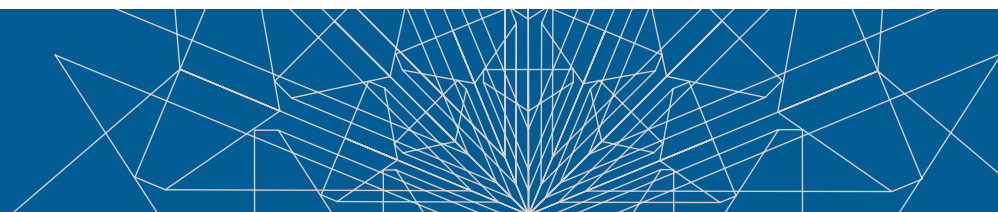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These are the things that I have witnessed and learned from my father. I am very fortunate that I was born and raised by happy, generous and loving parents. I attribute whatever I have accomplished to my upbringing, especially to my father. He has instilled in me those priceless values that are the foundation of my being. I am thankful for the privilege of being my father's son. I learned everything from him. He taught me how to become a happy person and remain a happy person. He taught me how to be a positive thinker and a positive person. He told us to be always good to others.”

Bernard Wonkil Lee was born in the northern part of Hwanghae-do in 1917 but moved to a small seaside village called Karinjae in the Yeonan peninsula when he was a teenager with his mother and siblings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who had built schools and taught in various parts of Hwanghae-do. Mr. Lee and his family had to flee from his hometown during the Korean War and lived in Gyodong-do for three years until 1954.

Mr. Lee and his family moved to Seoul as he could not return to his hometown because it became a part of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He lived there until they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88 to join his sons, Matthew and Peter. He spent some of his happiest years there. Although he was retired, he helped his sons' and daughter's businesses, caring for his grand children but more importantly continuing his vocation of helping people in any way he could. In his memory, his family has built a convent for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 on a beautiful location in Potomac, Maryland.

He is survived by his five sons, one daughter, their spouses, and his nineteen grand and great grandchildren. His son, Fr. Paul Lee, is a priest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His wife, Susanna Hwang, passed away on September, 2015, at the age of 97.



프로그램

2015년 10월 1일(목)

제1세션 (IH366)

9:00~10:45	사회자	윤정우 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환영사	박영식 총장 (가톨릭대)
	축사	조규만 총대리주교 (서울대교구)
	영상	이원길 선생의 삶
	발표	Cultivating a Culture of Care 이덕효 신부 (워싱턴 대교구)
		Walking Humbly: The Church,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William Cavanaugh 교수 (DePaul University)

제2세션 (IH366)

11:00~12:20	사회자	심영숙 교수 (가톨릭대 영어영미문화전공)
	시상식	제3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상 시상식
	발표1	제3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상 수상자 연설 김하중 신부 (안나의 집)
	발표2	복지형 협동조합 곽병은 원장 (갈거리 사랑촌)

제3세션 학생참여 프로그램(IH366)

12:30-14:50	사회자	이상민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
	대회	제4회 재한 외국인 대학생 연설대회 제5회 가톨릭대학생 토론대회
	발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시상	제3세션 전체 시상식

제4세션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IH267)

14:00-16:50	사회자	정윤경 교수 (가톨릭대 심리학전공)
	개회사	구본만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장)
	발표1	기업과 가정: 친가정경영과 영적조직의 인사관리 임효창 교수 (서울여대 경영학)
	토론자	이영민 교수 (숙명여대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발표2	한국 사회에 기부 증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양용희 교수 (호서대 사회복지학)
	토론자	정무성 부총장 (송실사이버대)
	발표3	국제개발협력활동에서 윤리적 접근의 중요성 오승민 교수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토론자	김준석 교수 (가톨릭대 국제학부)

| Program

October 1st (Thur) , 2015

Session 1 (IH366)		
9:00~10:45	MC	Prof. Christine Y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and Media Contents, CUK)
	Welcome Address	Fr. Yeongsik Pakh (President, CUK)
	Congratulatory Remarks	Auxiliary Bishop, Vicar General Basil Kyuman Cho (Archdiocese of Seoul)
	Video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Keynoters Cultivating a Culture of Care	Fr. Paul Lee (Archdiocese of Washington D.C.)
	Walking Humbly: The Church,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Prof. William Cavanaugh (DePaul University)
Session 2 (IH366)		
11:00~12:20	MC	Prof. Youngsook Shim (English Language & Culture, CUK)
	Award Ceremony The Third Annual Bernard Wonkil Lee Catholic Humanism Award Winner Announcement	
	Presenter 1 Award Winner Presentation	Fr. Bordo Vincenzo (Anna House)
	Presenter 2 Welfare Model of Cooperatives	Dr. Byungeun Kwak (Kalgury Sarangchon Social Welfare Institute)
Session 3 Student Participation Program (IH366)		
12:30-14:50	MC	Prof. Sangmin Lee (The ELP College, CUK)
	Contest 4th International Student Speech Contest	
	5th CUK Students Debate Contest	
	Presentation BWL Catholic Humanism Student Contest : Winner Presentation	
	Award Ceremony Announcement of Winners	
Session 4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IH267)		
14:00-16:50	Moderator	Prof. Yoonkyung Jeong (Psychology, CUK)
	Opening Address	Fr. Bonman Koo (Dean of the ELP College, CUK)
	Presenter 1 Business and Family: Family-friendly Management and HR in Spiritual Organization	Prof. Hyochang Lim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Discussant 1	Prof. Youngmin Lee (Graduate Schoo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esenter 2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onation Increase in Korean Society	Prof. Yonghee Ya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Discussant 2	Prof. Moosung Chung (Vice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Presenter 3 The Definition of Development and its Ethical Meaning	Prof. Seungmin O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UK)
	Discussant 3	Prof. Joonsuk Kim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CUK)

Session 1

Cultivating a Culture of Care | 이덕효 신부

Walking Humbly: The Church,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 William Cavanaugh 교수

Cultivating a Culture of Care | **Fr. Paul Lee**

Walking Humbly: The Church,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 **Prof. William Cavanaugh**

사 회 자 윤 정 우



윤정우 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Prof. Christine Y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and Media Contents, CUK)

■ 주요경력

-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조교수
-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Emily Carr University of Art & Design 주립 미술대학 (Vancouver, Canada) 강사
- DKNY Home, Kate Spade Home(New York City) 디자이너
- Marc Rosen Associates(New York City) 디자이너
- Pratt Institute, Packaging Design(New York City) 석사

발 표 자 이 덕 효



이덕효 신부 (워싱턴 대교구)
Rev. Paul Dukhyo Lee (Archdiocese of Washington)

Father Paul D. Lee, S.T.D.

Born in Seoul on December 31, 1955

Moved to the United States in 1979

■ Academic work

1968-1974 Dongsung High School

1974-1978 Bachelor of Arts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Theology

1979-1983 Master of Arts and Master of Divinity from Mount Saint Seminary,
Emmitsburg, Maryland

1990-1994 A Licentiate and Doctorate in sacred theology (S.T.L and S.T.D.) from the
Pontifical University of Saint Thomas Aquinas (known as *Angelicum*)

■ Priestly work

1983 Ordained a priest for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1983-1989 Parochial vicar at the Shrine of St. Jude, Rockville, Maryland

1989-1990 Parochial vicar at Sacred Heart Parish, La Plata, MD

1990 Parochial Administrator at Our Lady's at Medley's Neck, MD

- 1994-2010 Director of two archdiocesan offices: Office for Ecumenical and Interreligious Office and the Office for Continuing Education of the Priests
- 1997-1999 Chairman of the InterFaith Conference (IFC), the interreligious organization of 11 major religions of the Metropolitan Washington
- 1999-2004 President of the National Korean Pastoral Center, the umbrella organization of Korean-Catholic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the Korean National Delegate for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USCCB).
- 2009-2012 National Consultant to the Subcommittee of Asian-Pacific Island Catholics of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CCB.
- 1994-2002 Parochial Administrator of St. Mary's Parish, Washington, DC, St. Ignatius of Loyola, Oxon Hill, MD, Christ the King, Silver Spring, MD, Chaplain of the Korean Community at Our Lady of Mercy, Potomac, MD.
- 2002-2005 Pastor of Our Lady of Victory Parish, Washington, DC
- 2005-2012 Pastor of Epiphany Parish, Washington, DC
- 2009-present Leading the *Seeds of Hope Project* (improving key vegetable species in North Korea)
- 2012 – present Pastor of the Shrine of St. Jude, Rockville, MD

Fr. Lee has given lectures at various levels in seminaries, synagogues, mosques, diocesan staff, ecumenical conferences, and other Christian churches. Fr. Lee's areas of specialty and interest include ecumenism and interreligious dialogue, ecclesiology and Trinitarian theology,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He wrote a book, *Bridging* (2005) and numerous articles in journals.

His mailing address:

Shrine of St. Jude Catholic Church
12701 Veirs Mill Road
Rockville, MD 20853

Phone: 301-946-8200; 301-461-8272

E-mail: sua.eleganza@gmail.com

CULTIVATING A CULTURE OF CARE

Fr. Paul D. Lee, S.T.D.

Nisi credideritis non intelligetis

(If you do not believe, you will not understand) - Augustine

The crisis of modernity and secularism lies in the self-centeredness of man. In the Catholic tradition, God - not man - is at the center of existence and the meaning of such an existence. Because human dignity is conferred by God, it is not subject to the whims of rulers or a historical period. Human dignity is inviolable and infinite. This reminder of and redirection to the Catholic core is exactly what Pope Francis seeks to accomplish through his two Encyclicals, *Evangelii Gaudium* and *Laudato Si'*.

PART I

OPTION FOR THE POOR VS. CULTURE OF EXCLUSION

Let me begin by addressing head-on the most quoted papal phrase - “I want a **church which is poor and for the poor.**”

OPTION FOR THE POOR IS A DIVINE MANDATE

Pope Francis writes:

“God shows the poor ‘his first mercy.’ This divine preference has consequences for the faith life of all Christians, since we are called to have ‘this mind... which was in Jesus Christ’. Inspired by this, the Church has made an option for the poor which is understood as a ‘special form of primacy in the exercise of Christian charity, to which

the whole tradition of the Church bears witness.’¹⁾

Pope Francis eviscerates the culture of exclusion, consumerism, a throw-away, disposable mentality that is detached from Christian truth – to be engaged with and immersed in fellow man with God at the center. After noting that the Church is “always wide open,” Pope Francis states, “The Eucharist, although it is the fullness of sacramental life, is not a prize for the perfect but a powerful medicine and nourishment for the weak.” Thus, he declares, “Today and always, ‘the poor are the privileged recipients of the Gospel’... ‘there is an inseparable bond between our faith and the poor.’ May we never abandon them.” According to Pope Francis, we have not only abandoned them, but excluded them, dehumanized them, and exploited them. At the heart of his criticism is “inequality” – “Inequality is the root of social ills.”²⁾

NO IMPERSONAL ECONOMY

In criticizing the “trickle-down theories” of economic growth, and the “new tyranny” of “absolute autonomy of the marketplace and financial speculation” that lead to a “new idolatry of money and the dictatorship of an impersonal economy lacking a truly human purpose,” Pope Francis criticizes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 welfare, in which some privileged groups are untouchable, while many are disposable, excluded, and outcast.³⁾ This

1) Francis, *Evangelii Gaudium*, 198-199. Pope Francis then notes how true love of another, of the poor, sets the Christians apart. Th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is a theological mandate. “True love is always contemplative, and permits us to serve the other not out of necessity or vanity, but rather because he or she is beautiful above and beyond mere appearances... The poor person when loved, ‘is esteemed as of great value’, and this is what makes the authentic option for the poor different from any other ideology, from any attempt to exploit the poor for one’s own personal or political interest. Only on the basis of this real and sincere closeness can we properly accompany the poor on their path of liberation.” Thus, he explains, the explicit preference for the poor is “primarily a theological category rather than a cultural, sociological, political or philosophical one.”

2) *Ibid.*, 47-48.

3) *Ibid.*, 52-56: “Just as the commandment “Thou shalt not kill” sets a clear limit in order to safeguard the value of human life, today we also have to say “thou shalt not” to an economy of exclusion and inequality. Such an economy kills. How can it be that it is not a news item when an elderly homeless

mentality, he continues, is cultivated by a secular materialistic culture that “deadens” our sensitivities:

“To sustain a lifestyle which excludes others, or to sustain enthusiasm for that selfish ideal, a globalization of indifference has developed. Almost without being aware of it, we end up being incapable of feeling compassion at the outcry of the poor, weeping for other people’s pain, and feeling a need to help them, as though all this were someone else’s responsibility and not our own. The culture of prosperity deadens us; we are thrilled if the market offers us something new to purchase; and in the meantime all those lives stunted for lack of opportunity seem a mere spectacle; they fail to move us.”⁴⁾

CALL FOR A REVOLUTION IN THINKING

He connects this contemporary “attitude” and “mentality” toward the poor to treatment of the environment in *Laudato Si’*. Specifically tying the issue of inequality to the issue of climate change, he is deeply critical of unbalanced modernization, the exaggerated excesses of consumerism, and calls for a revolution in our thinking. Our relationships with God, with

person dies of exposure, but it is news when the stock market loses two points? This is a case of exclusion. Can we continue to stand by when food is thrown away while people are starving? This is a case of inequality. Today everything comes under the laws of competition and the survival of the fittest, where the powerful feed upon the powerless. As a consequence, masses of people find themselves excluded and marginalized: without work, without possibilities, without any means of escape. Human beings are themselves considered consumer goods to be used and then discarded. We have created a “disposable” culture which is now spreading. It is no longer simply about exploitation and oppression, but something new. Exclusion ultimately has to do with what it means to be a part of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those excluded are no longer society’s underside or its fringes or its disenfranchised – they are no longer even a part of it. The excluded are not the “exploited” but the outcast, the “leftovers”.

- 4) *Ibid.*, 54. This can happen because we have denied the primacy of the human person. Man cannot merely be reduced to an economic man. Pope Francis decries this “prevailing culture [where] priority is given to the outward, the immediate, the visible, the quick, the superficial and the provisional.” *Ibid.*, 62.

our fellow men, and with nature are fundamental and intimately interrelated. Everything is related, everything is connected and everything is interconnected: “Our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can never be isolated from our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with God. Otherwise, it would be nothing more than romantic individualism dressed up in ecological garb, locking us into a stifling immanence.”⁵⁾ That is, to disfigure the environment, to exclude the poor through inequality, to be disengaged with God is tantamount to disfigure God’s creation of the common good, to dehumanize ourselves via the dehumanization of others, and to become arrogantly anthropomorphic in forgetting that “God’s love is the fundamental moving force in all created things.”⁶⁾

CULTIVATE A CULTURE OF CARE

The means by which one ascertains this ‘deeper understanding of life’ is to cultivate a “culture of care.” “Social love is the key to authentic development” and the way out of the “indifference induced by consumerism.”⁷⁾ As His Holiness beautifully articulates: “there is a mystical meaning to be found in a leaf, in a mountain trail, in a dewdrop, in a poor

5) *Laudato Si'*, 70; 91-92; 119.

6) *Ibid* 77. The first and last step toward this rethinking mandates the need for us human beings to change. Decrying that “We have too many means and only a few insubstantial ends,” Pope Francis calls upon us to rethink our “modernity grounded in a utilitarian mindset (individualism, unlimited progress, competition, consumerism, the unregulated market, 210, Tapping twenty centuries of rich tradition, Pope Francis summons us to a “profound interior conversion.” The Christian vision offers an oasis in the sea of secularization and secularism, a place to be and live between the unfairness of unregulated capitalism and the total state planning of Communism. He proposes returning to the roots of ancient lessons – “the conviction that ‘less is more’.” He offers “an alternative understanding of the quality of life and encourages a prophetic and contemplative lifestyle, capable of deep enjoyment free of the obsession with consumption.” He proposes “a growth marked by moderation and the capacity to be happy with little... a return to that simplicity...”, 217, 222. Such Christian spirituality requires sobriety and humility as we awaken from a drunken materialism and narcissistic self-centeredness. In order to “cultivate a sober and satisfying life”, to promote “healthy humility or happy sobriety” anchored to the real center of our existence, our lord savior Jesus Christ, we need to find inner peace. As Pope Francis writes, “Inner peace is closely related to care for ecology and for the common good because, lived out authentically, it is reflected in a balanced lifestyle together with a capacity for wonder which takes u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life.” 225.

7) *Ibid*, 231-232.

person's face.”⁸⁾ The concept of tenderness and concern for the other is central to the Gospel: “The Son of God, by becoming flesh, summoned us to the revolution of tenderness.”⁹⁾

Critics have pounced on certain phrases in the Encyclicals, most notably his criticism of unregulated free markets and unequal distribution of income. I think it behooves us to delve into the text of the Gospel and to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for a fuller understanding. For clarification, Pope Francis is not opposed to capitalism; he is opposed to crony capitalism.¹⁰⁾ He is not against inequality per se; he is against unjust inequality. These are distinction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CONSISTENT WITH THE SCRIPTURAL REVELATION AND THE CATHOLIC SOCIAL DOCTRINE

The two Encyclicals follow the long tradition of papal enunciations and magisterial teachings on poverty, modernization and secularism. *Evangelii Gaudium* (2013) echoes the Catholic opposition to both excessive centralization and unrestrained capitalism as stipulated in *Rerum Novarum* (1891), produced in 1891 at the onset of modern and mass industrialization.

MORAL CHARACTER OF ECONOMY

The moral thrust of economic activities is an integral part of modern Catholic social teaching. Pope Pius XI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and morality in

8) *Ibid*, 233; 242.

9) *Evangelii Gaudium*, 88.

10) Crony capitalism is characterized as excessive or predominant influence and interference of the economic sphere by a powerful oligarchy. In this system, markets exist but are not free and are largely manipulated by an elite. The market is certainly not free, and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rules are largely arbitrary. i.e. Argentina. State sponsored capitalism is a conjugation of crony capitalism but the state engages in arbitrary application of norms at the risk of causing disruptions in the market. Moreover, the state has the final say in the latitude of freedom of markets. i.e. China. These two paradigms are far removed from the system that exists in the United States.

Quadragesimo Anno (1931).¹¹⁾ Moral and economic behaviors are intricately related, and reciprocal. Just as in the moral sphere, reason and economy must be taken into account, so too in economy, the demand of morality must be respected.¹²⁾ As Pope Francis would say, man cannot be a mere economic “cost” to be factored in economic calculations, for that would denigrate the dignified integrity of the human being. “Economic activity and material progress must be placed at the service of man and society.”¹³⁾ All goods, even when legitimately acquired have a “universal destination.” Furthermore, “If economic activity is to have a moral character, it must be directed to all men to all people.” To be sure, “Everyone 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conomic life” and “economic initiative” but no one is to be excluded.¹⁴⁾

John Paul II preceded Francis in differentiating the types of capitalism. After dismissing Marxism and Communism as unfit for human dignity, John Paul II defines what the Church views as true and legitimate capitalism.¹⁵⁾ Thus, we can clearly see that Pope Francis is

11) *Quadragesimo Anno*, 42-43. “Even though economics and moral science employs each its own principles in its own sphere, it is, nevertheless, an error to say that the economic and moral orders are so distinct from and alien to each other that the former depends in no way on the latter. Certainly the law of economics, as they are termed, being based in the very nature of material things and on the capacities of the human body and mind, determine the limits of what productive human effort cannot, and of what it can attain in the economic field and by what that means. Yet it is reason itself that clearly shows,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and social nature of things and of men, the purpose which God ordained for all economic life. But it is only the moral law which, just as it commands us to seek our supreme and last end in the whole scheme of our activity, so likewise commands us to seek directly in each kind of activity those purposes which we know that nature, or rather God the Author of nature, established for that kind of action, and in orderly relationship to subordinate such immediate purposes to our supreme and last end.”

12) *Gaudium et Spes*, 63: “In the economic and social realms, too, the dignity and complete vocation of the human person and the welfare of society as a whole are to be respected and promoted. For man is the source, the centre, and the purpose of all economic and social life.”

13) 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Washington: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Publishing, 2005), 326, p.142.

14) *Ibid*, 336-338, pp.146-147.

15) *Centesimus Annus*, 42. “If by ‘capitalism’ is meant an economic system which recognizes the fundamental and positive role of business, the market, private property and the resulting responsibility for the means of production, as well as free human creativity in the economic sector, then the answer is certainly in the affirmative, even though it would perhaps be more appropriate to speak of ‘business economy,’ ‘market economy’ or simply ‘free economy’. But if by ‘capitalism’ is meant a

following the Catholic tradition of opposing and criticizing misguided, negative, distorted, unfettered, crony capitalism.¹⁶⁾

EQUITABLE – NOT EQUAL – DISTRIBUTION

The Holy Father employs words, terms and phrase that are conditioned by his personal experience living in South America. By unequal, he means, unfair. When he criticizes “economic inequality” he is criticizing “unjust equality” caused by unfair competition or a broken market, not just inequality with how much people earn per se. Free markets can only be truly “free” if there are neutral, rules-based regulations - the same playing field - ensured by force of government power. Such impartiality is guaranteed by state force, resulting in equal opportunity.¹⁷⁾ Hence, when Pope Francis uses the term “better”, he is talking about a more “*equitable*” not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This distinction gets lost in the tendency of laymen to “read out of” the Holy Father’s words.

NOT EITHER/OR, BUT BOTH SOLIDARITY AND SUBSIDIARITY

Another phrase that is selectively taken out of context is Pope Francis’s take on private property. Citing the concept of solidarity, he reiterates the Church’s stance that the “social function of property and the universal destination of goods are realities which come *before*

system in which freedom in the economic sector is not circumscribed within a strong juridical framework which places it at the service of human freedom in its totality, and which sees it as a particular aspect of that freedom, the core of which is ethical and religious, then the reply is certainly negative.”

- 16) *Evangelii Gaudium*, 204” “We can no longer trust in the unforeseen forces and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Growth in justice requires more than economic growth, while presupposing such growth: it requires decisions, programmes, mechanisms and processes specifically geared to a better distribution of income, the creation of sources of employment and an integral promotion of the poor which goes beyond a simple welfare mentality. I am far from proposing an irresponsible populism, but the economy can no longer turn to remedies that are a new position, such as attempting to increase profits by reducing the work force and thereby adding to the rank of the excluded.”
- 17) The CDC is crystal clear in the “safeguard” role of the state, 352. See also Adam Smith’s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and David Ricardo’s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private property.” To be sure, there lurks a danger in a rootless solidarity. The CDC buttresses this integral notion in a neat turn of phrase: “Solidarity without subsidiarity, in fact, can easily degenerate into a ‘Welfare State,’ while subsidiarity without solidarity runs the risk of encouraging forms of self-centred localism.”¹⁸⁾

This particularly Catholic view of property may seem alien to many who have been marinated in the exclusively secular individualistic view of property ownership. But the Church is manifestly clear and consistent in expounding the use of private property in the social context. Pope Paul VI delineated the common good of universal destination in *Populorum Progressio* (1967), making it clear that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is neither absolute nor unconditional.¹⁹⁾ In short, what is yours now was not yours before you took possession of it because it describes a reality *prior* to private property.”²⁰⁾

BETTERMENT OF ALL MEN AND THE WHOLE MAN – INTEGRAL AND SOLIDARY HUMANISM

The Catholic tradition views man in his totality, his wholeness, and in his solidarity. Thus, the poverty of the spirit is just as corrosive as material poverty. According to the Church’s

18) CDC, 351. Pope Francis picks up on this directly: “Welfare programs geared to certain emergencies can only be considered temporary responses. They will never be able to replace true inclusion, an inclusion which provides worthy, free, participatory and solidary work.” Address at Expo Fair, Santa Cruz de la Sierra, July 9, 2015. Walter Kasper expands on this theme concerning the limits of state action by pointedly observing, “modern social security systems violate subsidiarity, undermine solidarity and create dependency.” Samuel Gregg, “Kasper versus Kasper,” *Crisis Magazine*, May 15, 2014.

19) Paul VI, *Populorum Progressio*, 22-25. “Everyone knows that the Fathers of the Church laid down the duty of the rich toward the poor in no uncertain terms. As St. Ambrose put it: ‘You are not making a gift of what is yours to the poor man, but you are giving him back what is his. You have been appropriating things that are meant to be for the common use of everyone. The earth belongs to everyone, not to the rich’... No one may appropriate surplus goods solely for his own private use when others lack the bare necessities of life. In short, ‘as the Fathers of the Church and other eminent theologians tell us,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may never be exercised to the detriment of the common good.’”

20) This a *priori* common good of universal destination is a key concept. Address at Expo Fair, Santa Cruz de la Sierra, July 9, 2015.

social doctrine, “economic freedom is only one element of human freedom” and the economy “is only one aspect and one dimension of the whole of human activity.”²¹⁾ Catholic social doctrine seeks to foster the betterment of “all men and the whole man.”²²⁾

The obsession with consumerism is self-defeating because it engenders a disposition to “having” rather than “being”. As the Holy Father writes:

“The current global situation engenders a feeling of instability and uncertainty, which in turn becomes a ‘seedbed for collective selfishness’. When people become self-centred and self-enclosed, their greed increases. The emptier a person’s heart is, the more he or she needs things to buy, own and consume. It becomes almost impossible to accept the limits imposed by reality. In this horizon, a genuine sense of the common good also disappears.”²³⁾

This distinction underscor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tholic and Protestant view of individuals, society, and modern economic systems. Pope Francis is consciously and doctrinally providing an alternative to the sentiment of the aggregation of individual self interest as underscored in Max Weber’s penetrating opus,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Catholic teachings unequivocally reject individualism *per se* and *in toto*. In the Catholic ethos, individual self-interest, by definition, contains a social virtue, in the absence of which individual accomplishments are meaningless.

The Catholic teaching on common good is in stark contrast to the so-called Prosperity Gospel movement, often dubbed as ‘Health and Wealth Gospel’ or the ‘Gospel of Success’. The supporters of this movement believe that faith works like a mighty power or force. Through faith we can obtain anything we want – health, wealth, success, or whatever we please. However, this force is released only through the spoken word. As we speak words

21)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350, 375.

22) *Evangelii Gaudium*, 181.

23) *Laudato Si’*, 204.

of faith, power is discharged to accomplish our desires. I am afraid that many of our Protestant brothers and sisters in Korea adhere to this movement without realizing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Gospel, centered on the paschal mystery of the Christ crucified but risen.

A business enterprise, in the Catholic view, must be “a community of solidarity”.²⁴⁾ Thus, we see, that the Catholic view of the economy, business, growth, property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income is uniquely Catholic. It doesn’t fit neatly into variations of corporatism or welfarism, subjected to neither pure unbridled capitalism nor the state totalitarianism of socialism.

CARING FOR THE NEEDY IS THE TOUCHSTONE OF THE GOSPEL

In his First Lent message on January 31, 2014, Pope Francis cited Pauls’ letter to the Corinthians: “For you know the generous act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s he became poor, so that by his poverty you might become rich.”²⁵⁾ Pope Francis is particularly animated when the topic of poverty arises in media interviews: “The Gospel’s message is for everyone, the Gospel does not condemn the wealthy, but the idolatry of wealth, the idolatry that makes people indifferent to the call of the poor.” His cogent paraphrase of chapter 25 of Matthew is masterful: “I was hungry, I was thirsty, I was in prison, I was sick, I was naked and you helped me, clothed me, visited me, took care of me. Whenever we do this to one of our brothers, we do this to Jesus. Caring for our neighbor, for those who are poor, who suffer in body and in soul, for those who are in

24) CDC, *op.cit.*, 340, 344. “Business owners and management must not limit themselves to taking into account only the economic objectives of the company, the criteria for economic efficiency and the proper care of ‘capital’ as the sum of the means of production. It is also their precise duty to respect concretely the human dignity of those who work within the company. These workers constitute ‘the firm’s most valuable asset’ and the decisive factor of production. In important decisions concerning strategy and finances, in decisions to buy or sell, to resize, close or to merge a site, financial and commercial criteria must not be the only considerations made.”

25) 2 Cor 8:9

need. This is the touchstone... it is the Gospel.”²⁶⁾ He continues: “poverty is the center of the Gospel. Jesus came to preach to the poor. If you take poverty out of the Gospel you can’t understand anything because you take out its core.”²⁷⁾

The Old Testament is replete with this primordial concern for the poor and the duty of fellow human beings to assist them. The Proverbs: “He who shuts his ear to the cry of the poor will himself also call and not be heard.” Eloquence permeates Sirach.²⁸⁾

One could not be Christian if one ignored the poor. It is profoundly Christian to confer dignity on those who are particularly downtrodden. According to Luke, Jesus Christ taught his disciples to take care of the underprivileged amongst us.²⁹⁾ The phrase in Mass - “do this in memory of me” - echoes loudly in Jesus Christ’s lament to take care of the poor: “Amen, I say to you, what you did not do for one of those least ones, you did not do for me.”³⁰⁾ Our refusal to take care of the poor is an affront and disservice to our Savior Lord Jesus Christ. Jesus identifies himself with the poor. The story of the Gospel is the narrative of the poor. So much for “radical” Francis.

26) Andrea Tornielli’s October 2014 interview, contained in his book, *Papa Francesco. Questa economia uccide (Pope Francis: This Economy Kills)*, cited by Gerard O’Connell, *America*, January 11, 2015.

27) Thomas Williams, “Pope wants to be remembered as a good guy,” *Breitbart*, May 25, 2015. Again, he writes in his encyclical: “Our faith in Christ, who became poor, and was always close to the poor and the outcast, is the basis of our concern for the integral development of society’s most neglected members.” *Evangelii Gaudium, op.cit.*, 186.

28) Sirach 4:1-10: “My son, rob not the poor man of his livelihood; force not the eyes of the needy to turn away. A hungry man grieve not, a needy man anger not; Do not exasperate the downtrodden; delay not to give to the needy. A beggar in distress do not reject, avert not your face from the poor. From the needy turn not your eye, give no man reason to curse you; For if in the bitterness of his soul he curse you, his Creator will hear his prayer... Give a hearing to the poor man, and return his greeting with courtesy.”

29) Luke 6:20-26; 38.

30) Matthew 25: 31-46.

PART II

DIFFERENTIATED ROLES OF THE CLERGY AND THE LAITY IN THE PUBLIC SPHERE

CULTIVATING A CULTURE OF PARTICIPATION AND DIALOGUE

Given these papal proclamations, how are we to respond to the call to assist the poor, the excluded, the underprivileged, the downtrodden? We begin where Pope Francis left us at the end of his Encyclical – to foster, cultivate, and promote a culture of care over a resignation of neglect and indifference, a culture of civilized and respectful dialogue supplanting confrontation and militancy, a culture of unity overcoming a disposition toward division.

ROLE OF THE CLERGY

The starting point for such an endeavor is the role of the clergy. The priest is a public figure of authority and morality. But he is not mandated or ordained for polity. In the U.S., the clergy have by and large voiced their political opinions via formal organizations, vetted through the church hierarchy. Instances where individual priests or nuns have interjected themselves into political matters, they have done so as speaking for themselves and not on behalf of the church.³¹⁾

The situation is far different in South Korea. Though most clergy refrain from involvement in political issues, there is a distinct growing minority of Korean priests who

31) The priest, as the 1971 Synod of Bishops noted, “certainly retains the right to have personal political opinions and to exercise his right to vote according to his conscience... In circumstances in which there legitimately exist differe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options, priests like all citizens have a right to make their own personal choices. But since political options are by nature contingent and never in an entirely adequate and perennial way interpret the Gospel, the priest, who is the witness of things to come, must keep a certain distance from any political office or involvement. *Enchiridion Vaticanum*, IV, 1195.

have directly, brazenly and militantly injected themselves into political matters, cloaked in the garb of Catholicism and exploiting their priesthood. In the 1970-80s there were some clergy who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But the current militant political activism of some clergy is hardly in line with the papal and magisterial instructions, and creates divisions and conflicts among Catholics and others. Perhaps with the exception of a few priests in Central America in the 1970's and 1980s, I cannot recollect where there is this level of troubling development.

This is a violation of both their oath and duty as priests, as servants of God, to promulgate the word of Jesus Christ.³²⁾ In particular, the priest should not use the Mass - the sacrament of unity and communion - as a political avenue for protest or engage in violence against policies, individuals or institutions of power. His duty is to unite not to divide. He is first and foremost a spiritual father not a political animal. To do so would be un-priestly.

The Code of Canon Law stipulates:

287/1. Most especially, clerics are always to foster peace and harmony based on justice, which is to be observed among all persons.

287/2. Clerics are not to have an active role in political parties and in the direction of labor unions unless the nee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hurch or to promote the common good requires it in the judgment of competent ecclesiastical authority.³³⁾

32) The priesthood is a calling. The priest is ordained. The acceptance of hierarchy and obedience is a categorical imperative. It is not up to the individual priest to “make a call” on his own about his interpretation of what hi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re. “Simply, the priest cannot do what the laymen can do. As one observer noted, it is not the job of the priest to “go out to the picket line or to the street to rally, join a labor union, or stage a protest to defend the poor”: Pope Francis, the Social Teachings and the Filipino Faith,” Priest and Politics, jmbm.blogspot.com, February 7, 2015.

33) *Code of Canon Law*, 287, 1-2.

The unifying and sanctifying role of the priest transcends any political contingency: “that priests, by combined effort and ai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bishops and the Supreme Pontiff, wipe out every kind of separateness, so that the whole human race may be brought into the unity of the family of God.”³⁴⁾

THE PRIEST AS REPRESENTATIVE OF JESUS CHRIST

As a direct representative of the image of Jesus Christ and one who submits to the Church hierarchy, the priest is a servant of the Church. Therefore, the priest, “by virtue of its universality and catholicity cannot have ties with any historical contingency, and hence he will therefore remain above and beyond any political party.”³⁵⁾

Pope John Paul II who had to tackle the rising tide of liberation theology during his papacy was no less articulate. His message was that though Jesus Christ opined on the “right” ordering of polity, he was not directly involved in worldly affairs. Thus, priests were not to have a political mission.

“Following Christ, the priest is more directly concerned with the growth of God's kingdom. Like Jesus, he must renounce involvement in political activity, particularly by not taking sides (which almost inevitably happens), in order to remain a man for all in terms of brotherhood and, to the extent that he is accepted as such, of spiritual fatherhood.” This is so because “a political party can never be identified

34) *Lumen Gentium*, 28.

35) Congregation for the Clergy, *Directory on the Ministry and Life of Priests* (Vatican: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3). In the section, titled “the identity of the priest,” the Directory notes that the priest is “a real, living and faithful image of Christ the Priest, ‘a sacramental representation of Christ, Head and Shepherd’”: *Ibid.*, 2. The priest must submit himself to “a deep, humble and filial bond of obedience and charity with the person of the Holy Father”... and a “filial union with his own Bishop is also an indispensable condition for the efficacy of the priestly ministry... it is not the role of the Pastors of the Church to intervene directly in the political structuring and organisation of social life. This task is part of the vocation of the lay faithful, acting on their own initiative with their fellow citizens... The reduction of his mission to temporal tasks of a purely social or political nature, or in any case alien to his identity, would be not a conquest but a most grave loss for the evangelical fecundity of the entire Church: *Ibid.*, 44.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and therefore, unlike the Gospel, it can never become an object of absolute loyalty.”³⁶⁾

Priests have neither the mission nor the authority to engage in political involvement and activism. The duty of the priest is to promote a culture of dialogue, civility, and unity, not confrontation, violence, and division. *In persona Christi* the priest is obligated to proclaim the authentic apostolic teaching, govern the flock with charity, and sanctify the people with God’s grace.

ROLE OF THE LAITY

If the job of the priest is to inspire, mobilize and provide moral guidance then it is the laity that must execute. The roles of the clergy and the laity are distinct and separate.³⁷⁾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states: “It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Church's pastors to become directly involved in political action and social organization. This task pertains to the vocation of the *lay faithful*, who work on their own initiative together with their fellow citizens”³⁸⁾ Together with the clergy, the laity can cultivate a culture of giving, service, and

36) *Address to General Audience on July 28, 1993*, published in *L'Osservatore Romano*, August 4, 1993: “The kingdom he came to establish does not belong to this world (cf. Jn 18:36). For this reason he said to those who wanted him to take a stand regarding the civil power: “Repay to Caesar what belongs to Caesar and to God what belongs to God” (Mt 22:21). He never promised the Jewish nation, to which he belonged and which he loved, the political liberation that many expected from the Messiah. Jesus stated that he came as the Son of God to offer humanity, enslaved by sin, spiritual liberation and a calling to the kingdom of God (cf. Jn 8:34-36); he said that he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cf. Mt 20:28); and that his followers too, especially the Apostles, should not think of earthly power and dominion over nations as do the rulers of this world, but be the humble servants of all (cf. Mt 20:20-28), like their ‘Teacher and Master’ (Jn 13:13-14).” Though Jesus preached the “precept of fraternal love, solidarity and reciprocal help on a universal scale, he never wanted to be involved in a political movement and fled from every attempt to draw him into earthly questions and affairs (cf. Jn 6:15).” His mission was spiritual liberation of humanity and a calling to the kingdom of God.

37) *Enchiridion Vaticanum*, IV, 1194. The 1971 Synod of Bishops declared that “the role of priests in social and political action is not identical to that of the laity.”

38)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442. As John Paul II said, the priest should help the laity form mature consciences and inspire the laity to carry out their own dutie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The

dialogue.

CULTURE OF MERCY AND GIVING

Pope Francis envisions a Church which “is bruised, hurting and dirty because it has been out on the streets, rather than a Church which is unhealthy from being confined and clinging to its own security.”³⁹⁾

A culture of giving is deeply ingrained in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among Catholics. Average Catholics generously and regularly respond to appeals from parishes, dioceses, and the U.S. Bishops Conference. Founded in 1910, Catholic Charities is the largest domestic humanitarian agency in the U.S. providing assistance to 9 million people annually through 160 local Catholic Charities. Catholic Relief Services, founded in 1943, provides assistance to 130 million people in more than 90 countries and territories. Another sign of mercy is adoption. The generosity of so many people in the U.S. in adopting orphans from all around the world is to be duly noted. In Korea, Caritas International and One Heart One Body Movement (since 1989 serving in about 50 countries) are the main Catholic agencies responding to various needs.

A devout Catholic and orphan, Tom Monaghan rose from poverty and adversity, to build Domino’s Pizza. These are his words as he pledged half of his \$500 million fortune to charity: “I came into the world penniless and as a Catholic, I know that I cannot take any of it with me, so it has long been my desire to use the material resources that I have been blessed with to help others in the most meaningful ways possible.”⁴⁰⁾ A parishioner of mine

priest must be, John Paul II reminds us: “a strong sign of unity, and thus proclaim the Gospel in its fullness” by “[respecting] the maturity of the laity and even work to help them achieve that maturity by forming their consciences. Lastly, he will do what is possible to avoid making enemies by taking political stands that cause distrust and drive away the faithful entrusted to his pastoral mission.”

Address to General Audience on July 28, 1993, published in *L'Osservatore Romano*, August 4, 1993.

39) *Evangelii Gaudium*, 49. Pope Francis has called for “a distinctive way of looking at things, a way of thinking, policies, an educational programme, a lifestyle and a spirituality which together generate resistance to the assault of the technocratic paradigm.” *Laudato Si*, 111.

40) Nathan Bomey, “Domino’s founder Tom Manghan pledges half of his fortune to charity,” *Ann Arbor News*, August 5, 2010. If you choose to live more modestly, there is no better example than Jeff

who attends Mass every day surprised me with the contribution of almost two million dollars in the past two years. He has a good job but lives modestly in the same house he has lived in for the last thirty years. He does not want his name or his gift to be publicized.⁴¹⁾

Perhaps the quintessential American embodiment of the Catholic culture of giving is Sr. Katherine Drexel (1858-1955), canonized on October 1, 2000. A daughter of a wealthy banker, she was trained by her father to realize that one's money is meant to be shared with others. In fact, she gave more than \$21 million to help found churches, schools, and hospitals across the United States. In founding a religious congregation, she vowed to "be the mother and servant of the Indian and Negro races." Indeed, she dedicated her whole life and possession to the love and care for the Native Americans and African Americans.

CULTURE OF PARTICIPATORY SERVICE AND DIALOGUE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encouraged the laity to a "faithful citizenship" based on the rich treasure of Catholic social teachings: "Responsible citizenship is a virtue, and participation in political life is a moral obligation." Through baptism, Catholics are committed to following Jesus Christ and to be "salt for the earth, light for the nations." As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reminds us, "It is necessary that all participate, according to his position and role, in promoting the common good. This is inherent in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 As far as possible citizens should take an active part in public life".⁴²⁾

Actually, such a participatory association, as Alexis de Tocqueville observed, is the very

Bezos, the founder of Amazon.com. Despite his wealth, he still drives around in his 1996 Honda Accord. These two individuals have no sense of entitlement and arrogance and preening of their wealth or status, in contrast to KAL's Cho Hyun Ah who embarrassed herself and her nation with an obsession with macademia nuts.

41) Andrew Carnegie, in *The Gospel of Wealth*, preached: "This then is held to be the duty of the man of wealth: to set an example of modest, unostentatious living, shunning display or extravagance; to provide moderately for the legitimate wants of those dependent upon him... The man who dies thus rich dies disgraced": Cited in *Lapham's Quarterly*, vol.23, no.3 Summer 2015, pp. 91-92.

42) Nos, 1913-1915. See *Forming Consciences for Faithful Citizenship*, www.usccb.org.

blood that runs through the veins of a democratic society.⁴³⁾ Overcoming a culture of violent confrontation, a culture of respectful dialogue and active participation is a must in further promoting a healthy democracy, centered on God-given human dignity. Bishop McElroy states: “We are called to create a Catholic political conversation that proclaims the greatest problems of our day can only be solved with a vision rooted in the transcend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For in the end, the very purpose of Catholic political conversations is to help our nation see human suffering and human striving not through the lens of politics but as God sees them.”⁴⁴⁾

FAITHFUL CITIZENSHIP

Such active participation in public life presupposes a Catholic base and authentic faith. Faithful citizenship means that being Catholic is not “ a mere appendage”⁴⁵⁾ The Catholic faith cannot be viewed as an accessory like jewelry to be worn when advantageous or to be socially recognized. Faithful citizenship requires a disposition toward the service of others and civility that can only arise from genuine empathy. As Catholics, we cannot live sheltered away from the problems of others. “Jesus wants us to touch human misery, to touch the suffering flesh of others.”⁴⁶⁾ As Catholics, we cannot run away or look away from the sufferings of others. “We do not live better when we flee, hide, refuse to share, stop giving and lock ourselves up in own comforts. Such a life is nothing less than slow suicide.”⁴⁷⁾ To treat others with dignity and civility, to engage with others in dialogue and discussion epitomizes the Catholic spirit.

43) In aristocratic societies, de Tocqueville noted: “men feel no need to act in groups because they are strongly held together... But among democratic nations all citizens are independent and weak; they can achieve almost nothing by themselves and none of them could force his fellows to help him. Therefore they all sink into a state of impotence, if they do not learn to help each other voluntarily... In democratic nations, associations must take the place of those powerful individuals who have been swept away by the equality of social conditions”: Cited in *Lapham's Quarterly*, vol.23, no.3 Summer 2015, pp. 131-132.

44) Robert W. McElroy, “A Church for the Poor,” *America*, October 21, 2013.

45) *Evangelii Gaudium*, 78.

46) *Evangelii Gaudium*, 270.

47) *Evangelii Gaudium*, 272.

This wonderful Catholic life must be centered around God and infused with God's grace. As Father Roger Haight put it:

“There can be no authentic or altruistic action for others that is not ultimately the result of God's internal liberating grace. Thus what seems at first sight to be a personal effect of grace really in its full dimensions essentially [is] interpersonal. The effect of grace is essentially social, and urges human personality towards expansiveness and self-transcendence.”⁴⁸⁾

Having received God's liberating grace, we are freed from self-absorption and greed and learn to love without the wanting of reciprocated love. St. Therese of Lisieux encourages us to show our love in small ways “not to miss out on a kind word, a smile or any small gesture which sows peace and friendship.”⁴⁹⁾ After all, loving others is what draws us closer and in union with God and vice versa. One who does not love “walks in the darkness”⁵⁰⁾, “remains in death”⁵¹⁾ and “does not know God.”⁵²⁾ Life isn't about how well we weather the storms, but how often we dance in the rain. As Pope Francis asks, “Let us sing as we go.”⁵³⁾

48) Roger Haight, *The Experience and Language of Grace* (New York: Paulist Press, 1979), p. 169.

49) Cited in *Laudato Si*, 230.

50) 1 John 1:5-7

51) 1 John 3:14

52) 1 John 4:8

53) *Laudato Si*, 244.

배려와 돌봄의 문화

Fr. Paul D. Lee, S.T.D.

Nisi credideritis non intelligetis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아우구스티누스

현대성과 세속주의의 위기는 인간의 자기본위성에 있습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존재와 그 존재의 의미 중심에 계십니다. 인간의 존엄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나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침범할 수 없는 것이며 무한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두 가지 회칙, 「복음의 기쁨」과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바로 이러한 가톨릭의 정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시고자 합니다.

1부

가난한 자를 위한 선택 vs. 배척의 문화

먼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교황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원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은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우선적인 배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간직하도록 부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그 편을 먼저 선택하는 특별한 형태의 우선’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 전체가 이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¹⁾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며 이들에 몰두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교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배척, 소비주의, 쓰고 버리는 일회성 사고방식의 문화를 도려내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고 하시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례는 성사 생활의 충만함이지만 완전한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나약한 이들을 위한 영약이며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황께서 선언하시길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가난한 이들은 복음의 가장 뛰어난 수용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가난한 이들 사이에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유대가 있다는 사실을 주저 없이 밝혀야 합니다.’ 결코 가난한 이들을 저버리지 마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따르면, 우리는 그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그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교황의 비판의 중심에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불평등은 사회악의 근원입니다.”²⁾

비인간적인 경제는 안 됩니다.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 이론”과 “돈에 대한 새로운 이상숭배, 그리고 참다운 인간적 목적이 없는 비인간적인 경제 독재”를 이끄는 “시장과 금융투자의 절대 자율”이라는 “새로운 독재”를 비판하시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일부 특권 집단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소모품처럼 이용되고, 배척되고, 버려지는 현 경제 복지의 상황을 비판하십니다.³⁾ 계속해서 교

1)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98-199.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그리스도교인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신학적 명령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관상적입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필요나 허영심으로 다른 이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과 상관없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랑받을 때 ‘매우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로써, 가난한 이를 위한 진정한 선택은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난한 이를 착취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어떠한 이념과도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진심으로 가까이 있는 것에서 출발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해방의 길에서 그들을 제대로 동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에게 대한 분명한 선호는 “문화적, 사회학적, 정치적, 또는 철학적 범주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신학적 범주입니다”라고 교황께서 설명하십니다.

2) 같은 책, 47-48.

3) 같은 책, 52-56.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분명한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제는 사람을 죽

황께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세속적 물질주의 문화에 의해 길러 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생활양식을 유지하고자, 또는 이기적인 이상을 열광적으로 좇고자, 사람들은 무관심의 세계화를 펼쳐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스러운 절규 앞에서 함께 아파할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의 고통 앞에서도 눈물 흘리지 않으며 그들을 도울 필요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지 우리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번영의 문화가 우리를 마비시키고, 시장에 새 상품이 나오면 사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반면에 기회의 박탈로 좌절된 모든 이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전혀 와 닿지 못하고 단순한 구경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⁴⁾

사고의 혁명을 요구합니다.

교황께서는 「찬미받으소서」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우리 시대의 “태도” 및 “사고방식”과 환경을 다루는 방식을 연관시키십니다. 특히 불평등의 문제와 기후 변화의 문제를 연결 지으시며, 균등하지 못한 현대화와 과도한 소비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시고 우리 사고의 혁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그리고 자연과 맺는 관계는 근본적인 것이며 매우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분리된다면, 이는 생태적 아름다움으로 위장된 낭만적 개인주의로 내재성 안의 숨 막히는 단절이 될 것입니다.”⁵⁾ 다시 말

일 뿐입니다. 나이 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경쟁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면서 힘없는 자는 힘센 자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도, 희망도,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을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는’ 문화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단순히 착취와 억압 현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어떤 것입니다. 배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배척된 이들은 더 이상 사회의 최하층이나 주변인이나 힘없는 이들이 아니라, 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착취된’ 이들이 아니라 쫓겨난 이들,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 4) 같은 책, 54. 인간이 최우선임을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경제적인 인간만으로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외향적이고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즉각적이고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우선시되는 이러한 지배적 문화”를 비판하십니다.

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통해 가난한 이를 배척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선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시킴으로써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이며,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근원적 동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인간이 것입니다.⁶⁾

돌봄의 문화를 가꾸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는 “돌봄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사랑은 참다운 진보를 위한 열쇠”이고 “소비주의에 의해 초래된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⁷⁾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유려하게 표현하셨듯이, “나뭇잎에, 산길에, 이슬방울에, 가난한 이의 얼굴에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⁸⁾ 온유함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강생을 통하여 온유한 사랑의 혁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⁹⁾

비평가들은 회칙의 일부 구절, 특히 규제 없는 자유 시장과 불평등한 소득 분배에 대한 교황의 비판을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 텍스트와 교회의 사회 교리

5) 「찬미받으소서」, 70; 91-92; 119.

6) 같은 책, 77. 이러한 사고전환의 처음이자 마지막 단계는 우리 인간의 변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는 보잘것없고 헛된 목적을 위한 수단들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꾸짖으시며, “실용주의적 인 의식구조(개인주의, 무한한 진보, 경쟁, 소비주의, 규제 없는 시장)에 기반한 우리의 현대성”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210. 이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리스도교 영성의 풍요로운 유산에 대해 언급 하시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리스도교의 비전은 세속화와 세속주의의 바다에서 오아시스를 제시합니다. 이 오아시스는 규제 없는 자본주의의 불공정함과 공산주의의 전체주의 국가계획 사이에 위치한, 우리가 살 곳입니다. 교황께서는 고대 가르침의 뿌리, 즉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십니다. 교황께서는 삶의 질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시고, 소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을 독려하십니다. 교황께서는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 ... 그런 검소함으로 되돌아갈 것”을 제안하십니다. 217, 222.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우리에게 술 취한 물질주의와 자기도취적인 자기본위성에서 깨어나서 맑은 정신과 겸손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정신이 깨어 있는 만족스러운 삶을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존재의 진정한 중심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기반을 둔 “건강한 겸손 또는 행복한 맑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적 평화는 생태와 공동선에 대한 배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실현된 내적 평화는, 우리를 생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인도하는 경탄의 능력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생활양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25.

7) 같은 책, 231-232.

8) 같은 책, 233; 242.

9) 「복음의 기쁨」, 88.

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본주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황께서는 정실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¹⁰⁾ 교황께서는 불평등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불평등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서의 계시 및 가톨릭의 사회 교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두 회칙 「복음의 기쁨」과 「찬미받으소서」는 빈곤과 현대화와 세속주의에 대한 교황의 언명과 교회의 가르침의 오랜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2013)은 현대 대량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기인 1891년에 반포된 「새로운 사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절제되지 않은 자본주의에 대한 가톨릭의 반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도덕적 특성

경제 행위의 도덕적 추진력은 현대 가톨릭 사회 교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교황 비오 9세는 「사십주년」(1931)에서 경제와 도덕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¹¹⁾ 도덕적 행동과 경제적 행동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적입니다. 도덕의 영역에서 이성과 경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처럼 경제에서도 도덕성의 요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¹²⁾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시듯

10) 정실 자본주의(특별 경영과 정경 유착의 경제 체제)의 특징은 권력을 가진 과두 정부의 경제 영역에 대한 과도한, 또는 지배적인 영향과 간섭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시장은 존재하지만 자유롭지 않으며 대체로 엘리트에 의해 조종됩니다. 그 시장은 결코 자유롭지 않고, 규정과 규칙의 적용은 대개 자의적입니다. 즉, 아르헨티나의 경우입니다. 국가 후원 자본주의는 정실 자본주의의 변형인데, 국가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규범을 자의적으로 적용합니다. 게다가 국가는 시장 자유의 허용범위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집니다. 즉, 중국의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은 미국의 시스템과 크게 다릅니다.

11) 「사십주년」, 42-43. 경제학과 윤리학이 그 고유의 영역에서 자기 자체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 질서와 도덕 질서가 서로 다르고 이질적인 것이어서 경제가 도덕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입니다. 지상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몸과 마음의 속성에서 파생되는 이른바 경제 법칙이라는 것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생산적인 인간의 노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와 도달할 수 없는 목표, 그리고 그때에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물과 인간의 개별적이고 사회적인 본성에 의거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경제 주체를 위해 정해 놓으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성 그 자체입니다. 도덕적 법칙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최고이자 최종 목적을 찾으도록 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도덕적 법칙만이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에서 자연 또는 대자연의 창조주께서 설정하신 그 목적을 추구하라고 명하며, 질서정연한 관계 속에서 당장의 목적을 최고이자 최종 목적에 종속시킬 것을 명합니다.

이, 인간이 경제적 계산의 결과로 야기되는 한낱 경제적 “비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품위 있는 고결함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행위와 물질적 진보는 인류와 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¹³⁾ 모든 재화는, 특히 합법적으로 취득된 경우조차도 “보편적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경제 행위가 도덕적 특성을 가지려면 그것은 모든 인간과 인류 전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분명 “모든 사람은 경제 생활과 경제 계획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¹⁴⁾

프란치스코 교황에 앞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자본주의의 유형을 구분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거부하시고, 교회가 생각하는 참되고 적절한 자본주의를 규정하십니다.¹⁵⁾ 그러므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잘못 인도되고 부정적이며 왜곡되고 규제 없는 정실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가톨릭 전통을 따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¹⁶⁾

동등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

교황 성하께서는 남미에서 살던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언어와 용어와 구절을 사용하십니다. 교황께서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황께서 “경제적 불평등”을 비판하신 것은, 사람들이 버는 액수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공정한

12) 「기쁨과 희망」, 63. “경제 사회 생활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그 온전한 소명, 사회 전체의 선익은 존중되고 증진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3)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워싱턴:미국 가톨릭주교회의)

14) 같은 책, 336-338, pp. 146-147.

15) 「백주년」, 42. “만일 ‘자본주의’가 기업, 시장, 사유 재산과 여기에 따르는 생산 수단의 책임, 경제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인간의 창의력의 기본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면, ‘기업 경제’, ‘시장 경제’ 또는 단순히 ‘자유 경제’를 논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대답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본주의’가 확고한 사법적 테두리—경제적 자유를 전체 인간 자유를 위한 것으로 보며, 또한 경제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인간 자유의 특정 측면으로서 인식하는 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경제 영역의 자유가 제한 받지 않는 체제를 의미한다면, 그러면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16) 「복음의 기쁨」, 204. “우리는 더 이상 시장의 예측할 수 없는 힘과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의의 증진은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는 더 나은 소득 분배, 일자리 창출, 단순한 복지 정신을 넘어선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진보—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지향하는 결정, 계획, 구조, 과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어떤 무책임한 대중 영합주의를 제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는, 노동력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배제된 이들의 대열에 합류시켜 버림으로써 이윤을 늘리려는 시도와 같은, 새로운 독이 되는 해결책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지 못한 경쟁이나 훼손된 시장에 의해 초래된 “부당한 평등”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자유 시장은 정부 권력에 의해 보장된 중립적이며 규칙 기반한 규제, 즉 동일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어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정함이 국가 권력에 의해 보장될 때 평등한 기회로 이어집니다.¹⁷⁾ 그러므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더 나은”이라고 말씀하실 때 교황은 소득의 “동등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교황 성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의미 구분이 종종 사라집니다.

연대와 보조성—양자택일이 아닌 공존의 문제

맥락에서 선택적으로 분리되어 읽히는 또 하나의 어구는 사유재산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견해입니다. 연대의 개념을 인용하시면서 교황께서는 “재산의 사회적 기능과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 사유재산에 앞선 실재”라는 교회의 견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명 뿌리 없는 연대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간추린 사회 교리」는 이 필수적인 개념에 대한 지지를 깔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조성이 결여된 연대는 ‘복지 국가’로 쉽게 변질될 위험이 있는 한편, 연대가 결여된 보조성은 이기적인 지역주의 형태들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¹⁸⁾

재산에 대한 이러한 독특한 가톨릭의 견해는 재산소유권에 대한 매우 세속적인 개인주의적 관점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 테두리 내에서의 사유 재산 사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민족들의 발전」(1967)에서 보편적 목적의 공동선에 관하여 설명하시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인 것도 무조건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¹⁹⁾ 간단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

17) 「간추린 사회 교리」는 국가의 “안전보호”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Adam Smith의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와 David Ricardo의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참조.

18) 「간추린 사회 교리」, 351.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상사태에 맞춰진 복지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반응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아우름, 즉, 가치 있고 자유롭고 참여적이며 연대의 노동을 제공하는 그러한 아우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엑스포 박람회,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연설. Walter Kasper는 국가 행위의 한계에 대한 이 주제를 확장시키며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현대의 사회보장제도는 보조성을 위배하고, 연대를 약화시키며,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Samel Gregg, “Kasper 대 Kasper,” 「Crisis Magazine」, 2014년 5월 15일.

19) 교황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22-25. “교부들도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한 부유한 사람들의 의무를 강조하였음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것을 가난한 이에게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네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남들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도 없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재화까지 자신을 위해서 독점해 둔

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유 재산 이전의 실재이기 때문입니다.²⁰⁾

모든 인간과 인류 전체의 발전—필수적이고 연대적인 인본주의

가톨릭 전통은 인간을 전체성, 전인성, 그리고 연대성의 관점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빈곤은 물질적 빈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좀먹습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는 다만 인간 자유의 한 부분이고” 경제는 “전체 인간 활동의 단지 하나의 양상이며 차원일 뿐입니다.”²¹⁾ 가톨릭 사회 교리는 “인간 전체와 인류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²²⁾

소비주의에 대한 압박은 ‘존재’보다는 ‘소유’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자멸적입니다. 교황 성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현대 세계의 상황이 야기하는 불안과 불확실성은 집단 이기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폐쇄적일 때 탐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사람들은 구매하고 소유하고 소비할 대상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그 누구라도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참다운 공동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²³⁾

이러한 구분은 개인과 사회와 현대 경제 체제에 대한 가톨릭과 개신교의 시각 차이를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막스 베버의 통찰력 있는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강조된, 개인의 이익 추구에 대한 집단 정서에 대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은 한 목소리로 개인주의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가톨릭 정신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은 마땅히 사회적 선행을 포함하며, 이러한 사회적 선행이 결여된 개인적 성취는 무의미합니다.

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부당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교부들과 훌륭한 신학자들의 전통적 교훈대로 공공 복지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사유재산권이 임의대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0) 보편적 목적의 이러한 선행적 공동선이 핵심 개념입니다. 엑스포 박람회 연설.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2015년 7월 9일.

21) 「간추린 사회 교리」, 350, 375.

22) 「복음의 기쁨」, 181

23) 「찬미받으소서」, 204.

공동선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은 종종 ‘건강과 부의 복음’ 또는 ‘성공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소위 번영복음운동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신앙이 강건한 권력이나 힘처럼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건강, 부, 성공, 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말을 통해서만 발산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힘이 방출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많은 개신교 형제자매들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파스카의 신비의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이러한 운동을 신봉할까 두렵습니다.

가톨릭의 관점에서선 사업체는 “연대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²⁴⁾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 비즈니스, 성장, 재산, 소득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이 독특하게 가톨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톨릭의 견해는 완전히 무분별한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의 국가전체주의도 아닌 협동조합주의나 복지주의의 여러 형태의 변형 범주에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를 돌보는 것이 복음의 시금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4년 1월 31일 첫 사순절 메시지에서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²⁵⁾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미디어 인터뷰에서 빈곤이 주제로 나올 때 특히 열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부유한 이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의 이상화, 사람들을 가난한 이들의 요청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 이상화를 비난합니다.” 교황께서는 마태오 복음 25장을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풀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굶주렸고, 목말랐고, 감옥에 있었고, 헐벗었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찾아 주었고, 돌봐 주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가난하고 육체와 영혼이 고통 받는 이를, 도움이 필요

24) 「간추린 사회 교리」, 340, 344. “기업주와 경영자는 회사의 경제적인 목표와 경제 효율성의 기준, 생산 수단의 총합인 ‘자본’의 적절한 관리에만 관심을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 존엄을 구체적으로 존중하는 것도 바로 그들의 의무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기업체의 가장 고귀한 자산’이며 생산의 주요인입니다. 전략과 금융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과 구매와 판매, 규모 조정, 폐쇄나 합병 결정에서 회계와 영업적 기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25)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8:9

한 이를 돌보는 것, 이것이 시급적입니다. ... 그것이 복음입니다.”²⁶⁾ 교황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은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에서 가난을 빼버리면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²⁷⁾

구약성서에는 가난한 이에 대한 근원적 관심과 이들을 도와야 하는 인간의 의무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잠언 말씀에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대답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집회서 또한 감동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²⁸⁾

우리가 만일 가난한 자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탄압받는 이들에게 존엄을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그리스도교적입니다. 루카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중에 가난한 이를 돌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²⁹⁾ 미사 중의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는 구절은 가난한 이를 돌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탄의 말씀—“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³⁰⁾—을 크게 울려줍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상처를 주고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가난한 자라 하셨습니다. 복음서는 가난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극도의 진보주의”라고 교황님을 언급하는 것이 무리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26) Andrea Torneilli의 저서 「Papa Francesco. Questa economia uccide」(교황 프란치스코: 죽이는 경제)에 실린 2014년 10월 인터뷰. 2015년 1월 11일 Gerard O'Connell, 「America」에서 인용.

27) Thomas Williams, “교황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Breitbart」, 2015년 5월 25일. 교황께서는 회칙에 또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 곁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사회에서 가장 방치된 이들의 온전한 발전에 대한 우리 관심의 바탕이 됩니다.” 「복음의 기쁨」, 186.

28) 집회서, 4:1-10. “애야, 가난한 이의 살길을 막지 말고 궁핍한 눈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배고픈 사람을 서럽게 하지 말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난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없는 이에 게 베푸는 일을 미루지 마라. 재난을 당하여 호소하는 이를 물리치지 말고 가난한 이에게서 네 얼굴을 돌리지 마라. 애걸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저주할 빌미를 주지 마라. 그가 비참한 삶 속에서 너를 저주하면 그를 만드신 분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 주시리라. ... 가난한 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평화의 인사를 상냥하게 건네어라.”

29) 루카 복음서, 6:20-26; 38.

30) 마태오 복음서, 25:31-46.

2부

공공 영역에서의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별화된 역할

참여와 대화의 문화 조성

이러한 교황의 선언을 접하면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혜택 받지 못하고 탄압받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무시와 무관심이 아닌 돌봄의 문화를, 충돌과 투쟁이 아닌 문명과 존중의 문화를, 분열이 아닌 통합의 문화를 조성하고 가꾸며 고취시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마지막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의 역할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은 성직자의 역할입니다. 사제는 권위와 도덕성의 공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제가 정치적 조직체를 위해 명을 받거나 임명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성직자들이 교회 품계에 의해 심사를 받은 공식 조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사안에 끼어드는 경우는 보통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 그렇게 해 왔습니다.³¹⁾

한국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제들은 정치적 사안에 연루되지 않지만 가톨릭 신앙의 옷을 입고 그들의 사제의 위치를 이용하여 정치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버젓이, 투쟁적으로 개입하여 견해를 얘기하는 한국 사제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한국의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한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직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투쟁적 정치 행동주의는 교황과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톨릭 신자들과 사람들 안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아마도 1970년대와 1980년대 중앙아메리카의 소수 사제들을 제외하고는 제 기억엔 이 정도로 문제시 될 만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31) 1971년 주교대의원회의에서 말하였듯이, 사제는 “당연히 개인적, 정치적 견해를 가질 권리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선택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제는 다른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택은 본질적으로 우연적이고 결코 전적으로 충분하고 영속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올 세상의 증거자인 사제는 어떤 정치적 정당이나 개입으로부터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엔키리디온 바티카눔 IV」, 1195.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여야 하는 하느님의 종인 사제로서의 서약과 사명에 대한 위반입니다.³²⁾ 특히 사제는 통합과 일치에 성사인 미사를 정책이나 권력자, 권력 기관에 반대하는 항의를 하거나 폭력에 가담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제의 의무는 통합시키는 것이지 분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는 정치적 동물이 아니라 우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영적 아버지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사제답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287/1. 성직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보전되어야 할 정의에 근거한 평화와 화합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287/2. 성직자들은 정당이나 노동조합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교회의 관할권자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권리 수호나 공동선 증진을 위하여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³³⁾

사제가 담당하는 통합과 축성의 역할은 어떤 정치적 사태도 초월합니다. “사제는 주교들과 교황의 지도 아래에서 모든 힘과 노력을 모아 온갖 분열의 구실을 없애고 온 인류를 하느님의 가족의 일치로 인도하여야 합니다.”³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의 사제

예수 그리스도 모상의 직접적인 대리인이며 교회 품계에 복종하는 자인 사제는 교회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보편 교회에 의해서 역사적 우연성에 얽매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온갖 정치적 분파를 초월해야 합니다.”³⁵⁾

32) 사제직은 소명입니다. 사제는 임명됩니다. 품계와 복종의 수용은 지상 명령입니다. 사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은 개인 사제가 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제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논평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가서 피켓라인을 만들고, 거리의 집회에 참여하고, 노동자 조합에 가입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항의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사제의 일이 아닙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사회 교리와 필리핀의 신앙,” 사제와 정치. jmbm.blogspot.com, 2015년 2월 7일.

33) 「교회법 규정」, 287, 1-2.

34) 「인류의 빛」, 28.

35) 성직자성,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교황청, 2013). ‘사제의 신원’이라고 제목 붙여진 장에서 지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제는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참되고 살아 있는 충실한 모상,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사적으로 보여 주는 사람’입니다.” 같은 책 2. 사제는 교황 성화와 친밀하고 겸허하

교황 재위 기간 중에 해방 신학의 떠오르는 사조와 맞서야 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교황의 메시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조직체의 “올바른” 질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셨지만 세속적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정치적 임무를 맡지 말아야 합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하느님 나라의 발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편적 형제애의 측면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적 아버지라는 점에서, 예수님처럼 사제들은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 특히 어느 한 쪽 편에 서는 것(거의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 정당은 복음의 진실과 일치하지 않고 따라서 정치적 정당은 복음과는 달리 결코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³⁶⁾

사제는 정치적 개입과 정치적 행동주의에 참여할 의무도,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제의 의무는 대립과 폭력과 분열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예의와 일치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는 진정한 사도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사랑으로 양떼들을 돌보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람들을 축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며 자녀다운 복종과 사랑의 유대 관계를 맺고 순명으로 따라야 합니다. ... 그리고 “자신의 교구장 주교와의 일치 또한 사제 사역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정치 구조나 사회 활동의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업은 동료 시민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평신도의 소명의 일부입니다. 사제의 사명을 순전히 사회적 정치적 성격의 현세 과업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사제의 직무에 걸맞지 않으며,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 이득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중대한 손실을 끼칩니다. 같은 책, 44.

- 36) 일반 알현 강론, 1993년 7월 28일.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오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요한 복음, 18:36 참조).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세속의 권력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마태오 복음, 22:2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속해 계셨고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유대인의 나라에, 많은 이들이 메시아로부터 기대했던 정치적인 해방을 결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의 종이 된 인류에게 하느님의 아들로써 영적 해방과 하느님 나라로의 초대를 전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요한 복음, 8:34-36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마태오 복음, 20:28 참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특히 사도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듯 세속적 권력과 국가에 대한 지배를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스승이시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편적 의미에서 형제애, 연대, 상호 부조의 계율에 대해 설교하셨지만 정치적 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으셨고 당신을 세속적인 문제와 사안에 끌어들이려는 모든 시도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의 영적 해방과 하느님 나라로의 부름이었습니다(요한 복음, 6:15 참조).

평신도의 역할

도덕적 가르침을 고취시키고 제시하는 것이 사제의 사명이라면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평신도들입니다. 사제의 역할과 평신도의 역할은 다르고 구분되어 있습니다.³⁷⁾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치적 행동과 사회적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평신도들의 소명입니다.”³⁸⁾ 평신도들은 성직자와 함께 베품과 봉사와 대화의 문화를 가꾸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비와 베품의 문화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고 폐쇄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 받고 더럽혀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³⁹⁾

기부의 문화는 미국 문화, 특히 가톨릭 교도들 사이에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톨릭 신자들은 지역 교회와 교구, 미국 주교회의의 호소에 넉넉하게, 정기적으로 응답합니다. 1910년에 설립된 가톨릭 자선단체는 미국 내의 가장 큰 인도주의 단체로 160개의 지역 가톨릭 자선단체를 통해 매년 900만명에게 도움을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1943년 세워진 가톨릭 구제 봉사 단체는 90여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의 1억3천만 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비의 또 다른 징표는 입양입니다. 전 세계 고아를 입양하는 많은 미국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은 마땅히 알려져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제 까리따스와 1989년부터 50여 개 국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마음 한몸운동이 다양한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는 가톨릭 주요 단체입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고아였던 Tom Monaghan은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도미노 피자

37) 「엔키리디온 바티카눔 IV」, 1194. 1971년 주교대의원회의는 “사회 정치적 행동에서 사제의 역할은 평신도의 역할과 같지 않다”고 선언하였습니다.

38)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42.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제는 평신도들이 성숙한 양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성령으로 고무되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사제는 “일치의 강한 징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평신도의 성숙함을 존중함으로써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고 심지어는 평신도들이 양심을 형성하여 그러한 성숙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사제는 특정 정치적 견지를 취함으로써 불신을 조장하고 자신의 사목 임무에 맡겨진 신도들을 쫓아버리고, 그리하여 적을 만드는 일, 이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일반 알현 강론. 1993년 7월 28일. 1993년 8월 4일 「로세바토레 로마노」에 출판됨.

39) 「복음의 기쁨」, 49.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기술주의 패러다임의 공세에 함께 대항하는 다른 시각, 사고 방식, 정책, 교육 계획, 생활양식, 영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찬미받으소서」, 111.

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5억만 달러 재산의 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서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한 푼도 없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저는 제가 그것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받은 물질적인 자원을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쓰는 것이 제 오랜 바람이었습니다.”⁴⁰⁾ 미사에 매일 참석하는 제 본당의 신자가 지난 2년간 거의 200만 달러를 기부하여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신자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30년간 같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신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선행이 알려지길 원치 않았습니다.⁴¹⁾

아마도 미국의 가톨릭 기부 문화의 정수는 2000년 10월 1일에 시성을 받은 성녀 가타리나 드 렉셀(1858-1955)일 것입니다. 부유한 은행가의 딸이었던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돈이란 다른 이들과 나뉘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2,100만 달러 이상을 미국 전역의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데 기부하였습니다. 수도회를 세우면서 그녀는 미국 인디언과 흑인들의 어머니이자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미국 인디언과 흑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 자신의 생애와 재산을 바쳤습니다.

참여 봉사와 대화의 문화

미국 가톨릭 주교의회는 평신도들이 풍성한 가톨릭 사회 교리를 바탕으로 ‘믿음이 가득한’, ‘신앙이 충만한’, 곧 충실한 시민(faithful citizenship)이 되길 장려하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은 미덕이며,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데 헌신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맡은 일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인격의 존엄성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40) Nathan Bomey는 “도미노 피자 창업자인 Tom Manghan은 자선 단체에 재산의 반을 서약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다 더 검소하게 살고자 한다면 Amazon.com의 설립자인 Jeff Bezos보다 더 좋은 모범은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데도 그는 여전히 1996년형 혼다 어코드 자동차를 탑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재산이나 지위에 대한 거만함이나 허세가 없습니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자신과 나라를 망신시킨 대한항공의 조현아와 대비됩니다.

41) Andrew Carnegie는 ‘부의 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사치와 보여주기를 피하고 검소하고 허세 부리지 않는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것, 자신에게 의지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베푸는 것, 이것이 부유한 사람의 의무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 부자인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Lapham's Quarterly」, 23권 3호, 2015년 여름호 인용.

가능한 한 공공 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⁴²⁾

실제로 그러한 참여 연대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말하였듯이 민주주의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피, 바로 그것입니다.⁴³⁾ 폭력적인 대립의 문화를 압도하는 공손한 대화와 적극적 참여의 문화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엄성에 중심을 둔 건강한 민주주의를 한층 증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교 McElroy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인간의 초월적 존엄성에 근거한 비전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가톨릭적인 정치 대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가톨릭적 정치 대화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국가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분투를 정치의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⁴⁴⁾

충실한 시민, 신앙이 충만한 시민의식

그러한 공공생활에의 적극적 참여는 가톨릭적 기반과 진정한 신앙을 전제로 합니다. 충실한 시민의식이란 것은 가톨릭 신자임이 “단지 삶의 부속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⁴⁵⁾ 가톨릭 신앙을 마치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몸에 걸치는 보석과 같은 액세서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충실한 시민에게는 진정한 공감으로부터만 우러나올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봉사와 정중함이 요구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어루만지기를, 다른 이들의 고통 받는 몸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십니다.”⁴⁶⁾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서 도망치고, 숨고, 나누는 것도 주는 것도 거부하고, 자신의 안위에 간섭 있다면, 그 누구도 더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삶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⁴⁷⁾ 다른 사람을 존엄과 예의를 가지고 대하는

42) Nos, 1913-1915. 「충실한 시민을 위한 양심의 형성」 참조. www.usccb.org.

43) 드 토크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귀족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로 행동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이 독립적이고 나약합니다. 그들 각자 스스로는 거의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동료들한테 자신을 도와달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무능력의 상태로 가라앉게 됩니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적 조건의 평등에 의해 밀려난 힘있는 개인들을 연합이 대체하여야 합니다.”

44) Robert W. McElroy, “가난한 이를 위한 교회.” 「America」, 2013년 10월 21일.

45) 「복음의 기쁨」, 78.

46) 「복음의 기쁨」, 270.

것,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가톨릭 정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멋진 가톨릭 생활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Roger Haight 신부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타적 행동은 중국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하느님의 내적 은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첫눈에는 은총의 개인적 효험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상호인격적입니다. 은총의 효험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며, 인간 본성의 확장과 자기 자신에 대한 초월을 촉구합니다.”⁴⁸⁾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해방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탐욕을 부리는 데서 벗어나 상응하는 사랑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리지외의 데레사 성녀는 평화와 우정을 보여주는 친절한 말 한 마디, 미소, 모든 작은 몸짓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것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독려합니다.⁴⁹⁾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일치룰 이루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느님과 멀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⁵⁰⁾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⁵¹⁾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⁵²⁾ 인생은 폭풍을 얼마나 잘 헤쳐 나가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얼마나 자주 춤을 추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삶의 여정에 있어 기쁘게 노래하며 걸어갑시다!”⁵³⁾

47) 「복음의 기쁨」, 272.

48) Roger Haight, 「은총의 경험과 언어」, 1979, p. 169.

49) 「찬미받으소서」, 230에서 인용됨

50) 요한의 첫째 서간 1:5-7

51) 요한의 첫째 서간 3:14

52) 요한의 첫째 서간 4:8

53) 「찬미받으소서」, 244.

기조연설

William Cavanaugh



William Cavanaugh
(DePaul University)

■ Education

- Duke University, Durham, North Carolina, Ph.D., Religion, May 1996
- Dissertation: "Torture and Eucharist in Pinochet's Chile"
- Cambridge University, Cambridge, England, A. Theology and Religious Studies, June 1987 (M.A., 1990)
- Thesis: "The Challenge of a Radical Method: A Comparison of the Methodologies of Jon Sobrino and Hugo Assmann"
- University of Notre Dame, Notre Dame, Indiana, A., Theology, May 1984

■ Honors, Fellowships, and Grants

- DePaul University Media Star award, June 2014
- Book *Migrations of the Holy*, First Place in the Social Concerns category, Catholic Press Association Book Awards, June 2012
- University Scholars Grant, University of St. Thomas, 2005-08
- Book *Being Consumed* named Englewood Honor Book for 2008 by the Englewood Review of Books

- Award of Excellence (first place) in the Theological Reflection: Short Format category, 91st annual "Best of the Christian Press" awards of the Associated Church Press, April 24, 2007
- Visiting Fellowship, Kellog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Notre Dame, Fall 2001
- Maxi-Grant, University of St.Thomas, 1999
- Research Assistance Grant, University of St.Thomas, 1997
- Harry Frank Guggenheim Foundation Dissertation Fellowship, 1994-95
- Julian Price Graduate Fellowship, Duk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0-94
- St. Edmund's College Prize (top student at St. Edmund's College), Cambridge University, June 1987
- First Class Honors, Preliminary Tripos Exam, Cambridge University, June 1986
- Graduated With Highest Honors, University of Notre Dame, May 1984
- Phi Beta Kappa, University of Notre Dame, May 1984

■ Publications

- *Field Hospital: The Church's Engagement in Markets, Politics, and Conflict*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forthcoming 2015)
- *Migrations of the Holy: Theologies of State and Churc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2011)
- *The Myth of Religious Violence: Secular Ideology and the Roots of Modern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Being Consumed: Economics and Christian Desire* (Grand Rapids, MI: Wm.B. Eerdmans, 2008)
- *Theopolitical Imagination: Discovering the Liturgy as a Political Act in an Age of Global Consumerism* (Edinburgh: T.&T. Clark, 2002)
- *Torture and Eucharist: Theology, Politics, and the Body of Christ*, in the series "Challenges in Contemporary Theolog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8)

Walking Humbly: The Church,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William T. Cavanaugh

*(Professor of Catholic Studies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World Catholicism
and Intercultural Theology, DePaul University)*

Contemporary universities are sometimes characterized as multiversities because most lack a coherent vision; they are, form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ident Clark Kerr once quipped, “a series of individual faculty entrepreneurs held together by a common grievance over parking.”¹⁾ The one thing everyone seems to agree on, however, is that universities are supposed to prepare graduates to “change the world.” The rhetoric that pours forth from nearly every university’s public relations—from recruiting brochures to commencement speeches—is centered on the university as a training ground for future leaders who will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At a university conference on participation and the common good, one might expect the keynote speaker to echo the same call to go out and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Being something of a contrarian, however, I want to call attention to ways in which our rhetoric about changing the world can actually work at cross purposes to the goal of greater participation and sharing. Universities strive to produce managers, those who see the world from above and work to improve it. Today, however, I want to register a word of caution about schemes of improvement from above, and the way that they can in

1) Quoted in Kevin Carey, “The Fundamental Way that Universities are an Illusion,” New York Times, July 23, 2015, http://www.nytimes.com/2015/07/24/upshot/the-fundamental-way-that-universities-are-an-illusion.html?_r=0&abt=0002&abg=0

fact work against the participation of those without power.

In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I consider the definition of participation as integrating poor people into global systems dominated by experts. I discuss the drawbacks of schemes for improvement imposed from above, and inquire into the motivations behind such schemes. In the second section, I explore the theological roots of the problem, and offer a different definition of participation which respects people's aspiration at the grassroots to make a life for themselves. In the third section, I offer a theological reflection on walking humbly in the footsteps of the incarnate God. Finally, in the conclusion I give some examples of how a Catholic humanism of participation and sharing can be practiced from below.

I. The view from above

Words like “participation” and “common good” are important to the Catholic tradition and vital to any form of Catholic humanism, because they promise to expand the area of concern to all people, including those outside the Church. The enlargement implied by these terms can nevertheless be both a virtue and a vice. Much depends on the concrete situation in which the user of these terms places him- or herself.

The word “participation,” for example, has become a buzzword in development policy. The word has long been associated with social movements and the struggle for expanding the voice and vote of ordinary people. In development policy, it evokes a world in which everyone gets to take part in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so that people will “buy into”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is emphasis on democracy, however, participation has also come to mean entry into the integrated system of global markets. The World Bank, for example, argues that access to markets is the key to overcoming poverty. Participation is cast in terms of “participation in world markets.”²⁾ Subsistence farming is

2) See, for example, the article by World Bank economist Harry Garretsen, “Market Access: A Key Determinant of Economic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on the World Bank blog *Let's Talk Development*, August 15, 2012, <http://blogs.worldbank.org/developmenttalk/market-access-a-key-determinant-of-economic-development-in-sub-saharan-africa>

seen as a problem to be overcome by increasing the scale of farming. Farmers are encouraged to get big or get out of farming, for producing for markets is the key to growth.³⁾

As Andrea Cornwall and Karen Brock argue, however, the language of participation has been used since colonial times both to empower people at the grassroots level and to neutralize political opposition and tax the poor. Today, they argue, the language of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policy evokes “a warm and reassuring consensus”⁴⁾ that, far from reflecting reality, instead “lend[s] the legitimacy that development actors need to justify their interventions.”⁵⁾ According to Cornwall and Brock, the main effect of the language of participation in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s) is to make it “more difficult to disagree”⁶⁾ with development strategies because participation is said to empower people at the grassroots. Actual participation, however, tends to be conceived narrowly, and poor peopl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re rarely consulted in any meaningful way. The language of participation in PRSPs also tends to avoid analysis of the imbalances of power in the global market. As David Craig and Doug Porter remark, “Promoting universal global integration, while remaining silent about power issues, PRSPs heighten critics’ fear that they serve as an instrument of hegemonic economic interests.”⁷⁾

When participation and common good come to mean “universal global integration” into

3) The World Bank has been critiqued for favoring powerful agribusiness over small-scale farmers, financing the displacement of millions of peopl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increasing inequality in the meantime. See, for example, Martin Kirk, “The World Bank and the Battle for the Future of Farming,” *Common Dreams*, April 17, 2015, <http://www.commondreams.org/views/2015/04/17/world-bank-and-battle-future-farming> and Jacob Kushner, Anthony Langat, Sasha Chavkin and Michael Hudson, “Burned Out: World Bank Projects Leave Trail of Misery around the Globe,” *Huffington Post*, April 16, 2015, <http://projects.huffingtonpost.com/worldbank-evicted-abandoned/worldbank-projects-leave-trail-misery-around-globe-kenya>

4) Andrea Cornwall and Karen Brock, “What do Buzzwords do for Development Policy? A critical look at ‘participation’, ‘empowerment’ and ‘poverty reduction,’” *Third World Quarterly* 26, no. 7 (2005): 1045.

5) Cornwall and Brock, *op. cit.*, p. 1044.

6) Cornwall and Brock, *op. cit.*, p. 1056.

7) David Craig and Doug Porter,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a new convergence,” *World Development* 31, no. 1 (2003): 53-69, quoted in Cornwall and Brock, *op. cit.*, p. 1053.

one large common space delineated by the global market, the consequences can be devastating for the world's most vulnerable.⁸⁾ The most impoverished people in the world continue to be pushed off their land in the name of efficiency, growth, and participation in global markets. Fred Pearce documents what he calls the “final enclosure of the planet’s wild places, a last roundup on the global commons.”⁹⁾ The word “enclosure” evokes the process in Britain and elsewhere from the 17th to the 19th centuries in which people who relied on common lands for firewood, grazing pastures, game, medicinal herbs, thatch for roofs, and other necessities for subsistence were gradually excluded from the use of such lands. We tend to view enclosure as past, a part of the process by which unproductive peasants were moved off the land into factories, a necessary if disruptive step in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North as common lands were privatized and integrated into the market system. As Pearce documents, however, the process of enclosure is ongoing and has lately intensified, as corporations, governments, and wealthy individuals take control of huge swaths of land in the global South, often removing its current inhabitants by force. Profit is, of course, one motivating factor, but it is also a spiritual problem; along with greed is a desire to feed the world, coupled with a deep faith in large-scale, mechanized farming as the most efficient way to do so.

The Guinea Savannah Zone in Africa, covering one and a half million square miles, is one of the largest places currently subject to enclosure. The World Bank calls this zone “the world’s last large reserves of underused land,” and indeed most development schemes rely on this view of the land as insufficiently exploited and notionally “empty.” The Guinea Savannah Zone, however, is not empty; it is home to 600 million people, mostly farmers

8) It has been widely reported that a billion people were lifted out of extreme poverty between 1990 and 2010, and according to *The Economist*, “Most of the credit... must go to capitalism and free trade”; the article is “Towards the End of Poverty,” *The Economist*, June 1, 2013. As the article acknowledges, however, three quarters of the people pulled out of poverty are in China, which is a Communist country. Furthermore, the measure for extreme poverty is an income of less than \$1.25 per day. Many people crossed that threshold by moving from subsistence farming, in which they had no cash income, to selling their labor for wages. Their lives may or may not be better.

9) Fred Pearce, *The Land Grabbers: The New Fight Over Who Owns the Earth* (Boston: Beacon Press, 2012), p. x.

and herders who make use of every inch of it. Most are poor and have real needs that are not being met. Large-scale industrial farming for markets is being proposed as the solution, promising abundant food and jobs. But as even one agribusiness executive admitted in 2011, “exclusively industrial-scale farming displaces and alienates peoples, creates few jobs and causes social disruption.”¹⁰⁾

The most commonly proposed solution to food insecurity is propagated from above, that is, by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that are at a significant remove from people who actually know their land. In the Gambella region of Ethiopia, for example, the government is moving peasant farmers into state-designated villages and handing their fields and forests over to foreign agribusinesses. The government’s plan is to lease 7.5 million acres for large-scale, mechanized farming. Most of the rural population of Gambella is being relocated. Under the terms of the government’s contract with the Indian agribusiness giant Karuturi, the land must be provided with “vacant possession” and the government must provide security against riots. The government—whose party won 100% of the seats in parliament in the 2015 election—appears ready to comply. Though relocation is nominally voluntary, the government has used massacres, intimidation, the closing of schools, and other tactics to force people from their homes.¹¹⁾

This scenario is being played out all over the world, in Liberia, Ukraine, Brazil, Indonesia, Cambodia, Mali, and the list goes on. It is motivated not simply by greed but also by the conviction that large-scale agriculture run by experts is the only viable solution to feeding a growing world population. Leases for foreign agribusinesses come with promises of jobs for locals, and most laborers are local people who have little choice but to work for a dollar a day, since their own fields have been taken. Most technical personnel, however, are brought in from elsewhere, due to the general belief that peasants are backward, unable to engineer food production toward anything more than subsistence. Much of what officials regard as underused land is intentionally left fallow as part of the Anuak

10) James Siggs, quoted in Pearce, *op. cit.*, p. ix.

11) Pearce, *op. cit.*, pp. 3-16.

people's system of crop rotation. The skill of the farmers has maintained the high quality of the soil, which is what has attracted foreign agribusiness to begin with.¹²⁾ The peasant farmers' expertise and close kinship with the land is disregarded, however. They know and use every bit of the fields and forests that are now being bulldozed. And the connection to the land is not only economic, but spiritual. "In our culture," one local man comments, "going to a different place is unusual... God gave us this land."¹³⁾ As Pearce comments, "in Gambella, their land is like their blood... To lose it would be to lose their identity."¹⁴⁾

Yale anthropologist James Scott has spent years exploring what is lost when large-scale schemes for improvement are imposed from above. Although he does not argue that small-scale polyculture is *always* superior to large-scale monocropping (and neither do I), he is interested both in the frequent advantages enjoyed by polyculture and in the reasons that polyculture is frequently dismissed. Studies have shown that small farms are in fact more productive per acre than large farms¹⁵⁾; the advantages that factory farms enjoy are not in productivity but in access to credit, marketing, and political influence over taxes and subsidies.¹⁶⁾ Practices of peasant farmers that have been derided as backward by experts—such as shallow cultivation and burns in West Africa—have proven to be highly suited to the contexts in which they are practiced.¹⁷⁾ Scott shows that farming depends on inherently local and practical knowledge of the land. At the same time, large-scale monocropping has produced a host of problems: increased vulnerability to epidemics and infestations, pollution, degradation of soil, concentr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reliance on fossil fuels, and—perhaps most seriously in the long term—climate change.

Scott's work is important not simply because he displays the disadvantages of large-scale development, but because he explains its attraction. Experts and officials favor monoculture

12) Pearce, *op. cit.*, pp. 7-12.

13) Pearce, *op. cit.*, p. 6.

14) Pearce, *op. cit.*, p. 6.

15) James C. Scott,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p. 189.

16) Scott, *op. cit.*, p. 198.

17) Scott, *op. cit.*, p. 283.

because it enhances their power in ways that listening to the local people does not.¹⁸⁾ Resettlement schemes take people from places in which they are the experts and render them dependent on the expertise of others.¹⁹⁾ Scott shows how the enclosure of common lands has always been supported by states not because it necessarily renders land more productive, but because it renders land taxable.²⁰⁾ The power of administrators is enhanced by what Scott calls the “legibility” of a society. Although this is not always a malignant process, making a society legible always involves homogenization of complex realities. Maps, standardized measurements, the reduction of communities to individuals—all these make a society legible from above, but the purpose is not simply to read a society as it is but to change it so that it becomes more readable.²¹⁾ Scott calls this “seeing like a state,” but he emphasizes that not only governments but large-scale business and NGOs are also agents of legibility and homogenization.²²⁾

Catholic political scientist Michael Budde has recently written “‘Development’...is a violent, coercive process...an unrelenting war on the ability of peoples to provide for their most basic needs...[T]his 500-year battle continues to push people further into depending for their survival on labor markets they do not control, investment policies they do not control, and ideological systems they do not control—all of which presuppose the inferiority of subsistence activities.”²³⁾

II. Theological roots of the problem

At this point you may be wondering why a theologian is giving a lecture on development policy. It is because I think that the root of the problem is theological. The tendency to adopt the view from above is a tendency to usurp God’s position. As Zygmunt Bauman

18) Scott, *op. cit.*, p. 286.

19) Scott, *op. cit.*, p. 251.

20) Scott, *op. cit.*, p. 23.

21) Scott, *op. cit.*, pp. 3, 82.

22) Scott, *op. cit.*, p. 8.

23) Michael Budde, “The Church after Development” in *Fragile World: Ecology and the Church*, ed. William T. Cavanaugh (Eugene, OR: Cascade, forthcoming).

writes, the displacement of God in modernity “created a vacancy; the office of the supreme legislator-cum-manager, of the designer and administrator of the world order, was now horrifyingly empty. It had to be filled or else...”²⁴⁾ It was filled by the human desire to manage the world. The problem, however, is not just “them”—the deniers of God—but “us” Christians who earnestly wish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What Catholic thinker Ivan Illich labeled “the war on subsistence” is, he thought, a corruption of the best impulses of Christianity.

Illich does not glamorize poverty, nor simply favor allegedly traditional subsistence societies over development. Such a contrast, Illich says, would be “sentimental and destructive.”²⁵⁾ What he means by development is the monopoly of wage labor over all other kinds of work, and the replacement of independent competence at subsistence activities by the consumption of commodities and services mass-produced according to expert design. Such replacement also involves the reengineering—and consequent degradation—of the environment to support it.²⁶⁾ To development Illich contrasts what he calls “vernacular” life.²⁷⁾ Illich uses vernacular “to designate the activities of people when they are not motivated by thoughts of exchange, a word that denotes autonomous, non-market related actions through which people satisfy everyday needs—the actions that by their own true nature escape bureaucratic control.”²⁸⁾ Development has made the vernacular a privilege of the rich. “You have arrived if you can commute outside the rush hour; have probably attended an elite school if you can give birth at home; are privy to rare and special knowledge if you can bypass the physician when you are ill; are rich and lucky if you can breathe fresh air,”²⁹⁾

24) Zygmunt Bauman, quoted in Scott, *op. cit.*, p. 87.

25) Ivan Illich, *Shadow Work* (London: Marion Boyars, 2009), 12.

26) Illich 2009, *op. cit.*, p. 15.

27) Illich 2009, *op. cit.*, p. 132. One Gwich’in Athabaskan has recently written “The word *subsistence* in English refers to a low standard of living, whereas to Alaska Natives it means the exact opposite: it means a way of life that brings a rich lifestyle and fulfillment. The English word is not capable of defining the holistic sense of our culture”; Matthew Gilbert, “Letter to Senator Daniel Akaka about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in *Arctic Voices: Resistance at the Tipping Point*, ed. Subhankar Banerjee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2012), p. 482.

28) Illich 2009, *op. cit.*, p. 57-8.

29) Illich 2009, *op. cit.*, p. 10-11.

build your own house, or care for and educate your own children. By contrast, “The underclasses are now made up of those who *must* consume the counterproductive packages and ministrations of their self-appointed tutors.”³⁰⁾ The result is the degraded condition Illich calls “modernized poverty,”³¹⁾ where participation means integration into a larger system over which one has no control.

According to Illich, this modern condition has theological roots in the Christian impulse to universal mission. Only in Christianity “did the alien become someone in need, someone to be brought in.”³²⁾ Early Christian attempts to offer hospitality to the stranger by having “Christ rooms” in their own houses were later transmuted into houses for foreigners run by parishes. Care for others was institutionalized, and the clergy was gradually transformed from priests invested with sacramental powers for the performance of communal liturgies to precursors of today’s service professionals: social workers, teachers, psychologists, and so on. Illich argues “The term ‘holy mother the church’ ceases almost totally to mean the actual assembly of the faithful whose love, under the impulse of the Holy Spirit, engenders new life in the very act of meeting. The term *mother* henceforth refers to an invisible, mystical reality from which alone those services absolutely necessary for salvation can be obtained.”³³⁾ The church invented the institutional maternity of which the state became heir in the modern era.

Illich regards the war on subsistence as a perversion of true Christianity. The heart of Christ’s message Illich finds in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In modernity, we have a tendency to read this passage as a universalization of the command to love; my neighbor

30) Illich 2009, *op. cit.*, p. 11.

31) Illich 2009, *op. cit.*, p. 73. For an example of what Illich means by this phrase, see the comments of the Rev. Trimble Gilbert, a Gwich’in, on how his community has been changed by development in Alaska: “I grew up with healthy people, no one complained about any sickness, just traditional food, people work every day, probably more than eight hours every day. It’s changed now. People really changed, some of them all they can see is money, it’s not good for some of us. Even old people, they worked so hard. Now something else affects our people, no one is really healthy. Same as the animals, the way we are losing the animals, and the environment, and also the weather is changed”; Reverend Trimble Gilbert, “Letter to Richard Voss” in Banerjee, *op. cit.*, p. 266.

32) Illich 2009, *op. cit.*, p. 18.

33) Illich 2009, *op. cit.*, p. 59.

is everybody. Theologian Sallie McFague's recent book is typical in this respect; she uses the Good Samaritan story to illustrate the model for human action, what she calls the "universal sel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al self that emerge from that story...are fourfold: the self is universally empathetic (the "stranger," I submit, could have been a dog); human action on behalf of the other is both anonymous and impersonal; the goal of the action toward the other is materialistic; the parable about the love of neighbor is illustrative of how one should love God."³⁴) While there is much to appreciate in McFague's account, I worry about the danger of hubris in thinking of oneself as universal, rising above all particulars. I see this dynamic in my university students, who think rather too hastily that they can empathize with anybody. When we read about the Guatemalan civil war, my students immediately identify with the indigenous peasants, but the hard truth is that—in both historical and socio-economic terms—we stand much closer to the oppressors in the story. We need to begin by confessing that we don't know what it is like to be a peasant in the global South, and step back from the notion that we are universal selves who can swoop down on anyone in the world and fix their problems.

The universalization of care for others has a tendency to become subject to obligations governed by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such as human rights and Kant's categorical imperative. Anonymous and impersonal institutions and bureaucracies are necessary to ensure, in a sinful world, that the rules are followed. Illich agrees that the Good Samaritan breaks the ancient link between *ethos* and *ethnos*, that is, the imperative to care only for others of one's own group. But for Illich, the neighbor is not *everybody*; it is *anybody*, whoever contingency (or, we might say, providence) throws in one's path. The Samaritan responded to the wounded Jew not because of an understanding of obligation but because, as the Gospel of Luke says in Greek, he felt a movement in his entrails; it was a gut reaction.³⁵) The relationship created is not anonymous and impersonal but between two

34) Sallie McFague, *Blessed are the Consumers: Climate Change and the Practice of Restrain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3), p. 116.

35) Ivan Illich, *The Rivers North of the Future: The Testament of Ivan Illich* (Toronto: Anansi, 2005), p. 222. The Greek is Σαμαρίτης δέ τις ὁδεύων ἦλθεν κατ' αὐτὸν καὶ ἰδὼν ἐσπλαγχνίσθη (Luke 10:33).

particular enfleshed people, flesh calling out to flesh. According to Illich, this is not merely a universal phenomenon, capable of assimilation to a generic secular altruism; on the contrary, it has been revealed to people by the Incarnation, in which we learn to find and love God in human flesh.³⁶⁾ The Incarnation, furthermore, is God's act of pure freedom, sheer gift.³⁷⁾ The Samaritan's act "is an act which prolongs the Incarnation. Just as God became flesh and in the flesh relates to each one of us, so you are capable of relating in the flesh,...an experience which is entirely sensual, incarnate, and this-worldly, to that other man who has been beaten up. Take away the fleshly, bodily, carnal, dense, humoural experience of self, ... from the story of the Samaritan and you have a nice liberal fantasy, which is something horrible. You have the basis on which one might feel responsible for bombing the neighbour for his own good."³⁸⁾ In other words, universal benevolence can result in attempts to make the world over in our own image, another manifestation of the human will to power.

The Incarnation is prolonged by the incorporation of people into Christ's body, the church, in the Eucharist; participation means participation in Christ. The early Christians consumed bread and wine together, and shared a holy kiss, breathing into each other's mouths. "In this way they shared the Holy Spirit and became members of a community in flesh, blood, and spirit."³⁹⁾ Christ's Incarnation creates a network of people of many distinct cultures, a "skein of relations" as Charles Taylor calls it, not a universal and categorical grouping according to some common property such as "humanity" or "rationality."⁴⁰⁾ Illich writes of twelfth-century church figures who "cultivated a charity which couldn't have been financed through taxes, a charity which expressed a love more free than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Christ's example. They felt that they had been invited to love God in the flesh, as the son of Mary."⁴¹⁾ Unfortunately, that charity came to be increasingly bureaucratized and

36) Illich 2005, *op. cit.*, p. 47.

37) Illich 2005, *op. cit.*, p. 49.

38) Illich 2005, *op. cit.*, p. 207.

39) Illich 2005, *op. cit.*, p. 85.

40) Charles Taylor, "Foreword," in Illich 2005, *op. cit.*, p. xi-xii.

41) Illich 2005, *op. cit.*, p. 83.

institutionalized, paving the way for modernity's rage to improve humanity through large-scale oversight.

It should be clear that Illich does not attack "organized religion" as such; indeed it is only through communal practices like the Eucharist that these skeins of relations are built. He also acknowledges the need for institutions, but calls for a greater sense of their ambiguity, as well as the ambiguity of attempts to impose order from the position of the disincarnated manager who hovers above land and real bodily human relations.

III. The view from below

God changes the world, not us. We are nevertheless called to participate in God's changing of the world. The task before us is not to stop trying to help those in need, but rather to separate coercive schemes of improvement imposed from above from true works of mercy and solidarity that recognize the dignity and agency of poor people. Separating these two types of activity is not simply a matter of measuring outcomes and shifting policies; it requires a spiritual shift, a change in vision from the view from above to a view from below. As the prophet Micah asks,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ice, and to love kindness,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Micah 6:8).

What it means to walk humbly is illuminated by the Jesuit Michel de Certeau's distinction between maps and itineraries. An itinerary is a kind of story that organizes a walk from the ground level, as it were. Medieval itineraries told the story of a journey. They were rectilinear, usually the account of a pilgrimage on foot and the operations one was to perform along the way: follow this path along the stream until you come to this village, spend the night at the inn run by this family, walk another four hours to this shrine. Itineraries are stories of the way that spaces are practiced. The maps that replaced them in modernity, in contrast, seek to render territories legible from above. To do so they must simplify places and render them abstract, organizing them according to a grid. The map, as Certeau says, "colonizes space"; it is "a totalizing stage on which elements of diverse origin are brought together to form the tableau of a 'state' of geographical knowledge" which

suppresses and erases itineraries.

In the early Franciscan tradition, St. Bonaventure cast the entirety of human life as an itinerary into God. His work *Itinerarium Mentis in Deum*—usually translated as *The Soul's Journey into God*—is an itinerary in Certeau's sense. In Bonaventure's day, an *itinerarium* was a description of a journey, especially a pilgrimage to the Holy Land.⁴²⁾ Bonaventure's *Itinerarium* is not a systematic theology or mapping of God's relation to creation, but rather takes the human person “in our state as wayfarers” along a journey into God in Christ, who “is the way and the door.”⁴³⁾ Bonaventure's companion text, the *Tree of Life*, roots the journey by dwelling on every concrete detail of the life and death of the historical Jesus. The whole structure of the text is to walk the itinerary that God walked in Christ, so that “we may follow in your footsteps on the right paths.”⁴⁴⁾

Both of Bonaventure's texts display a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ascent and descent. The *Itinerarium* takes the soul on a step-by-step journey upwards through creation and into union with God's own self, but this ascent is different from the modern aspiration to the kind of God's-eye view to which Bauman referred. To begin, God is known precisely because of God's own descent into God's creation. In the first two chapters of the *Itinerarium*, we come to know God in God's *vestigia* in the sense world. *Vestigia* is commonly translated with the more abstract “vestiges,” but the Latin in fact means “footprints.” The *Tree of Life* traces the itinerary in human history of this outpouring and self-giving away of God in the descent of the Son into flesh. Bonaventure follows Francis in emphasizing the humanity of Jesus Christ, especially for the humiliation that God endures by taking on human flesh. Bonaventure dwells on every detail of the passion narrative, showing how Christ took on our weakness and despair in the Garden of Gethsemane and suffered pain and disgrace on Calvary. This *kenosis*, this self-emptying for others, continues today in the fact that Christ gives us his body and blood as food and drink in the Eucharist;

42) Ewert Cousins, “Introduction,” *Bonaventure: The Soul's Journey into God, The Tree of Life, The Life of St. Francis*, trans. Ewert Cousins (New York: Paulist Press, 1978), p. 21.

43) Bonaventure, *op.cit.*, p. 111.

44) Bonaventure, *op.cit.*, p. 174.

this is, Bonaventure says, our “viaticum”—literally, our provisions for the journey.”⁴⁵⁾ Just as God as creator is not exhausted by God’s journey into creation, so God’s descent in Christ coincides with God’s glory; Christ, says Bonaventure, is “all the more worthy of all honor from men because of how much humiliation he has endured for their sake.”⁴⁶⁾ Jesus Christ is the perfect coincidence of opposites, “the most actual with the one who suffered supremely and died, the most perfect and immense with the lowly.”⁴⁷⁾

This coincidence of opposites characterizes the human itinerary in following Christ as well. The goal of the *Itinerarium* is ascent, but ascent can only take place through descent into humility. Divine aid is available, but only to those who humbly and devoutly seek it in prayer.⁴⁸⁾ The journey begins with the lowly things; we find God by paying attention to the particularities of creation. Thus Bonaventure bids us “open your eyes, alert the ears of your spirit, open your lips and apply your heart, so that in all creatures you may see, hear, praise, love and worship, glorify and honor your God.”⁴⁹⁾

Bonaventure’s *Itinerarium* is not *ad Deum* but *in Deum*, not simply to God but into God, a realm where one does not grasp but is grasped.⁵⁰⁾ The ascent into God is not just a knowing but a kind of unknowing; the last section of the *Itinerarium* emphasizes darkness and silence as the last stage of mystical union with God.⁵¹⁾ The journey into God is the opposite of a prideful ascent to a God’s-eye point of view from which the world can be mapped. Indeed, Bonaventure makes clear, it was Adam and Eve’s attempt to ascend to God-like status that was the cause of the Fall.⁵²⁾ In the spirit of St. Francis, Bonaventure asks that we not believe “that reading is sufficient without unction, speculation without devotion, investigation without wonder, observation without joy, work without piety,

45) Bonaventure, *op.cit.*, p. 139.

46) Bonaventure, *op.cit.*, p. 148.

47) Bonaventure, *op.cit.*, p. 107.

48) Bonaventure, *op.cit.*, pp. 59-60.

49) Bonaventure, *op.cit.*, pp. 67-8.

50) Cousins, “Introduction,” in Bonaventure, *op.cit.*, p. 21. Cousins notes that the Latin usage here was uncommon, and would have been striking to the medieval reader.

51) Bonaventure, *op.cit.*, pp. 113-16.

52) Bonaventure, *op.cit.*, p. 122.

knowledge without love, understanding without humility, endeavor without divine grace, reflection as a mirror without divinely inspired wisdom.”⁵³⁾ Bonaventure does not reject investigation, observation, and the like, but only requires that they be undertaken with a recognition of our humble status as wayfarers in God’s creation and in a spirit of wonder and love.

Bonaventure points us to a way of walking in the world that resists the pretension to survey the world from above and make the world over in our own image. The encounter with the living Christ is not a license for universal benevolence but a careful attention to the footprints of God in the particularities of God’s creation and creatures, and a following in the humble footsteps of Christ incarnate.

IV. Conclusion

What would it look like in practice to walk humbly with the vulnerable of the world in ways that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in building their own future? Let me close with a few examples. All involve listening to people on the ground and appreciating the importance of what Illich calls “vernacular” life.

My friend Fr. Emmanuel Katongole, a Ugandan priest and scholar who teaches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in the United States, has begun the Bethany Land Institute in Uganda, which he envisions as a demonstration plot for the vision of Genesis 2:15, where people care for Eden in harmony with the land, with God, and with each other. The Institute will offer year-long internships in organic and sustainable livelihoods for African farmers of small plots. Graduates pledge to train other farmers.⁵⁴⁾ The model for the Institute is Josephine Kizza’s St. Jude Family Projects Centre in Masaka, Uganda, which has been training small-plot farmers in sustainable and integrated polyculture for fifteen years. St. Jude treats indigenous knowledge as a natural resource, and has improved communities by

53) Bonaventure, *op.cit.*, pp. 55-6.

54) Emmanuel Katongole, “Rooting the Church in African Soil & The Bethany Land Institute: A Theological Experiment” in Cavanaugh, ed., *op. cit.*, forthcoming

getting farmers to work together and train each other in sustainable techniques.⁵⁵⁾ Part of the idea here is to build on the Church's "skein of relations" so that the Church is not merely a place of consumption but production. Fr. Andrew O'Connor has turned his parish in New York City into a hub of production; the parish raises bees for honey, grows hops for a local brewery, and is home to a workshop where people make clothing from cloth weaved from wild cotton by a cooperative of Mayan Indians in Guatemala. As Fr. O'Connor has written, "creating local benefices with global support to engage the natural creative life of a small community shifts the cultural emphasis away from nomadic tendencies of the technological culture and toward a more generative and sustainable local culture."⁵⁶⁾

Caring for others is at the heart of the Gospel, and large-scale projects can be important and necessary. But I have tried rather to call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re is a peculiarly modern way of seeing the world from above that can and does, despite intentions, have punishing and cruel consequences for some of the most powerless people on earth, who today continue to lose their land, their vernacular culture, and their ways of making a life for themselves to certain schemes for improvement. I have suggested that, insofar as the problem is rooted in ways of seeing the world, it is a spiritual and theological problem. The work of healing poverty and injustice is a spiritual journey. It must be undertaken with humility and profound respect for the particularity of people and places.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it is walking on the same itinerary that God walked when God lifted up human flesh by lowering Godself to become incarnate.

55)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here: <http://stjudefamilyproject.webs.com/>

56) Fr. Andrew O'Connor, quoted in Tom Gallagher, "A Parish Turns to Manufacturing," *National Catholic Reporter*, September 30, 2011, <http://ncronline.org/news/faith-parish/parish-turns-manufacturing>

References

- Banerjee, Subhankar, ed. *Arctic Voices: Resistance at the Tipping Point*.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2012.
- Bonaventure, Saint. *Bonaventure: The Soul's Journey into God, The Tree of Life, The Life of St. Francis*, trans. Ewert Cousins. New York: Paulist Press, 1978.
- Carey, Kevin. "The Fundamental Way that Universities are an Illusion." *New York Times*, July 23, 2015.
- Cavanaugh, William T., ed. *Fragile World: Ecology and the Church*. Eugene, OR: Cascade Press, forthcoming
- Cornwall, Andrea and Karen Brock. "What do Buzzwords do for Development Policy? A critical look at 'participation', 'empowerment' and 'poverty reduction.'" *Third World Quarterly* 26, no. 7 (2005), pp. 1043-1060.
- Craig, David and Doug Porter,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a new convergence." *World Development* 31, no. 1 (2003), pp. 53-69.
- Gallagher, Tom. "A Parish Turns to Manufacturing." *National Catholic Reporter*, September 30, 2011.
- Garretsen, Harry. "Market Access: A Key Determinant of Economic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blog *Let's Talk Development*, August 15, 2012.
- Illich, Ivan. *The Rivers North of the Future: The Testament of Ivan Illich*. Toronto: Anansi, 2005.
- _____. *Shadow Work*. London: Marion Boyars, 2009.
- Kirk, Martin. "The World Bank and the Battle for the Future of Farming." *Common Dreams*, April 17, 2015.
- Kushner, Jacob, Anthony Langat, Sasha Chavkin and Michael Hudson. "Burned Out: World Bank Projects Leave Trail of Misery around the Globe." *Huffington Post*, April 16, 2015.
- McFague, Sallie. *Blessed are the Consumers: Climate Change and the Practice of Restrain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3.

Pearce, Fred. *The Land Grabbers: The New Fight Over Who Owns the Earth*. Boston: Beacon Press, 2012.

Scott, James C.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겸손하게 걷기: 교회, 참여, 그리고 발전

William T. Cavanaugh

(Professor of Catholic Studies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World Catholicism and Intercultural Theology, DePaul University)

현대의 대부분 대학들은 일관성 있는 비전의 부재로 인해 종종 유니버시티가 아닌, 멀티버시티로 여겨지곤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전 총장인 Clark Kerr는 전에 우리 시대의 대학이 “주차에 대한 공통된 불만으로 뭉친 교수 사업가 집단”이라고 비꼬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의 역할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리라 생각되는 한 가지는 대학이 미래에 “세상을 변화시킬”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학생 모집 책자부터 졸업식 연설문까지 거의 모든 대학의 홍보활동에 세상을 바꿀 미래의 리더를 길러내는 대학이란 말이 넘쳐 납니다. 우리는 참여와 공동선을 주제로 하는 어떤 대학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가 나가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려는 똑같은 구호를 외치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리의 수사학이 더 큰 참여와 나눔이라는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습니다. 대학들은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개선시키는 사람, 즉 관리자를 배출하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개발 계획안이 힘없는 자들의 참여를 사실상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의 첫 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전문가들이 지배하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참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부터의 개발 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방안 이면의 동기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 문제의 신학적 바탕을 살펴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서의 참여에 대해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느님의 발자취를 따라 겸손하게 걷는 것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다루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참여와 나눔의 가톨릭 인본주의가 아래로부터 실천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I. 위로부터 보는 관점

‘공동선’과 같은 말은 그 관심의 영역을 비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가톨릭 전통과 모든 형태의 가톨릭 인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확장은 이 용어의 사용자가 실제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라는 말은 개발 정책에서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말은 일반인들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회운동 및 투쟁과 연관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개발 정책에 있어서 참여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개발 과정에 “지분을 가질” 수 있게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참여는 또한 글로벌 시장의 통합 시스템으로 편입됨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시장에 대한 접근이 빈곤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참여는 ‘세계 시장에서의 참여’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자급농업은 농업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됩니다. 시장을 위한 생산이 성장의 열쇠이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대규모 농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농업에 종사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Andrea Cornwall과 Karen Brock이 주장하듯이, 참여의 언어는 식민지 시대 이래로 민중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빈곤층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희석시키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개발 정책에서 참여의 언어는 “온정 있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합의”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현실과 완전히 다르며 “개발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개입을 정당화 시킬 수 있도록 합법성을 제공해 줄 뿐”이라고 Cornwall과 Brock는 비판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빈곤퇴치전략보고서들에 나오는 참여의 언어가 갖는 주된 효과는, 참여가 민중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전략에 대해 반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계획되며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빈곤층 사람들과는 어떠한 의미 있는 방식으로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빈곤퇴치전략보고서에 나오는 참여의 언어는 글로벌 시장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에 대한 분석을 회피합니다. David Craig와 Doug Porter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빈곤퇴치보고서들은 권력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면서 보편적인 글로벌 통합을 촉구하기 때문에, 비판가들은 이 보고서들

이 패권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참여와 공동선이 글로벌 시장으로 묘사되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 공간으로의 “보편적 글로벌 통합”을 의미한다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은 효율, 성장, 글로벌 시장 참여라는 명목 하에 자신들의 땅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Fred Pearce는 “지구의 야생지에 마지막 울타리치기(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들기 위해 울타리를 두름), 세계공유지의 죽음”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타리치기”란 말은 17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영국과 다른 지역에서 생계를 위해 뿔감, 방목, 사냥감, 약초, 지붕이영, 그리고 기타 생활필수품을 얻기 위해 공유지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점차로 그 땅의 사용에서 배제되던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울타리치기를 과거에 일어났던 일, 즉 생산성이 낮은 농부가 토지를 떠나 공장으로 이주하던 과정, 북반구(유럽, 북미 등 경제적 선진국 지역) 발전에서 공유지가 사유화되고 시장 체제로 통합되면서 일어났던 파괴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Pearce가 설명하였듯이, 울타리치기 과정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기업과 정부와 부유한 개인들이 현재 거주민을 강제로 밀어내면서까지 지구 남반구(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지역)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땅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 이익이 하나의 동기 요인이긴 하지만 이는 정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탐욕, 세계를 먹여 살리겠다는 소망, 그리고 대규모 기계화 농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맹신이 모두 맞물린 결과입니다.

150만 평방 마일을 덮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의 사바나 지역은 현재 울타리치기가 진행 중인 가장 넓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세계은행은 이 지역을 “지구의 마지막 대규모 미개척 보유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개발 계획안은 이 땅이 덜 개발된 사실상 “빈” 땅이라는 시각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니의 사바나 지역은 빈 땅이 아닙니다. 6억 명 사람들의 집이며, 그들 대부분은 그 땅의 구석구석까지 다 이용하고 있는 농부와 목부들입니다. 대부분이 가난하고 실질적인 생필품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을 위한 대규모 산업형 농업이 풍부한 식량과 일자리를 약속해 주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한 기업식 농업 책임자가 인정했듯이, “대규모 농업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내쫓고 소외시키며, 일자리를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합니다.”

식량 불안정 문제에 대해 가장 흔히 제안되는 해결책은 위로부터, 즉 그 땅을 실제로 잘 알

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정부와 기업에 의해 전파됩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의 Gambella 지역에서는 정부가 농부들을 국가에서 지정한 마을로 이주시키고 그들의 땅과 숲을 외국의 농기업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대규모 기계화 농업을 위해 750만 에이커의 땅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Gambella 지역 시골 인구의 대부분이 현재 이주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거대 농기업인 Karuturi사와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면, 그 땅은 “빈 땅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정부는 폭동에 대항해 안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2015년 선거에서 국회 의석의 100%를 차지한 당인 현재 정부는 이 계약을 준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주가 자발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학살, 협박, 학교 폐쇄를 비롯하여 여러 다른 전략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리베리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리 등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탐욕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는 대규모 농업만이 늘어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하게 실행가능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외국의 농기업에 임대할 때는 지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루에 1달러를 받고 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민들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후진적이어서 자급 수준 이상의 식량 생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믿음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 담당자들은 외부에서 데려옵니다. 관리자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땅은 대부분 Anuak족의 휴경 시스템의 일부로서 의도적으로 휴경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기술 덕분에 토양이 양질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외국의 농기업을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부들의 전문성과 농부들이 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친밀감을 무시됩니다. 농부들은 지금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있는 들판과 숲을 속속들이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지와와의 관계는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한 지역 주민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 이상한 일입니다. ... 신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Pearce가 말했듯이, “Gambella에서 그들의 땅은 그들의 피입니다. 땅을 잃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인류학자 James Scott은 대규모 개발 계획이 위로부터 추진될 때 우리가 잃는 것에 대해 수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소규모 복작(같은 시기에 한 토지에 여러 가지 곡식이나 채소를 심는 농작법)이 대규모 단일재배보다 항상 더 낫다고 Scott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복작의 여러 장점과 복작이 빈번하게 목살되는 이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 소규모 농업이 대규모 농업에 비해 에이커당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공장식 축산 농장이 누리는 장점은 생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융자금, 마케팅, 세금 및 보조금을 좌우하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접근성에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알이갈이나 화전과 같이 전문가들에게는 후진적이라고 비웃음을 사왔던 농부들의 농업방식이 이 방법이 시행되고 있는 환경에는 아주 잘 맞는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Scott은 농업이 본질적으로 그 땅에 대한 지역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대규모 단일재배는 전염병과 해충의 습격에 대한 취약성 증대, 오염, 토질의 저하, 정치와 경제 권력의 집중, 화석 연료 의존,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Scott의 연구는 대규모 개발의 문제점을 보여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규모 개발에 끌리는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관리자들은 단일재배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단일재배는 그들의 권력을 증진시키지만 지역민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 계획은 지역민들 자신이 전문가인 곳에서 그들을 빼내어 다른 사람들의 전문성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Scott은 국가가 공유지의 울타리치기를 늘 지지해 왔는데, 이는 울타리치기가 반드시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을 과세 대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Scott의 용어를 빌자면 한 사회의 “판독가능성”에 의해 관리자의 권력이 증대됩니다. 이것이 항상 악의가 있는 과정은 아니지만, 한 사회를 읽기 쉽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현실의 균질화를 수반합니다. 지도, 표준화된 측정, 공동체로부터 개인으로의 축소 등이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사회를 읽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한 사회를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Scott은 이것을 “국가처럼 보기”라고 했는데, 그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과 NGO(비정부기구) 또한 판독하기와 균질화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톨릭 정치학자 Michael Budde는 최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개발은 ...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과정이며 ... 기본적인 필수품을 자급할 수 있는 민족들의 능력에 대한 무자비한 전쟁입니다. 이 500년간의 전쟁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노동 시장,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투자 정책,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념적 시스템에 의존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자급 활동의 열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

습니다.”

II. 문제의 신학적 뿌리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왜 신학자가 개발 정책에 대한 강의를 하는지 궁금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문제의 뿌리가 신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내려다보는 관점을 취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Zygmunt Bauman이 서술하였듯이 현대 사회는 하느님을 배제시킴으로써 “공석을 만들어 냈습니다. 세계 질서의 창조자이자 관리자의 자리가, 최고의 입법자 겸 경영자의 자리가 소름끼치게도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채워져야 했고 ...”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을 거부하는 “그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열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톨릭 사상가인 Ivan Illich가 “자급과 자존에 대항하는 전쟁”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교의 최선의 동기가 변질된 것입니다.

Illich는 빈곤을 미화하지도, 그렇다고 단순하게 발전보다 이른바 전통적인 자급 사회를 더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Illich에 의하면 그러한 대조는 “감상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발전’이라고 할 때 그가 의미한 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노동에 대해 임금 노동이 독점적 지위를 점하는 것, 그리고 자급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이 전문 설계에 따라 대량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대체는 이를 지탱하기 위해 환경의 재설계와 결과적으로 환경의 질적 저하를 수반합니다. Illich는 “토착적인(그 땅의 삶에 뿌리박은 고유한)” 생활과 발전을 대조시킵니다. Illich는 ‘토착적’이라는 말을 “교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인간 활동”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착적’이란 말은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율적이며 시장과 무관한 행위, 따라서 본질상 관료적 통제를 벗어난 행위를 가리킵니다. 발전은 토착적인 것을 부자들의 특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통근시간대를 피하여 통근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택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면 당신은 필경 엘리트 학교를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의사에게 가지 않고 스스로 낫는다면 여러분은 타인이 모르는 특별한 지식에 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집을 지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고

교육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유하고 운이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 하층민은 자칭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반생산적인 일괄 계약과 보살핌을 반드시 소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참여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더 큰 시스템 속으로의 통합을 의미하는 질적으로 저하된 상황, Illich가 “현대화된 빈곤”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Illich에 의하면, 이러한 현대의 상황은 보편적 미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충동에 신학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방인은 구제되어야 하는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집에 ‘그리스도의 방’을 마련하여 이방인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했고, 이것은 나중에 교구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을 위한 집으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은 제도화되었고, 성직자는 점차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성사의 권한을 가진 사제에서 사회복지사, 교사, 심리학자 등과 같은 오늘날 서비스 전문가들의 선임자로 변모되었습니다. ‘성모 교회’라는 말은 성령의 힘으로 만남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신자들의 실제 모임을 더 이상 의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라는 말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오직 그곳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실재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제도적 모성을 만들어 냈고 현대 시대에는 국가가 그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Illich는 자급자족 생활에 대한 전쟁을 진정한 그리스도 정신의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Illich는 그리스도 메시지의 핵심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찾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편화시킨 것, 즉,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자 Sallie McFague의 최근의 저서는 전형적입니다. McFague는 자신이 “보편적 자아”라고 부른 인간 행동의 전형을 설명하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자아의 특징은 ...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 자아는 보편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생각에 “이방인”은 개와 같은 동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타인을 위한 인간의 행동은 익명적이며 특정 개인과 상관없습니다. 셋째, 타인을 향한 인간 행동의 목적은 유물론적입니다. 넷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McFague의 설명에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모든 특정성을 넘어 자신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은 위험한 것이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자신들이 누구와도 공감할 수 있다고 성급히 단정 짓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태도를 발견합니다. 과테말라의 내전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학생들은 즉각적으로 자신들

을 그 지역의 농부들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사회경제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억압자 쪽에 훨씬 더 가깝게 서 있다는 것이 냉엄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남반구에 살고 있는 농부들의 삶이 어떠한지 잘 모른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누구한테든지 내려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자아라는 생각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의 보편화는 종종 인권이나 칸트의 범주적 명령과 같은 일반적인 원리와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의무가 됩니다. 익명적이고 비인격적인 기관들과 관료 체제들은 최악의 세상에서 반드시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llich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고대의 민족 정신과 민족의 연결고리, 즉 자신의 집단에 속한 타인만 배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깨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llich에게 있어 이웃이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연성(또는 아마도 섭리)에 의해 인생의 행로에서 만나게 되는 누구나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다친 유대인을 치료해 준 것은 의무에 대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된 루카 복음에 나오듯이 그의 내면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능적 반응입니다. 그 관계는 익명적이고 특정 개인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두 명의 육화된 특정 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Illich에 의하면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세속적 이타주의에 동화되는 보편적 현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강생(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하느님께서 전적으로 자유롭게 하신 일이며, 완전한 선물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강생의 연장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 각자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육화된 여러분도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 두들겨 맞았던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감각적이고 구체화되고 세속적인 경험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육체적이고 신체적이고 물질적이며 생생하고 세속적인 자아의 경험을 빼버리면 멧들어진 자유주의적 미몽만이 남게 될 뿐입니다.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폭탄을 던지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선행은 세상을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권력 의지의 또 다른 표명입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통합시키는 것은 강생의 연장입니다. 참여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빵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서로의 입에 숨을 불어넣으며 성스러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성령을 나누었고 육체, 피, 영혼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생은 “인간성”이나 “이성”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에 따른, 보편적이고 범주적인 집단 나누기가 아니라, Charles Taylor가 “관계의 타래”라고 부른, 여러 상이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연결망을 형성합니다. Illich는 그리스도의 모범이 없었다면 세금으로는 결코 조달할 수 없었을 자선 단체, 더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 자선 단체를 조성한 12세기 교회 사상가들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 사상가들은 자신들이 성모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소명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자선 단체는 점점 관료화되고 제도화되어서 대규모 관리를 통해 인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현대의 열망에 길을 터주었습니다.

Illich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직화된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관계의 타래가 형성되는 것은 성체성사와 같은 공동 예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Illich는 또한 제도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중의성에 대해, 그리고 토지와 실제 육체를 가진 인간 관계의 위에서 맴도는 실체 없는 관리자가 그 위치에서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의 중의성에 대해 더 제대로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Ⅲ. 아래로부터 보는 관점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데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업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업은 위로부터 부과된 강제적 개발 계획과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진정한 자비와 연대의 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결과를 측정하고 정책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변화, 즉,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아래로부터의 관점으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언자 미카가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 배려를 사랑하는 것, 하느님과 함께 겸손하게 걷는 것 말고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미카서, 6:8)

겸손하게 걷는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회 Michel de Certeau의 지도와 여정의 구분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정은 말하자면 지상에서 출발하는 도보 여행을 계획하는 일종의 이야기입

니다. 중세의 여정은 여행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정은 직선으로 되어 있고, 주로 도보 순례자와 그 길을 따라가며 수행하는 활동(이 마을에 도달할 때까지 개울을 따라 이 길을 가라, 이 가족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밤을 지내라, 이 성지까지 네 시간 더 걸어가라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정은 공간이 실천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현대에 여정을 대체하게 된 지도는 영토를 위에서 읽을 수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는 격자 눈금에 따라 장소를 배열하면서 이들을 단순화시키고 추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Certeau가 말하듯이 지도는 “공간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그것은 “지리학적 지식의 상태를 여정이 숨겨지고 나타나지 않는 광경으로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원의 요소를 한 군데로 모아 전체로 만들어 버리는 단계”입니다.

초기 프란치스코회의 전통에서 성 보나벤투라는 인간 생애 전체를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통 「하느님께 이르는 영혼의 여정」이라고 번역되는 그의 저작 *Itinerarium Mentis in Deum*은 Certeau가 의미하는 여정입니다. 보나벤투라의 시대에는 *itinerarium*이란 여정, 특히 성지로 떠나는 순례를 기술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보나벤투라의 「하느님께 이르는 영혼의 여정」은 체계적인 신학도, 하느님과 창조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나벤투라는 이 저서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을 “길이요 문이신” 그리스도 안의 하느님께로 향하는 여정을 따라가는 여행자로 봅니다. 보나벤투라의 또 다른 텍스트 「생명의 나무」는 역사 속에 실존하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모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깊이 숙고함으로써 그 여정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 텍스트의 전체 구조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나 있는 하느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걸어가신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의 텍스트 두 권 모두 상승과 하강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느님께 이르는 영혼의 여정」은 창조를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서 하느님과의 일치에 이르게 되는 여정으로 영혼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이 상승은 Bauman이 말한 하느님의 관점을 향한 현대의 열망과는 다릅니다. 우선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몸소 내려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이르는 영혼의 여정」의 처음 두 장에서 우리는 감각 세계에서 체험하는 하느님의 흔적(*vestigia*)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Vestigia*는 보통 조금 더 추상적인 의미인 ‘흔적’으로 번역되지만 라틴어에서는 사실 ‘발자국’을 뜻합니다. 「생명의 나무」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 성자의 육화를 통해 당신 자신을 선사하신 여정을 따라갑니다. 보나벤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특히 하느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며 감내하신 곁손에 대해 강조했던 프란치스코를 따르고 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그리스도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약함과 절망을 감당하시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과 치욕을 견디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수난기의 모든 상세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비운다는 의미의 이 *kenosis*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성체성사 안에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나벤투라가 말하길, 이것은 우리의 *viaticum*, 글자 그대로 여정을 위한 우리의 식량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창조의 여정으로 인해 지치지 아니하시듯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은 하느님의 영광과 일치합니다.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하여 엄청난 굴욕을 견디셨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반되는 것이 완전히 동시에 공존합니다. 즉 가장 실제적이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분이며, 가장 완전하고 거대하면서 낮은 분이십니다.

상반되는 것의 공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간의 여정을 특징짓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이르는 영혼의 여정」의 목적은 상승이지만, 상승은 곁손으로 내려감으로써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오직 곁손하고 독실하게 기도 안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 여정은 낮은 것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개별체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보나벤투라는 우리에게 “눈을 뜨고 영혼의 귀를 열고 입을 열고 가슴을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서 우리의 하느님을 보고, 듣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보나벤투라의 「하느님께 이르는 영혼의 여정」은 *ad Deum*가 아니라 *in Deum*, 즉 단지 하느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알게 되는 영역인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앎이 아니라 일종의 알지 못함입니다. 「하느님께 이르는 영혼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은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합일의 마지막 단계로서 어둠과 침묵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 이르는 여정은 세상을 지도로 그릴 수 있는 하느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오만한 상승과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보나벤투라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원인이 바로 하느님과 같은 지위로 올라가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 안에서, 보나벤투라는 열정 없는 독서, 헌신 없는 사고, 경탄 없는 탐구, 기쁨 없는 관찰, 경건함 없는 노동, 사랑 없는 지식, 곁손함 없는 이해, 하느님의 은총 없는 노력, 하느님으로부터 영감 받은 지혜가 결여된 성찰—이러한 것들이 충분하다고 믿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보나벤투라가 탐구, 관찰 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그리고 경이로움과 사랑의 정신 안에서 여행자로서의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지위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보나벤투라는 위로부터 세상을 내려다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거만함에 저항하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라고 인도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은 보편적 선의에 대한 허가증이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특정 개체들과 피조물에 있는 하느님의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IV. 결론

이 세상의 약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들과 함께 겸손하게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끝맺고자 합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현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Illich가 말한 “토착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간다 출신의 사제이자 학자인 제 친구 Emmanuel Katongole 신부는 우간다에서 Bethany Land Institute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인간이 자연과 하느님과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며 에덴을 돌보는 내용이 담긴 창세기 2장 15절의 비전을 실현할 시범 토지구역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작은 부지를 가진 아프리카 농부들을 위해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활로 구성된 일 년 기간의 인턴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과정을 마친 농부들을 다른 농부들을 훈련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 기관의 모델은 우간다 Masaka에 있는 Josephine Kizza의 성 유다 가족 프로젝트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복작을 할 수 있도록 십오 년 동안 소농부들을 훈련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고유의 지식을 자연 자원으로 여기며, 농부들이 지속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여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면서 공동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교회의 “관계의 타래”를 기반으로 하여 교회가 단순히 소비의 장소가 아닌 생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ndrew O'Connor 신부는 뉴욕시에 있는 자신의 교구를 생산의 중심지로 바꾸었습니다. 그

교구는 꿀을 얻기 위해 벌을 양봉하고 지역 양조장에서 사용할 홉을 기릅니다. 또한 과테말라에 있는 마야 인디언 조합에서 생산된 야생 목화로 짠 옷감을 이용하여 옷을 만드는 가내수공업장이기도 합니다. *O'Connor*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역의 성직자가 소규모 공동체의 자연 창조적 생활에 종사함으로써 경작의 주안점이 기술 경작의 유목민적 경향으로부터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작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는 중요할 수도,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로부터 세상을 보는 독특한 현대의 방식이, 그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안으로 인해 오늘날 계속해서 자신의 땅과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고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그 문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기인하고 있는 한, 그것은 영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시사해 왔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을 치유하는 것은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겸손함, 그리고 개별 인간과 장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을 고양시키셨을 때 걸으신 여정, 바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Session 2

복지형 협동조합 | 곽병은 원장

Welfare Model of Cooperatives

Dr. Byungeun Kwak

사 회 자 심 영 속



심영숙 교수 (가톨릭대 영어영미문화전공)
Prof. Youngsook Shim (English Language & Culture, CUK)

〈학력〉

- 가톨릭대학교 영미언어문화학부 부교수 (영어교육)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외국어교육학 박사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 학사, 석사

〈주요논문〉

- 『International faculty perceptions of requestive emails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2013)
- 『The effect of English-medium instruction on university students' listening ability』 (2012)
- 『Collaborative reading in a university EFL classroom』 (2009)

발 표 자 곽 병 은



곽병은 원장 (갈거리 사랑촌)
Dr. Byungeun Kwak (Kalgury Sarangchon Social Welfare Institute)

<학력>

- 1977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84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의과학 박사)
- 2006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박사)

<경력>

- 1991~ 현재 갈거리사랑촌(사회복지시설)
- 1989.1.21.~2013.2.15 부부의원
- 2006~2013 상지대학교, 연세원주의과대학 외래교수

<논문>

- 2001 “원주지역 부랑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2006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생활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저서>

- 2006 「복사골 이야기」
- 2008 「그리운 아버님」
- 2013 「140만 그릇의 밥」

복지형 협동조합

I. 서 론

원주에서 몇 년 전까지 작은 병원을 운영했었고 지금 여러 복지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적장애인 시설인 “갈거리사랑촌 베닉노의 집”, 노인공동가정시설 “갈거리 아네스의 집”, 무료급식소 “십시일반”, 노숙인자활시설 “원주노숙인센터”, 독거노인임대지원사업 “봉산동할머니집”, 그리고 갈거리장학회, 갈거리협동조합 등이다. 1991년에 시작되었고 모두 소규모 사업들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다보니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복지욕구를 알게 되었고 계속 이런 사업들로 이어지게 되었다. 갈거리사랑촌의 성장과정, 특히 갈거리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번 포럼의 주제인 참여와 나눔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처음 1991년 갈거리사랑촌이라는 작은 미인가 가정공동체로 원주 농촌마을에서 시작하였다. 시내에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곳에 거주하는 부랑인한테 얘기를 듣고 1997년 시내 중앙동에 무료급식소(일일 100여명 이용)를 하게 되었고, 급식소에 오는 부랑인 노숙인들이 겨울에 추위를 피하게 하기 위해 1998년 원주역전에 노숙인쉼터(25명 정원)를 하게 되었다. 또 무료급식소에서 받는 식대 200원을 모아서 장학회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봉산동할머니집(6명 거주)은 원주시내 부부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다리, 허리 아프신 할머니들이 차비를 아끼기 위해 1시간씩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보고 어려운 할머니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독거어르신들에게 저가의 임대료(4-6만원/월-난방, 공공요금 포함)를 받는 임대지원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갈거리협동조합은 노숙인쉼터에서 이용자들에게 통장관리를 해주면서 시작되었다. 노숙인사업을 하면서 이들이 번 돈을 저축하지 않고 그 날 다 써버리는 습성, 즉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물 수거를 하거나 인력시장에 나가서 몇 천원 혹은 몇 만원을 버는데 주로 음주로 돈을 다 써버리고 다시 노숙의 악순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노숙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번 돈을 저축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월세보증금 몇 십 만 원의 목돈이 없어 방을 얻지 못하고 여인숙을 전전하거나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 중에는 문맹자이거나, 집을 나온 지가 오래되어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거나, 신용불량자 등이 많은데 이들은 저축을 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몇 십 만원의 월세보증금이 없어서 비싼 여인숙이나 여관을 이용하게 되고 돈이 떨어지면 노숙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자립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더욱이 보증인이나 담보가 없어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된다.

또한 주민증이 없으니 당연히 의료보험증도 없어서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우며 목돈이 드는 입원치료나 치과보철 치료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결국 노숙이 반복되고 재활이 더욱 어려운 부랑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1998년 노숙인쉼터 설립 초기부터 쉼터 이용자들에게 개인이나 기관이름으로 금융기관 통장을 만들어 주어 저축을 시키고 목돈을 만들어 주는 통장관리를 해주고 목돈이 마련되면 월세를 얻어 나가 자립하도록 도와주었다. 2004년 9월 이러한 통장관리사업의 대상자를 노숙인쉼터 이용자에서 무료급식소 이용자 및 지역 빈곤층으로 확대하고 지역에서 특히 갈거리사랑촌의 봉사자, 후원자 중에서 이러한 극빈층 금융자활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주민을 참여시키고 또한 이 사업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갈거리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본 조합의 목적은 노숙인들이나 지역 저소득주민들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필요한 자금 대출을 해주어 생활안정 및 자립에 도움을 주는데 있으며, 결국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이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갈거리협동조합의 특징은 갈거리사랑촌의 봉사자 후원자들이 낸 기금이 종자돈이 되고 이들이 임원이 되어 조합이 먼저 결성된 협동조합이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조합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후원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특수한 조합이다. 그 이유는 노숙인을 포함한 지역 빈곤층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거리사랑촌 기관에서 먼저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된 것이다. 차차 해가

지나면서 조합원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되어 자본과 대출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조합을 이용하는 빈곤층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원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전체가 실질적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본 조합의 또 하나의 목표이며 그때까지는 미완성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사회복지기관에서 협동조합을 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이용자들이 협동조합 금융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용자는 급식소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옆 협동조합사무실에서 금융 업무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합원이 금융서비스와 복지상담, 급식, 이·미용, 의료 등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기 때문에 편리한데, 이것을 원스톱 혹은 토탈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갈거리협동조합은 복지형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소개함으로써 사회복지와 협동조합이 함께 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사회복지, 발전된 협동조합이 되어 결국 빈곤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특히 복지형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및 지역복지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최저빈곤층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복지기관에서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복지형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저빈곤층의 대부분이 가족의 지지가 없는데 이들에게 아무 담보나 보증이 없이 소액이지만 급하게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각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사자에게 가족 이상의 절대적인 지지역할을 하는 것이 되며, 또한 이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II.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그동안 고도의 산업사회, 관리사회에서 무시되어 왔던 인간가치를 민주주의나 권위주의적이고 집권적인 관료조직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이 분권화된 단위로서 참여하여 이루고자 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서 1960년대 후반 미국 소수의 지방자치제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시작되었고(오종희, 1994, 광병은, 2006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을 전후하여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박태영 외, 2000, 광병은,

2006에서 재인용).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와 고도화는 이에 대한 공급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길 수는 없으며, 관과 민이 상호협조하는 참여 속에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때 행정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확보되어질 것이다(오종희, 1994, 광병은, 2006에서 재인용).

글래스(Glass)는 참여를 “정책결정이나 계획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최일섭 외는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의하면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며, 주민의 선호나 열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입안·결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지기반을 공고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최일섭 외, 1999, 광병은, 2006에서 재인용).

김종찬(1999)은 주민참여가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목표달성, 행정이 추구해야할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일섭 등(1999)은 주민참여가 지역사회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과 계획을 결정·집행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며, 주민들이 스스로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주민의 적극적 노력이며, 주민의 선호나 열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입안·결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함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였다(광병은, 2006에서 재인용).

주민참여의 유형을 나누는 데 있어 여러 관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주민참여는 생활보호와 지역발전, 생활향상과 지역문화 그리고 주민의식과 커뮤니티의 형성에 기반을 둔 1)각종 주민운동으로서의 참여, 2)행정과정에서의 참여, 3)복지활동으로서의 참여로 그 형태를 요약할 수 있다(김성현, 1991, 광병은, 2006에서 재인용). 그리고 사회복지활동으로서의 주민참여는 법이나 제도 혹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비판하며 제안하는 등 주민운동의 한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주부봉사활동모임, 노인모임, 스포츠활동 등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참여, 지역 어린이회 육성에의 참여, 문화재 보호, 보이스카웃 활동, 노인과 주민과의 사귀의 장 만들기, 노인을 위한 배식 서비스, 재가 장애인 가정이나 복지시설을 위한 방문활동, 복지마을 만들기 운동 등과 같은 자원복지활동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종류의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와 복지시설에 있어서 제도나 전문종사자만으로는 충족

되지 않는 부분을 주민 측으로부터 충족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오종희, 1994, 광병은, 2006에서 재인용).

한편 박태영은 관 주도적 주민참여,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그리고 자발적 주민·민간단체 참여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사회복지기관의 자원봉사나 운영위원회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 주민·민간단체 참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도 주민참여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는가는 앞으로 더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복지기관에서 시작되는 협동조합은 복지기관의 이용자 그리고 봉사자 후원자들로 구성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사회복지활동으로서의 주민참여이고 자발적 주민·민간단체 참여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복지형 협동조합은 자활사업의 새로운 금융지원 내용이 될 것이고 또한 협동조합의 새로운 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형 협동조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Ⅲ. 갈거리협동조합

1. 임원 및 조합원

1) 임원 구성

본 조합의 임원은 고문 3명, 이사장 1명, 부이사장 3명, 이사 8명, 감사 2명 전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010년 기준),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직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임원의 모집은 갈거리사랑촌의 운영위원과 봉사자 및 후원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에서 사회활동이 많은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매년 본 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조합원을 한 명씩 임원으로 하고 있어 2014년 말 현재 10명의 임원 중 5명의 조합원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2) 조합원 구성

조합원의 구성은 노숙인 쉼터 이용자가 가장 많고 저소득층 지역주민이 다음으로 많다. 쪽방 조합원은 대부분 쉼터 퇴소자이고 십시일반 이용자는 저소득층 주민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전체 302명 중에서 쉼터, 십시일반 이용자, 갈거리가족, 쪽방, 지역저소득층이 209명으로 전체

의 69%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후원성격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 후원성격의 조합원은 설립 당시 그대로이고 저소득층의 조합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처음 발기인 15명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 말 현재 전체 조합원은 350명으로 증가하였다.

2. 자 산

처음 500만원의 종자돈을 가지고 설립 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2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2014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1억9천 6백여 만 원이다.

3. 대 출

1) 대출현황

2005년도 대출은 14건 6,920,000원, 2006년 8건 4,200,000원, 2007년 10건 12,400,000원, 2008년 15건 17,400,000원, 2009년 20건 22,400,000원, 2010년 26건 65,800,000원이었고, 2014년 말까지 총 대출은 167건에 227,970,000원이다. 대출 상환률은 94%였다(2011년 기준).

2) 용도별 대출 현황

월세보증금 23건(24.7%), 병원진료비 14건(15.1%), 노점 상업자금 9건(9.7%), 월동 난방비 8건(8.6%), 고물수거자금 8건(8.6%), 사채상환, 긴급생계비, 생계용 운반구 구입(고물수거용 차량 및 경운기 구입), 학자금, 영농자금 등이었다(2011년 기준).

4) 대출자 분류

컴터 이용자 17건(18.3%), 쪽방 거주자 15건(16.1%), 십시일반 이용자 16건(17.2%), 자활근로자 15건(16.1%), 지역영세주민 18건(19.4%), 봉사자6건(6.4%) 등 이었다(2011년 기준).

4. 연 혁

- 2004년 7월 22일 1차 발기인 모임
- 2004년 9월 20일 창립총회
- 2004년 11월 26일 제1차 이사회

- 2006년 2월 11일 제1차 정기총회
- 2006년 10월 27일 제1차 조합원 교육
- 2007년 3월 9일 밝음신협과 업무협약
- 2008년 10월 30일 자산 1억 원 돌파
- 2010년 7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가입
- 2011년 3월 23일 첫 번째 출자배당금 지급(215명, 1,222,450원)
- 2011년 8월 31일 갈거리사랑촌 설립 20주년 제6회 사회복지세미나(“사회복지와 협동조합”)
- 2014년 9월 12일 갈거리협동조합 설립 10주년 제7회 사회복지세미나(“빈곤과 협동조합”)

IV. 결론

갈거리사랑촌의 20여 년간의 발전과정을 보면 생활보호시설에서 자활이용시설로 변화하여 왔으며, 서비스 대상자 또한 시설 이용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빈곤층에게로 확대하여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 복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발전하여 왔으며 특히 협동조합으로까지 발전된 것은 특별하다고 할만하다.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참여의 의미가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계획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지역주민이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협동조합을 주민참여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은 주민참여의 범위를 한 층 더 넓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관의 민주적인 운영과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갈거리협동조합 같은 복지형 협동조합은 지역주민 그리고 이용자가 지역복지기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지역빈곤문제 해결에 접근 노력한다는 면에서 주민참여의 좋은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갈거리협동조합은 복지기관의 후원자가 발기인이 되어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특수한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노숙인을 포함한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주로 갈거리사

량촌의 산하 시설인 무료급식소와 노숙인센터의 이용자와 지역 저소득층 주민에게도 많은 사회복지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급하게 필요할 때 아무 담보나 보증 없이 단지 상담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작지만 든든한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푸라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지푸라기는 잡으면 쓰러져버리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혀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소액대출도 어려운 지역저소득층에게 본 협동조합은 든든한 좋은 이웃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의 경험상 복지기관 이용자들끼리의 만들어진 결속력이 협동조합의 금융서비스 및 정기적인 교육까지 받음으로써 어려운 이웃끼리 서로 돕는 한 가족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솥밥을 먹는 가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함께 돈을 모으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니 얼마나 공동체 의식이 공고히 되겠는가는 상상이 갈 수 있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향상이 복지형협동조합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협동조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원교육은 복지대상자들에게 자활 자립의지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활프로그램에서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협동조합의 교육이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기관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복지사업과 협동조합이 같이 운영되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되며, 새로운 형태의 복지모델 그리고 협동조합이 될 수 있다.

주민의 인간적 삶의 향상을 위한다는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복지의 주민참여와 자활 그리고 협동조합의 협동과 자립은 같은 길을 가는 것이고, 이러한 서로의 만남은 분명히 대상자를 위해서 윈스톱 및 토달서비스의 편리한 점이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도 시너지 효과의 장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복지형 협동조합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본 포럼의 주제가 참여와 나눔이다. 개인주의 경쟁 물질위주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참여와 나눔의 정신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희망은 요원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와 나눔의 정신이 성숙될 때 성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대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이러한 기적을 참여와 나눔, 봉사의 정신에서 알 수 있었다. 오늘 발표한 복지형협동조합이 이러한 참여와 나눔의 한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참고문헌

- 곽병은, 2006,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2006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곽병은, 2011, “지역사회복지 정체성의 실체”, 지방자치시대 20년, 지역사회복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김종찬, 1999,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8권 1호.
- 김종해, 1996, “지역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안”, 「상황과 복지」 창간호.
- 박양희, 2000, “생활협동조합에의 지역사회조직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태영 외, 2000,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2000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박태영, 2011, “지역사회복지 정체성의 실체”, 지방자치시대 20년, 지역사회복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박태영, 2011, “사회복지와 협동조합”, 갈거리사랑촌 설립 20주년 제6회 사회복지세미나.
- 오종희, 1994,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광주보건대학 논문집 vol. 19.
- 최일섭 · 류진석, 199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Session 3

학생참여 프로그램
Student Participation Program

한국사회의 참여와 나눔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부유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임금피크제는 청년 실업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가?

공무원 여성고용할당제는 필요한가?

Participation and Sharing in Korean Society

Should we rethink the free-subway-ride policy for senior citizens?

Is it time to introduce a wealth tax?

Would a wage peak system help alleviate youth unemployment?

Is a female quota system for public sector employment necessary?

Session 4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기업과 가정: 친가정경영과 영적조직의 인사관리 | **임효창 교수**

한국 사회에 기부 증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양용희 교수**

국제개발협력활동에서 윤리적 접근의 중요성 | **오승민 교수**

Business and Family : Family-friendly Management and HR in Spiritual Organization | **Prof. Hyochang Lim**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onation Increase in Korean Society | **Prof. Yonghee Yang**

The Definition of Development and its Ethical Meaning | **Prof. Seungmin Oh**

사 회 자 정 윤 경



정윤경 교수 (가톨릭대 심리학전공)
Prof. Yoonkyung Jeong (Psychology, CUK)

〈주요경력〉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University of Chicago 발달 심리학 박사
- 서울대 심리학 석사
- 서울대 심리학사

〈주요저서〉

- 아동 사고의 발달(아카데미 프레스)
- 발달 심리학(시그마 프레스)
- 위험한 칭찬(답소)

개 회 사 구 분 만



구분만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장)
Fr. Bonman Koo (Dean of the ELP College, CUK)

〈주요경력〉

- 현재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위원
- 2008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 대학 교육학 석사, 박사
- 1999 가톨릭대학교 신학석사

〈주요저서〉

- 교육 리더십과 가톨릭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 「'종교학'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방향」 (2013)
- 「가톨릭 학교의 학생인권 개념 모형과 실천 방향 모색」 (2012)
- 「가톨릭 학교의 전인교육 사명에 대한 고찰」 (2012)
- 「교장의 도덕적 리더십을 통한 학교교육 향상」 (2011)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

발 표 자 임 효 창



임효창 교수 (서울여대 경영학)

Prof. Hyochang Lim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학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박사졸업(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석사졸업(경영학석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학사)

<경력>

2012-2015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회장

2014-2015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편집위원장(차기회장)

2014-현재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소장

2008-현재 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12-2014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14-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09-201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 위원

2012-현재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위원

2015-현재 경찰청 새경찰위원회 위원

학회 이사 : 한국경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전문경영인학회,
대한경영학회,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등

〈발표논문〉

• 저서

- 서비스산업의 경영관리(백산출판사, 2001)
- 글로벌시대의 경영학(한울출판사, 2003)
- 기업의 사회적 책임중시 경영(한국학술정보, 2007)
- 인적자원관리(McGraw-Hill Korea, 2010)
- 조직행동의 이해(사이텍미디어, 2010)
- 경영학 원론(시그마프레스, 2013)
- 조직행동론(북넷, 2014년)

• 논문

- Validating E-learning Factors Affecting Training Effectiveness(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2007)
- Effects of Hotel Employees' Perception of Wage Justice : The Case of South Korea(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005)
- 기혼직장인의 직장-가정갈등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경영학연구, 2005)

기업과 가정 :

친가정경영과 영적조직의 인사관리

I. 서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기업에게 왜 이익을 추구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학교에게 왜 학생을 가르치느냐라고 묻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여기에 가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보인다. 왜냐하면 기업이 가정생활에 개입하거나 가정생활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권력(social power)이 커지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는 이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기업을 보고 있다. 개별 이익에만 매몰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사회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결국 기업실패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들 수 있다. 과거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고용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사회가 고도화되고 인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자는 경제적 동물로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노동의 댓가와 함께 개인의 건강과 삶의 가치,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 인사관리는 기업의 경영목표 및 전략을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스템적 관점에서 볼 때 하위시스템은 상위시스템의 목표달성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인사관리는 주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관심을 가졌다. 인력활용 비용을 줄이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기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단순히 비용통제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보지 않고, 「어떻게 동기부여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산업이 확대되면서 인간의 잠재력과 활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view)에서 인간의 열정과 창의성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자원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인간의 자발성과 주도성, 열정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현대 경영학의 역사를 분류할 때 두 번째 시기인 인간관계학과의 시대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대인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기업은 직원들의 감정상태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확대, 개인의 삶의 질 중시, 조직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의 가치관 변화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기업 인사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확대는 근로자의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친가정경영 등의 기업 인사관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개인의 삶의 질 중시는 영적조직 혹은 작업장 영성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경영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기업 인사관리가 노동의 인간화를 지향하면서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가정 균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가 기업의 가정에 대한 관심을 다룸에 있어서 견고한 논리나 실증자료를 활용하기보다 최근 기업경영의 흐름 및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반영하여 등장한 새로운 경영관행 및 연구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영적조직과 친가정경영에 대한 개념 및 그동안의 연구동향, 기업의 실제 사례 등을 다룬다.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사회적 책임 개념 및 등장배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1920년대 중반 복지자본주의 개념의 등장과 30년대 경제불황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었으나, 1953년 Bowen에 의해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많은 학자와 다양한 기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개념 정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요 기관의 용어 정의

구분	용어	정의
ISO	SR	조직이 경제·사회·환경문제를 사람·지역공동체 및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
UNCTAD	CSR	기업이 사회의 요구와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
EU 집행위원회	CSR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기업 활동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에 통합시키는 것
OECD	CR	기업이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
ILO	CSR	기업이 법적 의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 동향, 2006. 2

기업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가 아닌데 사회적 책임을 의무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이 등장한 초기에는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왜냐하면 기업의 본질은 이윤추구이고 경제적 가치 극대화에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의 문제이지 기업활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정적인 관점을 보이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 추구가 이윤극대화에 방해가 되며, 기업 목적을 희석시키고, 사회적 책임비용 발생으로 비용이 증대되며, 경영자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데는 비전문가라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의 존재 이유 역시 경제적 목적 추구만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의 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자를 기업의 단일목적론이라고 하고, 후자를 기업의 복수목적론이라고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이유는 시대적으로 대중이 기업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 수행의 기대요구가 있으며, 사회적 책임활동이 장기적 이윤을 가져다 주며, 사회적 책임이 윤리적 의무사항이자 기업의 대중적인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규범적으로 기업이 사회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사회 환경의 개선에

사회 구성원이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가치있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사회적 책임 구성요소

기업의 다양한 활동 중 무엇을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볼 것인가? 이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측정 이슈로서 이하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적 책임 측정도구인 경제정의지수(KEJI)를 제시하고자 한다. KEJI 지수 중 하나인 종업원 만족은 이 논문의 주제인 ‘기업과 가정’을 위한 기업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KEJI는 1991년에 개발된 지수로서 국내 최초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평가모델로서 총 7개의 사회적 책임활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종업원보호, 경제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경제정의지수(KEJI)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건전성	주주구성, 투지지출, 자본조달의 건전성
2. 공정성	공정성, 투명성, 협력관계
3. 사회봉사	소외계층 보호, 사회복지 지원
4. 소비자보호	소비자 권리보호, 품질, 광고
5. 환경보호	환경개선노력, 환경개선결과, 위반 및 오염실태
6. 종업원보호	산업재해, 인적자원투자, 임금/복리후생, 노사관계, 남녀고용평등
7. 경제발전	연구개발노력, 경영성과 및 경제기여

7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던 형태에서 2012년부터 KEJI 지수가 일부 변경되었다. 기존 항목 중 경제발전 항목을 제외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초기 지수개발이 이루어졌던 90년대 초 한국 상황에서 기업의 경제발전성과가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여 경제발전 기여도를 사회적 책임으로 포함시켰으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는 구분된다는 관점을 받아들여 경제발전 지표를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종업원만족 지표의 구성항목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종업원만족 항목은 산재다발 및 중대사고 발생

여부, 인당 교육비, 교육훈련비 증가율, 임금보상수준, 복리후생, 근속연수(장기근무), 사내복지 기금, 노사분규, 비정규직 비율, 노사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이다.

3. 사회적 책임과 인적자원관리

사회적 책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활동이며, 기업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중 핵심 이해관계자는 바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산업사회에서 근로자는 사회공동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소극적 관점과 적극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소극적 관점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댓가 이상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과 법률에서 정한 근로기준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적극적 관점은 법률이나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들을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지와 다양한 인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였거나 반사회적 책임활동을 하였다면 그 기업은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존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주어진다. 중소기업에서는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기업성장과정에서 공공재와 국가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성장하고, 불특정 다수가 주주인 경우가 다수이다. 오늘날 대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자사의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경영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

나이키사는 1990년대 미국 운동화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6년 라이프(Life)지의 표지사진은 나이키사를 큰 위기에 빠뜨렸다. 그 사진은 12살짜리 파키스탄 소년이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축구공을 바느질 하는 모습이였다. 나이키는 자기 회사 직원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인력에 무관심한 것 만으로도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나이키 불매운동을 벌이며, 비윤리적인 기업인 나이키를 성토했으며, 그 결과 나이키의 주가와 경영수익이 크게 악화되었다. 결국 나이키 경영진은 노동착취와 아동학대 등의 잘못을 인정하고 혁신적인 근로자 복지 개선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나이키 사례는 기업이 자사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를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커다란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제가 포함된다. 그동안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성희롱과 성차별, 부당처우와 부당해고, 노동착취와 괴롭힘 등 기업의 윤리경영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앞서가는 기업들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윤리경영 이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하에서 다루고자 하는 친가정경영과 영적조직 구축은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및 배려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 유지할 수 있으며,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Ⅲ. 친가정경영과 영적 조직

1. 친가정경영

1) 등장배경

친가정경영(가족친화경영, 가정친화경영, 일-가정양립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중임)이 등장한 배경은 기업을 둘러싼 인력구조 및 사회가치관 변화 때문이다. 인력구조 측면에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육아와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여성인력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2014년 현재 여성경제 활동참가율은 51.3%에 이르고 있다. 15세 여성인구 2,172만명 중 1,115만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경제활동인구 중 39.3%가 여성이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1960~2008년 미국의 경제가 17~20%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그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때문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확대에 의해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사회적 가치관 역시 여가와 가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인사관리의 대상관리자원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인사관리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여성이 늘고, 여가와 가정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학술적으로 직장-가정 갈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친가정경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2) 직장-가정 갈등 연구

직장-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정생활이 상호 영향을 줌으로써 역할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¹⁾ 직장-가정 갈등은 구체적으로 직장생활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WIF) 가정생활로 인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FIW)를 의미한다. 직장-가정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독일, 핀란드 등 서구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장인의 40~78%가 직장-가정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 과거에는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남녀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가 겪고 있는 직장-가정 갈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들은 직장-가정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혹은 결과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직장-가정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로 인해 일과 가정에서의 책임이 양립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이 길 때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아지며,³⁾ 조직의 지원이 높을수록, 특히 직장 상사의 지원 혹은 조직문화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상의 다양한 직장-가정 갈등 원인을 세가지로 분류하면 갈등의 원인으로는 시간에 근거한 갈등, 긴장에 근거한 갈등, 행동에 근거한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간근거 갈등(time-based conflict)은 업무량이 많아서 가정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갈등이다. 노동시간이 길고 야근이 많은 한국 기업의 경우, 시간근거 갈등의 발생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특히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가사 일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시퇴근이 어렵고 초과근무가 많은 경우 직장-가정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긴장근거 갈등(strain-based conflict)은 회사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긴장감과 피로가 가정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관계는 가정생활의 어려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

1) Greenhaus, J. H. & Beutell, N. J.,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0, 1985, pp.76~88.

2) Frone, M. R., Tardley, J. K. & Markel, K. S., "Developing and Testing an Integrative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997, pp.145~167; Kinnunen, U. & Manuno, S.,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Among Employed Women and Men in Finland," *Human Relations*, 51(2), 1998, pp.157~177.

3) Voydanoff, P.,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Perceived Work-Family Fit and Balance: A Demands and Resources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2005, pp.822~836.

4) Warner, M. A, Hausdrof, F. A., Understand Work-to-Family Conflict: the Role of Organization and Supervisor Support for Work-Life Issues, *Organization Management Journal*, 6, 2009, pp.130~145.

시 직장생활에 피드백되어 사기저하나 근로의욕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행동근거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은 직장과 가정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서로 다른데 이들 역할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시퇴근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인데, 회사에서는 남은 일을 모두 마치기 위하여 초과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일 때 두 개의 역할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갈등이다.

직장-가정 갈등의 결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직장-가정 갈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태도가 부정적이 되고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직장-가정 갈등은 기업과 가정, 개인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우선 기업 측면에서 직장-가정 갈등은 개인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낮추고, 근무의욕과 사기를 낮추며 궁극적으로 기업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⁵⁾ 가정 차원에서는 육아에 지장을 주며, 가족관계의 단절, 이로 인한 가정생활의 지속적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⁶⁾ 개인 차원에서는 스트레스와 심장질환, 우울증 등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⁷⁾

기업은 직장-가정 갈등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장-가정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가정경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친가정경영 프로그램

Barnard의 유인-공헌이론(inducement-contribution theory)에서 유인은 보상을, 공헌은 노동력을 의미한다. 기업은 개별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공헌)를 판단하여 그 댓가로서 금전(유인)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교환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기본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할 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그들로부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친가정경영(family friendly management)은 사회환경 변화 및 기업의 필

5) Hughes, D. & Galinsky, F., "Work Experiences and Marital Interaction; Elaborating the Complexity of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5, 1994, pp.423~438.

6) Kopelman, R. E., Greenhaus, J. H. & Connolly, T. F., "A Model of Work, Family, and Interrole Conflict: A Construct Validation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 1983, pp.198~215 ; Kelly, R. F. & Voydanoff, P., "Work/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34, 1985, pp.367~374.

7) Thomas, L. T. & Ganster, D. C., "Impact of Family-Supportive Work Variables on Work-Family Conflict and Strain; A Control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 1995, pp.6~15.

요에 의해 만들어진 관리방식이며 프로그램이다. 직장-가정갈등이 주로 인사관리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연구되었다면 친가정경영은 다분히 실무적인 인사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친가정경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모성보호프로그램, 유연근무제, 종업원지원프로그램, 감성경영 등이 있다.

(1) 모성보호프로그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성보호프로그램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 수 있다. 출산휴가의 경우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으며,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해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한 것은 모성보호 법률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해 왔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성보호 법률과 기업의 프로그램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의 대표적인 형태는 자유출퇴근근무시간제(flexible-time)이다. 이 제도는 출근과 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육아를 책임진 부모가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면 조금 늦게 출근하도록 허용하되 소정의 근무시간을 채우도록 하는 제도이다.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든,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든 직원이 선택할 수 있다.

재택근무는 회사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유연근무제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집에서 가사일을 보면서도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R & R; role and responsibility)을 다 하는 근무형태이다.

자유출퇴근근무시간제, 재택근무제도, 집중근무제도(4일동안 40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와 가정생활) 등이 유연한 시간근무형태라면 모바일오피스는 유연한 공간 근무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오피스(mobile office)는 오래 전부터 영업사원이나 컨설팅기업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많은 기업과 다양한 직무에서 사용한다. 실제로 D 공기업은 모바일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은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동 중이나 집에서 개인PC를 사용해 회사 데스크톱과 동일한 환경에 접속할 수 있으며, 자신이 앉는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는 형태의 업무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직장생활을 용이하게 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유연근무제라고 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하루 8시간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동안 근무하되 자신이 선호하는 시간에 근무할 것을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다. 기존에 임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형태로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었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종업원지원 프로그램

종업원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s)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민이나 고충을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1940년대 미국 회사들에서 시작한 제도로서 개인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및 가족생활 문제, 법률 및 재정 문제, 알콜 및 약물문제,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업원 지원은 1달러를 투자했을 때 5-16달러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업원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기업의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기업들이 종업원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비용은 거의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업원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자신의 고충과 고민에 대한 해결을 회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한국의 A증권회사는 종업원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A기업의 운영 사례를 보면, 직원이 자신의 고민과 고충을 상담 요청하면, 상담의 주제에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실시하도록 연계해 준다. 상담의 주제는 직장문제, 심리·정서문제, 자녀문제, 부부가족이성문제, 재정이나 법률·건강 등 기타문제 등으로 다양하다. 이중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직장 문제이며, 그 다음으로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A사의 종업원지원 프로그램 운영내용

상담주제	내 용
직장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간부 스트레스 ○ 리더십 코칭 ○ 경력개발 ○ 시간관리 ○ 불만고객 응대
심리/정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 ○ 불안 장애 ○ 분노 ○ 대인기피 ○ 강박 ○ 자살 충동
자녀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학업/진로 등) ○ 발달(사춘기 등) ○ 행동(ADHD 등) ○ 심리정서(성격문제 등)
부부/가족/ 이성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관계 ○ 주말부부/기러기아빠 ○ 노부모 봉양 ○ 가족 내 정신과적 질환
기타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자문 ○ 재무관리 ○ 건강(금연, 절주, 비만 등) ○ 정보제공

(4) 감성경영

감성경영이란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 조직운영 및 인적자원관리에 이르는 모든 제반 경영활동에 감성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의 감성지능 및 감성리더십을 향상시킴으로써 감성지능형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경영방식이다. 감성경영의 확대는 1990년대 중반 등장한 감성지능(emotional quotient)의 확산과 관련이 깊다. 개인의 감성지능에 대한 관심이 조

직의 감성지능으로 연계되었으며, 감성지능이 높은 리더와 감정경영을 잘 하는 기업의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K사는 Fun, Trust, Pride 등 3가지 개념으로 다양한 감성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의 가족을 초청하여 입사식을 치른다든지 육아데이, 직원 결혼기념일 축하 및 연수 등은 직원의 가족과 가정에 대한 회사의 관심이 드러나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표 4〉 K사의 감성경영 프로그램

Fun Program	Trust Program	Pride Program
호프데이	칭찬릴레이	Green(친절)/Yellow(불친절) 카드
육아데이	사장과의 대화의 장 - 신입사원/여직원/직급별 대화의 장	직원가족 장례행사용 소모품 지원
금요일 자율복장	전문가 심리상담 프로그램(EAP)	휴양소연수시 입소 축하 쿠폰
친목동호회 지원	신입사원 멘토링 프로그램	신입사원가족초청 입사식
금연펀드, 금연침,금연지원프로그램	CEO 칭찬 이메일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옥내 수족관 및 실내화원 설치	부하직원 호칭 뒤에 '님'자 붙이기	사내(본사) 건강차 비치
정기적 사무실 환경개선 콘테스트		직원 결혼기념일 축하
비만다이어트 펀드		초등학교 입학 축하
시네마(사내강당 활용)		결혼기념일(5년차) 연수
직원이 함께 참석하는 음악회		생활연수
춘계체육대회		

2. 영적 조직

1) 개념 및 등장배경

영적 조직은 작업장 영성(workplace spirituality)이 이루어지는 조직을 의미한다. 작업장 영성이란 조직화된 종교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신앙과도 관련이 없다. 이는 학술적인 용어로서 종업원들이 조직내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있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육성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가가 작업장 영성을 인식하는 것은 회사에서 하는 일이 결국 자신의 삶의 일부이며,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영성은 사회심리학이나 초개인 심리학, 종교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연구되어 왔는데,⁸⁾ 경영학 분야에서 작업장 영성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다. 그 이전에 경영학에서 영성 혹은 작업장 영성 개념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경영학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효율적 관리에 관심을 가졌을 뿐 어떻게 하면 직원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 유지하고 직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공헌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인적자원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작업장 영성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지만, 최근 경영학 인사조직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작업장 영성은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2) 작업장 영성의 특징

작업장 영성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직장-가정 갈등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다루는데 관심이 있다. 감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조직 내에서 감정을 가진 개인이 조직과 자신간 일체감을 느낄 때 직무스트레스가 줄고 동기부여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직장-가정 갈등을 덜 겪는 개인의 생산성이 높다. 영적 조직은 직원들이 회사생활에 대하여 의미감을 부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며, 그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직장-가정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한다.

비록 작업장 영성과 영적 조직의 개념이 최근에 등장하였으나, 직원들의 헌신(engagement)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관리가 존재하였다. 직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적자원관리의 목표 중 하나였는데 이는 영적 조직의 특징이기도 하다. 영적 조직은 직원들이 스스로 조직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느끼고, 역량 발휘를 위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구성원간 상호신뢰를 형성하며,

8) C. H. Liu & P. J. Robertson, "Spirituality in the Workplace,"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2011, pp.35~50.

9) J. Marques, S. Dhiman, & R. King, "Spirituality in the Workplace: Developing an Integral Model and a Comprehensive Definit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2005, pp.81~92.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종업원 권한위임을 중시하는 조직이다.

〈표 5〉 작업장 영성의 특성

특징	내용
강한 목표의식	조직구성원들은 왜 조직이 존재하고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는지 잘 알고 있다.
개인의 개발 중시	종업원들은 가치있는 존재이며,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이런 특징은 또한 직무안정성을 포함한다
신뢰와 개방성	조직 구성원간 관계는 상호신뢰, 정직, 공개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종업원 권한위임	종업원들은 권한 위임을 통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무 관련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종업원 표현에 대한 인내	조직문화는 종업원들이 어떤 죄의식이나 비난의 공포 없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허용한다.

(자료 : Robbins, DeCenzo, Coulter, *Fundamentals of Management*, 2014)

기업이 영적 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반대 논리는 영적 조직의 구현이 기업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비판이다. 개인이 직장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해서 능력없는 개인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직접적인 인과관계 검증이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태도형성이론에 의하면 영적 조직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태도형성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perception)과 감정(feeling)이 의도(intent)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조직과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감정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조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은 영성에 대한 강조가 개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근로자 직능인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데, 기업조직에서 삶의 의미와 개인의 정체성을 다루는 것은 근로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영적 조직이 신앙이나 종교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직장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만들고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불편하기보다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삶에서 기업과 가정이 동시에 중요하며, 기업이 개인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라고 보는 기업의 단일목적론이 아니라 기업의 목적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라는 기업의 복수목적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윤추구 이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업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장-가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친가정경영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모성보호프로그램, 유연근무제, 종업원지원 프로그램, 감성경영 등이 포함된다. 친가정경영은 여성인력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남성인력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직장-가정 갈등을 줄이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작업장 영성과 영적 조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과거 기업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직장 내 개인 삶의 영역을 다루게 되었다. 영적 조직은 기업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고 일의 의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업에 대한 자발적 헌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기업과 가정의 양립 관련 이론과 실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향후 관련 이론에 대한 견고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개별 친가정경영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및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적 조직에 대한 국내 연구가 적은 상황 이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삼성경제연구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 동향, 2006. 2
- Frone, M. R., Tardley, J. K. & Markel, K. S., "Developing and Testing an Integrative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997, pp.145~167.
- Greenhaus, J. H. & Beutell, N. J.,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0, 1985, pp.76~88.

- Hughes, D. & Galinsky, F., “Work Experiences and Marital Interaction; Elaborating the Complexity of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5, 1994, pp.423~438.
- Kelly, R. F. & Voydanoff, P., “Work/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34, 1985, pp.367~374.
- Kinnunen, U. & Manuno, S.,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Among Employed Women and Men in Finland,” *Human Relations*, 51(2), 1998, pp.157~177.
- Kopelman, R. E., Greenhaus, J. H. & Connolly, T. F., “A Model of Work, Family, and Interrole Conflict: A Construct Validation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 1983, pp.198~215.
- Marques, J., Dhiman, S. & King, R. “Spirituality in the Workplace: Developing an Integral Model and a Comprehensive Definit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2005, pp.81~92.
- Liu, C. H. & Robertson, P. J., “Spirituality in the Workplace,”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2011, pp.35~50.
- Robbins, S. P. DeCenzo, D. A. & Coulter, M., *Fundamentals of Management*, Pearson, 2014.
- Thomas, L. T. & Ganster, D. C., “Impact of Family-Supportive Work Variables on Work-Family Conflict and Strain; A Control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 1995, pp.6~15.
- Voydanoff, P.,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Perceived Work-Family Fit and Balance: A Demands and Resources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2005, pp.822~836.
- Warner, M. A, Hausdrof, F. A., “Understand Work-to-Family Conflict: the Role of Organization and Supervisor Support for Work-Life Issues,” *Organization Management Journal*, 6, 2009, pp.130~145.

<기업과 가정 : 친가정경영과 영적조직의 인사관리>에 대한 토론

이 영 민

숙명여대

저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구현방법으로서 친가정경영과 영적조직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근로자 중심의 조직문화와 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이 적절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사관리가 보다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친가정경영 관련 제도자 정책은 여전히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단편적인 복리후생의 한 방편이나 법적인 규제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영성조직의 경우에도 개개 근로자의 독립성, 자발성,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싶다.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는 기업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를 이윤추구로 규정하였으나, 사회변화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한 존재의 가치로 규정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목표로 근로자의 질 높은 삶과 일-가정 균형을 제시하였고,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발성, 주도성, 창의성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와 친가정경영이라는 인사관리의 패러다임 전환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를 근로자의 개인의 삶과 가정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시도는 참신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윤추구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초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사명과 배치되고, 기업의 선택 문제로 간주되었으나,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윤리와 규범을 준수

하고, 공생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하다. 다만 여전히 논란거리는 기업의 언제, 어디서나, 어디까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업 내부의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된 조정활동은 사회 구성원, 그 중에서도 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와 다양한 인사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특히 인사관리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희롱, 성차별, 부당해고, 부당처우, 노동착취, 괴로사 등 소극적인 윤리경영의 측면에서 친가정경영과 영적 조직 구축과 같은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하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윤리경영의 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희롱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등 근로자를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경영이 기업의 주된 사명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아쉽다.

넷째, 친가정경영의 주된 측면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상 장애요인은 직장-가정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와 같은 시간근거 갈등, 회사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근거 갈등, 가정과 직장에서의 수행하는 역할의 불일치에 근거한 행동근거 갈등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친가정경영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모성보호 프로그램, 유연근무제, 종업원지원프로그램, 감성경영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친가정경영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제도나 정책들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감독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모성보호조차 지켜지지 않는 다수의 사업장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결과, 매년 수만 명의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나 경력단절이 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영적 조직 구축의 경우, 일반적인 종교의 의미보다는 근로자 개개인의 조직 내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 있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육성한다는 의미로서, 회사의 일이 곧 나의 삶과 동일화하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영적 조직의 핵심인 작업장 영성의 개념이 기업의 인사관리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직원들의 헌신이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헌신의 요체는 바로 작업장 영성과 헌신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기업의 영적 조직 구현이 결국에는 기업의 수익 추구하고 직

결되어 있고, 개인에게 또 다른 정체성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작업장 영성의 개념이 다른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구체적인 정의가 보다 조작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결국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 받고, 사회적 기대치에 부합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란 존재는 경제, 사회발전의 견인차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더불어, 근로자를 폄박하고 무자비하게 이윤추구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교차하는 대상이다. 존경 받는 위대한 기업의 탄생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교정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저자가 제안하였듯이, 인간 중심의 경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로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자산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계속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발 표 자 양 용 희



양용희 교수 (호서대 사회복지학)

Prof. Yonghee Ya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직책>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력>

서강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졸업 (문학석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행정학석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 사회복지방법론 전공 (문학박사)

<경력>

2003~현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부교수)

2000~현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강사(비영리경영)

2010~2011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사 (corporate Citizenship)

2001~2007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강사(비영리마케팅)

1999~현재 (사)글로벌케어 이사

2010~현재 (재)다솜이재단 이사

2012~현재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심사위원 : 보건복지부, KBS

1993~1994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997 월드비전 기획연수국장

2006~2009 사회연대은행 운영위원

1999~201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 모금분과 실행위원
1999~2005	참여연대 운영위원, 자문위원
2000~현재	한국비영리학회 상임이사
2005~2009	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기금 이사
2005~2008.7	대한적십자사 프로그램개발위원회 위원

■ 기 타

세계NGO대회 모금분과 위원장 (서울, 1999)

〈저서 및 학술연구활동〉

- 선진국의 사회공헌활동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7 연구용역
- 기업사회공헌지표 개발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6권3호, 2008 (공동연구)
-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2007 (공동연구)
- 수익형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방안, 노동부, 2005.6
- 기업사회공헌 표준화 작업, 한국비영리학회, 전경련공동, 2005.12
- 기업의사회적책임 표준화작업의 의미와 경향, 한국비영리연구, 제5권, 2005, 12, 한국비영리학회
- 기업사회공헌의 전략적접근,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7
- 사회복지사 직무분석,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2004
- 비영리조직의 모금전략과 자원개발, 공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97
- NGO 가이드, 공저, 한계레신문사, 2001
- Corporate philanthropy, attitude towards corporations, and purchase intentions: A South Korea study, Hanjoon Lee, TaeKyu Park, Tae-Kyu Park, Hyoung Koo Moon, Hyoung Koo Moon, YongHee Yang, Chankon Kim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009

〈기부 및 모금 관련 관련 이력〉

- 월드비전 후원개발 및 관리부장 : 정기후원자개발 및 관리, 후원자전산시스템구축, 모금 방송캠페인 총괄
- 기빙엑스포 2003, 2005 : 실행위원장
- SBS 희망TV : 기획 및 운영위원, 방송모금 정기후원자 모집
- KBS 나눔대축제 : 기획 및 운영위원
- 모금컨설팅 및 대행업무 총괄책임 : 세브란스병원, 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전국재해구호협회, 굿피플, 사랑의친구들, 홀리비전, YMCA 등
- 모금강의 및 특강 :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희망제작소, NPO공동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구호협회, NGO, 재단, 사회복지기관 등 500여회

한국 사회에 기부 증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문제와 시민들의 요구가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개입만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민간차원의 인적 물적 자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기부금 규모는 지난 10 여년 사이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국가 전체적으로 개인 기부금 규모와 기부자 수 그리고 주요 모금단체들의 모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기부금 총액이 1999년 2조9천억원에서 2013년 12조4천8백억원으로 4배 이상 급속히 증가하였다(국세청 통계연보). 그리고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기부자 수와 금액도 모두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기부금이 증가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으리라 추정된다. 특히 개인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개인기부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기부동기에 대한 분석은 모금단체의 기부금 모집에 중요한 분석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동기에서부터 법적, 제도적 기부환경, 모금단체의 마케팅 역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의 기부동기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개인 기부자의 기부동기에는 감정적인 동기와 이성적인 동기가 섞여 있고 조사과정에서 개인기부자의 내면세계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의 기부동기에 대한 연구는 더욱 힘들다(김주원, 김용준, 2008). 개인의 기부에 미치는 요인에는 기부자 개인의 자체적인 심리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경제성장, 기부금 세제혜택, 개인 및 가구의 소득, 모금단체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모금단체의 경우 단체의 마케팅 역량과 모금상품(후원대상 및 프로그램), 기부금 모집시기, 기부경로 등 마케팅 활동이 기부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같

이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 선행연구들의 경우에도 연구자의 조사시점과 연구방법, 조사국가와 대상에 따라 개인기부의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모금단체들이 기부금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기부동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의 개인 기부금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모금단체들의 지속적인 모금활동에 중요한 과업이 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그동안 국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개인의 기부동기에 대한 공통적인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그동안 학자들의 기부요인에 대한 분석은 심리학적, 경제학적, 인구통계학적 분석 등 다양한 접근과 국가, 기부목적, 대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기부요인을 분석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 이들 기부요인의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개인의 기부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최근 한국사회의 급속히 증가하는 개인기부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개인의 기부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기부동기 요인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기부동기의 기본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법, 제도, 경제지표 등 개인의 기부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기부자의 기부동기에 대한 직접적인 서베이 실시하지는 않고 최근 개인기부자의 기부동기에 대한 연구들의 공통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의 개인기부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실시된 개인 기부에 대한 동기가 연구자에 따라 기부요인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개인의 기부동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 여년 사이에 실시된 주요한 개인의 기부동기에 대한 연구들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고 기부의 특성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이를 토대로 개인의 기부동기에 대한 서베이 작업을 위한 주요한 지표를 산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기부의 배경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사회의 기부금 규모는 지난 10 여 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 하였다. 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하여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등 주요 모금단체의 모금액과 후원자수가 급속히 증가했으며 국가전체의 기부금액도 급속히 증가하였다.¹⁰⁾ 이러한 한국사회의 급속한 기부의 증가는 비영리조직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조성에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차이는 있으나 국가의 재정만으로 복지, 교육, 환경 등 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모든 공공부문의 사회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비영리조직의 재원은 정보보조금(subsidy), 목적성 지원금(grant), 이용료(fee), 기부금(donation) 등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증가하는 서비스 욕구와 사업에 비해 정부의 지원과 이용료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마케팅을 통한 기부금 모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모금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시민들의 기부금은 비영리조직의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 명에 7 명은 일생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ghes, 2002). 하지만 많은 모금단체들이 이들 기부자의 기부동기와 기부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금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Peltier, Schibrowky, and Schultz (2002)는 대부분의 모금단체들이 그들의 기부자들이 왜 기부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정부의 복지예산 등 공공부문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 더군다나 인구구조의 변화와¹¹⁾ 계층 간 소득 양극화 현상, 노인의 급속한 자살율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으로써 비영리조직들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자체 수입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0) 국세청 연례 통계연보

11) 대가족제도의 해체, 저출산 고령화 현상, 다문화 가족의 급증

4. 개인 기부의 이론적 배경

개인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따른 동기이론과 경제적 요인에 따른 순수공공재 모형(pure public good model) 등이 있다. 우선 개인의 동기이론은, 물질기부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기부행위는 외부의 압력이나 이유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발적 행위와 관련된 이론의 배경에는 자기결정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이 있다. 자기결정이론은 개인행동이 어느 정도 자기동기화(self-motivated)와 자기결정화(self-determined)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론으로 자기결정이론에 있어서 사람의 동기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동기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극이나 영감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동기가 결여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은 동기가 부여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Ryan & Deci 2000). 이와같이 동기는 개인의 자발적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기 역시 동일(unitary)하기보다 사람에 따라 동기의 정도(amount)와 특성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의 동기를 분석하는 일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된다(Deci & Ryan, 1985). 내재적 동기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행동을 하게되는 동기인 반면에 외재적 동기는 사회적 압력, 보상 및 처벌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따른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곧, 내재적 동이란 개인의 흥미, 호기심, 욕구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외부의 보상과 상관없이 개인의 활동 그 자체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외재적 동이란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동기이다.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는 긍정적 감정의 고양, 의지 등을 통해 외재적 동기보다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하지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외재적 동기에 의해 내재적 동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Ryan & Deci, 2000).

경제적 요인은 경제학적 접근으로 개인의 기부동기를 크게 이타주의와 자기만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타주의에 의한 순수공공재 모형(pure public good model)과 자기만족에 의한 이론은 사적소비 모형(private consumption model)이론이 있다. 순수공공재 모형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정부의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자신과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리 증진

을 위해 개인 스스로가 부족한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자발적인 기부를 하게 된다. 반면에 사적 소비 모형은 기부자의 기부활동을 소비자의 소비행위와 동일하게 보는 이론이다. 곧, 개인의 기부 동기가 공공재 모형에서처럼 사회전체를 위한 공공재 공급의 목적에 있기보다는 소비자로서 기부행위 자체를 통해 개인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타주의와 자기만족의 혼합 형태로는 비순수공공재 모형(non-pure public good model)이 있다. 이는 기부의 동기가 공공재 공급이나 기부만족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이론이다. 곧, 두 가지 동기가 혼합되어 기부행위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외에도 경제적 요인으로는 기부자가 기부를 통해 받는 직간접의 보상 때문에 기부를 한다는 기부대가모형이 있다(손원익, 박태규, 2008).

동기이론과 경제적 이론이 심리적인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되나 완전히 분리된 이론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적 동기와 경제적인 요인은 상호작용에 의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의 차이는 심리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냐가 다를 뿐이다.

5. 개인기부 요인의 선행연구

기존의 학자들의 개인기부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를 살펴볼 때 크게 기부동기 요인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부동기 요인은 기부의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성별, 나이, 종교, 소득, 직업 등에 따른 요인분석이다. 그리고 사회환경 요인은 경제상황, 정부지원, 언론보도 및 방송, 모금단체 마케팅 요인 등 주로 기부환경에 대한 요인으로 개인의 외재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기부동기요인

기부동기요인은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내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개인의 감정(Coke et al., 1978; Fultz et al., 1986), 동정심 (Clary and Snyder, 1991) 등 심리적인

요인이 개인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경제성장,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세제혜택, 모금단체의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신뢰성, 선호도 그리고 모금 역량 등이 개인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재적 요인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개인의 기부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있다. 개인의 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환경으로는 경제성장, 법과 제도, 정부의 정책, 모금단체 등이 있다. 경제성장은 개인 및 가구의 소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개인의 기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실증조사에서 국가의 경제성장이 개인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에서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 기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GDP 성장이 기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Cowley et al., 2011). 러시아의 경우 경제성장이 기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oks, 2002).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구의 기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는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에 년평균 GDP가 8.3% 증가하고 실업율은 15%에서 4%로 줄어들었는데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기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James et al., 2005). 경제성장과 경제후퇴와 같은 비율로 기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Cowley et al., 2011). 세제혜택도 기부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의 지원금 규모가 개인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ua & Wong, 1999; Charles, 1980). 캐나다 정부는 2013년 개인의 기부활성화를 위해 처음 기부하는 자에게 특별한 FDSC(Temporary First-Time Donor's Super Credit)와 같은 세제혜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세제혜택이 기부목적과 대상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Chang, 2005). 정부 지원금의 증가는 개인의 기부금을 줄이는 대체 현상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비영리조직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증가했을 때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분석되었다. 곧 정부의 보조금 증가는 역시 모금단체의 기부금 증가의 대체현상으로 나타났다. 비영리조직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을수록 모금에 대한 노력은 줄어들게 된다. James Andreoni and Abigail Payne (2011)이 1985년부터 2002년 사이에 미국의 8천 개의 자선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지원금이 1000달러 증가하면 727달러의 기부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금비용과 같은 행정비의 비율이 개인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비용 중 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모금액 중 모금비용이 높을수록 개인의 기부동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금 비용이 1% 증가하면

모금액은 0.7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비가 1% 증가하면 기부금 0.12%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기부에 있어서 직접 비용의 지출이 기부 동기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Marudas, Nicholas P., 2012). 기부의 동기가 기부대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기부 대상 단체에 따라서도 개인의 기부동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오직 수혜대상의 복지에만 관심을 갖고 이루어지지만 종교, 의료, 학교 등에 대한 기부는 기부를 통한 본인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2005). 언론보도도 개인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재난의 경우에는 경제적요인 등 다른 요인보다 언론보도가 기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언론의 집중보도나 횡수 등이 기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금단체의 모금기술과 모금방법, 모금상품 기획 등 모금단체의 마케팅 역량이 개인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사회규범도 개인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k, Word, 1972; Gouldner, 1960).

2) 인구통계학적 요인

개인 기부에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nipes, Oswald, 2010).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소득, 연령, 성별, 교육, 종교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이들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기부대상 그룹, 자선기부, 종교기부, 의료기부, 교육기부, 정치기부 등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있다. 기부자의 소득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가 낮은 자보다 기부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부의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개인과 가구의 세액공제 혜택이 클 때 기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arles Lammam and Nachum Gabler, 2012). 연령에 대한 조사에서는 나이가 개인의 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Halfpenny, 1990; Midlarsky and Hannah, 1989; Nichols, 1992; Pharoah and Tanner, 1997). 특히 가구주 또는 주 소득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기부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itchen and Dalton, 1990; Kitchen 1992). 하지만 Gittel and Tebaldi의 미국 주의 기부에 대한 조사에서 35 세에서 54 세까지의 중년 가구주가 많은 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주보다 기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중년층의 경우 타 연령층보다 가족을 위해 지불해야할 비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되었다(Gittel and Tebaldi, 2006). Chang Seek Lee의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나이(13~19), 종교(기독교인, 비기

독교인), 성별 등에 대한 조사에서 17세의 청소년이 가장 물질적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기부(자원봉사)의 경우에는 여성이 그리고 나이는 18세가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재능기부에는 기독교인 청소년들이 재능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기부의 경향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조사에서 Gittel and Tebaldi는 교육의 정도가 자선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을 받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자선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교도 자선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독교의 경우 십일조는 자선기부의 종교적 이유이기도 하다. 자원봉사활동 역시 개인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chervish and Havens, 1997; Statistics Canada, 2009). 그리고 사회계층 (Jones and Posnett, 1991; Radley and Kennedy, 1995)이 개인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한국사회의 기부환경의 변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한국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규모가 확대되고 복지, 교육 등의 민간자원이 시장중심의 공급구조로 변화되면서 비영리조직의 재원조달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곧, 비영리조직의 정부, 공공조직, 시장으로부터 재원 개발이 과거와 같은 지원이나 후원 방식이 아닌 시장기제에 따른 새로운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마케팅을 통한 기부금 모집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의 증가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했다. 한국의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노령화, 가족 해체 현상 그리고 소득 향상에 따른 높은 삶의 질 추구 등과 같은 요인은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조현승, 하봉찬, 2008). 인구노령화의 가속으로 노령 인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독거노인의 증가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사회서비스 수요를 다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의원단체지원금의 대체

해방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정부의 복지 예산 부족으로 사회복지 재정을 주로 의원기관의 지원에 의존해왔다. 월드비전(한국선명회), 어린이재단(CCF)등과 같은 당시의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들어온 130 여 개의 의원단체들을 통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시설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1980 년에서 1990 년 사이에 대부분의 의원단체들이 후원을 중단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들은 이들 의원단체의 지원금을 대체할 국내 후원금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3) 민간기부금의 확대

국세청에서는 국세에 관한 자료를 정리·집계하여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 및 법인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 자료의 기부금 신고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기부율은 2006 년 31.6%에서 2013 년 3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부금의 총량 조사에서도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주희, 2013). 국세청의 소득공제와 법인의 손금산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은 기부금 규모를 보면 1999 년 2 조 9 천 억원에서 2013 년 12 조 4 천 8 백억 원으로 4.3 배 증가하였다. 아직 한국의 기부금 규모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작지만 성장률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기부총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 기부의 경우 1999 년 8 천 5 백억 원에서 2013 년 7 조 8 천 3 백억 원으로 9 배 이상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비영리조직들의 기부금 모집액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2005 년 2,147 억원에서 2014 년 5,883 억원으로 274% 증가했으며 월드비전의 모금액도 2005 년 340 억원에서 2014 년 1,800 억원으로 529% 증가했다. 특히 이들 모금단체들의 모금액은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한국인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2008년과 2009년에도 증가세를 보여 경제 위기가 반드시 개인의 기부금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같이 민간 모금단체들의 모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으나 모금단체들의 모금전담 조직의 확대와 언론, 인터넷, 캠페인 등을 통한 활발한 모금마케팅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표 1〉 기부참여율 변화

(단위 : %)

	2006	2009	2011	2013
후원 및 기부 참여율	31.6	32.3	36.4	34.6

자료: 통계청

〈표 2〉 개인과 법인의 연도별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대상 연도별 기부금 변화

(단위 : 조원, %)

구분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인	근로소득자	0.80	3.60	4.20	4.15	4.27	4.64	4.86	5.18	5.54	5.58
	종합소득자	0.05	0.74	1.14	1.28	1.39	1.51	1.67	1.90	2.19	2.25
	소계	0.85	4.34	5.34	5.43	5.66	6.15	6.53	7.08	7.73	7.83
법인	비율	29.3	63.7	65.7	62.1	62.7	64.0	65.1	63.5	65.3	62.7
	금액	2.05	2.47	2.79	3.32	3.37	3.46	3.50	4.07	4.11	4.65
	비율	70.7	36.3	31.3	37.9	37.3	36.0	34.9	36.5	34.7	37.3
기부금계	2.90	6.81	8.13	8.75	9.03	9.61	10.03	11.15	11.84	12.48	

자료 : 국세청(각 연도)

〈표 3〉 주요 민간단체 연도별 모금액 변화

(단위 :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동모금회	2,147	2,177	2,674	2,703	3,318	3,395	3,692	4,159	5,668	5,833
월드비전	340	410	540	690	960	1,250	1,430	1,580	1,670	1,800

7. 한국의 개인기부의 요인

한국 기부자의 개인기부 요인에 대한 조사는 여러 번 실시되었으나 조사자에 따라 기부요인의 분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기부자 개인의 기부요인을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실시된 기부요인을 보면 크게 동기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동기요인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국사회의 개인 기부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개인기부의 동기에 대한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졌다. 이들 조사 내용을 보면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내재적 요인은 기부자의 심리적 동기와 관련된 요인들이며 외재적 요인은 기부동기에 미치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이다. 이용규의 조사에서 일반인의 기부에 미치는 내재적 동기는 동정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행복감, 책임감, 종교적 신념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는 대중매체의 자극, 가족의 전통, 경제적 여유, 세제혜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제혜택의 동기는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규, 2011). 아름다운재단의 조사에서 기부의 내재적 동기는 사회적 책임감 26.8%, 나눔실천하는 가족문화 24.7%, 개인적 행복감 15.9%, 동정심 20.8%, 종교적 신념 10.7% 기타 0.2, 무응답 0.9%, 외재적 동기는 ‘요청받는 경우’ 46.0%,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자극’ 23.4%, ‘주변에서 하기때문’ 17.4%, ‘경제적 여유’ 8.9%, ‘세제혜택’ 2.5% 기타 1.1%의 순으로 나타났다(아름다운재단, 2007 기빙코리아 조사). 통계청의 사회인구조사에서 기부의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같은 문항으로 조사되었는데 내재적 동기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43.3%), ‘개인적 신념’ (14.9%), ‘종교적 신념’ (7.9%),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는 ‘기부단체·직장 등의 요청’(28.3%), ‘세제혜택’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2.6%)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18.6%),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와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기부방법을 몰라서’ 등의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조사에서 대부분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타주의적 성격을 지닌 이웃

을 돕기 위한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 중에서 세제혜택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기부동기

(단위 : %)

구 분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서	기부단체 직장 등의 요청	개인적 신념	종교적 신념	세제혜택	지역사회 국가에 기여	기타
계		43.3	28.3	14.9	7.9	1.3	3.9	0.4
지역별	도 시(동 부)	43.0	27.7	15.5	8.4	1.3	3.6	0.4
	농어촌(읍면부)	44.6	31.9	11.5	5.3	0.9	5.3	0.5
성별	남 자	41.4	31.2	14.4	6.8	1.4	4.4	0.3
	여 자	45.4	25.1	15.4	9.2	1.2	3.2	0.5
연령별	13 ~ 19세	30.8	56.4	8.6	1.6	0.1	2.0	0.5
	20 ~ 29세	52.1	20.3	15.0	6.0	2.4	3.4	0.8
	30 ~ 39세	45.7	26.3	16.3	6.4	1.7	2.8	0.7
	40 ~ 49세	43.2	23.5	18.6	9.1	1.7	3.6	0.4
	50 ~ 59세	42.8	24.1	14.4	11.5	1.1	6.1	0.2
	60세 이상	45.3	26.3	12.2	11.0	0.1	5.1	0.1

자료: 통계청

〈표 5〉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구 분		기부경험 없음	기부하지 않은 이유					기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기부 방법을 몰라서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직접적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계		63.6	62.6	18.6	3.7	8.9	5.7	0.5
성별	남 자	61.3	62.1	19.9	3.5	9.0	5.1	0.4
	여 자	65.8	63.0	17.5	3.9	8.7	6.3	0.6
연령별	13 ~ 19세	58.9	43.0	24.9	11.9	5.9	13.4	0.7
	20 ~ 29세	74.5	58.0	21.1	3.8	9.9	6.7	0.5
	30 ~ 39세	59.8	56.8	20.4	2.7	14.6	5.2	0.4
	40 ~ 49세	54.3	63.6	16.6	2.5	11.3	5.2	0.7
	50 ~ 59세	58.9	67.3	17.5	2.4	7.6	4.8	0.5
	60세 이상	76.0	75.8	14.7	2.4	3.9	3.0	0.3

2) 인구통계학적 요인

한국 사람의 기부경험(13 세 이상) 약 36.4%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부를 인구통계학적 기부 요인을 보면 남성의 기부율(35.8%)이 여성(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 대가 제일 많이 기부에 참여하며 그 다음으로 50 대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상의 46.1%가 기부하고 있어 고학력자의 기부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읍면부)지역보다 도시(동부)지역이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구통계학적 기부 및 기부경로별 기부율

	현금기부 참여율 %	기부경로											
		대상자 에게 직접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기업		기 타	
		직접 %	연간 후원회 횟수	%	연간 후원회 횟수	%	연간 후원회 횟수	%	연간 후원회 횟수	%	연간 후원회 횟수	%	연간 후원회 횟수
2011	34.8	12.1	6.5	21.8	4.1	46.9	4.4	21.1	5.7	13.8	5.7	8.1	3.8
2013	32.5	12.8	6.3	12.2	4.3	57.8	4.8	18.1	6.7	16.8	5.7	2.8	2.1
남자	35.8	12.5	6.1	10.7	4.4	59.7	4.3	14.7	7.0	21.2	5.8	2.7	2.2
여자	29.2	13.1	6.6	13.9	4.3	55.5	5.4	22.2	6.5	11.7	5.5	2.9	1.9
나이													
13~19세	28.2	10.4	4.5	10.0	2.7	56.0	3.3	8.8	4.6	2.1	2.3	21.3	1.6
20~29세	23.1	11.0	6.5	14.5	3.3	47.3	6.4	14.4	7.2	26.5	5.2	1.7	2.1
30~39세	35.6	11.3	6.8	10.7	4.0	54.5	6.5	15.4	6.6	25.8	6.2	0.8	2.0
40~49세	41.9	14.4	7.2	12.9	4.5	57.8	5.4	18.8	6.5	20.8	5.9	0.8	4.7
50~59세	38.7	14.4	6.1	12.6	5.0	60.2	4.2	22.2	7.0	14.9	5.7	0.9	4.1
60세이상	24.0	12.3	5.4	12.0	5.3	67.4	2.6	23.5	6.9	2.4	3.5	0.8	3.0
학력													
초졸이하	19.6	8.8	4.2	12.4	4.5	66.8	2.2	13.7	5.6	1.8	3.0	8.9	1.7
중졸	27.3	12.6	4.8	13.4	3.8	61.7	2.8	14.7	6.5	4.3	3.6	9.5	1.6
고졸	27.7	13.0	5.8	15.3	4.4	58.6	4.1	18.1	6.5	12.0	5.1	1.3	3.2
대졸이상	46.1	13.5	7.3	9.9	4.4	54.4	6.5	19.9	7.0	26.1	6.0	0.8	3.3

자료 : 국세청 (2014 : 한국의 사회지표 기부.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기부)

3) 사회환경요인

(1) 경제지표

기부환경요인으로 경제발전이 기부에 미치는 요인이 있다. 외국의 조사에서도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기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완만한 경제성장을 였다. 2005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18,508 달러에서 2013년 26,179 달러로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연소득 역시 2005년도 2,898,000 원에서 2012년 4,302,000 원으로 48%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증가는 개인의 기부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점은 2008년과 2009년 세계경제 위기로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기부액과 주요 모금단체의 모금액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시 일반시민들의 이웃돕기를 위한 심리적 동기가 더욱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7〉 1인당 연도별 국민소득

(단위 : 달러)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GNI	18,508	20,823	23,033	20,463	18,303	22,170	24,302	24,696	26,179

자료: 한국은행

〈표 8〉 가구당 연도별 연소득

(단위 :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구소득	2,898	3,038	3,200	3,390	3,432	3,631	3,841	4,076	4,302

자료 : 통계청

(2) 세제혜택

일반적으로 세제혜택은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자 개인의 기부 동기에 대한 조사에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4.43 점)과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4.22 점),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종교적인 신념과 의무’

(각각 3.63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말정산 등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3.49 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부 동기 중에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이타주의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11 년 통계청의 조사에서도 세제혜택으로 인한 기부동기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43.3%, ‘기부단체 직장 등의 요청’ 28.3%, ‘개인적신념’14.9%, ‘종교적신념’7.9% 등에 비해 매우 낮은 1.3%로 조사되었다. 특히 남녀와 모든 연령층에서 기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였다.

(3) 모금단체의 요인

기부의 동기에 대한 조사에서 간접적으로 모금단체의 신뢰, 투명성, 마케팅 역량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통계청의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문항에서 ‘기부방법을 몰라서’,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직접적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등은 모금단체와 관련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부동기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도 ‘기부단체의 요청’은 모금단체와 관련된 조사이다. 기부처는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 직접전달, 언론단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금단체를 통한 기부가 57.8%로 언론을 통한 기부참여율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모금단체를 통한 기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표 9〉 기부동기요인에 대한 분류

연구자	동기요인		결과
	내재적동기	외재적동기	
김주원 김용준	이성 / 감성 이기성 / 이타성	비영리조직관련 기부동기로 기부자의 정체성 부각, 일체감, 상호 호혜성	감성적요인 보다 이성적 요인이 더 영향, 이기성보다는 이타성이 더 영향을 미침, 상호 호혜성, 정체성은 밀접한 관계로 일체감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
이용규, 송용찬	동정심, 개인적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경제적 여유, 대중매체자극, 가족전통문화, 타인기부자극, 지인기부자극, 세제혜택	개인적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여유와 대중매체자극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동정심, 가족전통문화, 타인기부자극, 지인기부자극, 세제혜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부에 대한 내적 동기는 기부외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나 외적 동기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12) 통계청 2013 기부통계조사, 17,664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자기 기입(응답자 기입) 방법 병행

연구자	동기요인		결과
	내재적동기	외재적동기	
노정식, 오세조, 임성요	인지적 동일시, 평가적 동일시, 감정적 동일시		동일시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정적 동일시는 인지적 동일시와 평가적 동일시 보다 로열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정정호 등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 종교적인 신념과 의무,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기대	세제혜택, 사회적위신과 주위의 시선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은 높게 나타났으나 세제혜택, 사회적위신과 주위의 시선은 낮게 나타남.
아름다운재단	사회적책임감 나눔실천하는 가족문화,개인적 행복감 동정심, 종교적신념	요청받는 경우, 중요한사람으로부터 자극, 주변에서하기때문,경제적여유,세제혜택	내재적 동기는 사회적 책임감, 나눔실천하는 가족문화 개인적 행복감, 동정심은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종교적 신념은 높지 않음. 외재적 동기는 ‘요청 받는 경우,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자극 주변에서 하기 때문, 경제적 여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제혜택은 제일 낮게 나타남.
통계청	어려운사람을 돕고싶어서, 개인적신념, 종교적 신념, 지역사회 국가에 기여	세제혜택, 기부단체 직장등의 요청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 기부단체 직장등의 요청은 높게 나타났으나 세제혜택은 낮게 나타남.

8. 결론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개인 기부금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 기부금의 증가는 한국 뿐 아니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이미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2008 년과 2009 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1 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부금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GDP 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개인 기부가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한국과 같이 경제위기에 기부가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한국이 세계의 경제위기에서도 기부가 증가하는 것은 어려울수록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웃에 대한 연민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요인은 추후 조사가 요구된다. 한국의 기부동기에 대한 모든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이웃과 사회에 대한 이타주의 정신에 따른 내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반면에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요인은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부경로와 기부단체에 대한 조사에서 모금단체가 높게 나타나 한국

모금단체들의 기부금 모집을 위한 마케팅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용규 송용찬의 조사에서는 타인 및 지인 기부와 같은 외부의 자극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단체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결과에 대해서도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재적 동기에서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점은 세제혜택이 기부동기에 있어서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라 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개인 기부 동기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외국의 경우와 같이 기부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에서는 소득과 가정생활이 가장 안정기에 있는 40~50 대의 기부참여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에 있어서는 고학력일수록 기부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의 개인 기부는 크게 증가하였다. 개인의 기부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심리학적 내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모금단체들의 마케팅 노력이 개인의 기부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도서

- 강철희·구지윤·박소현(2011). 기부지역 선택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국내기부와 해외기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3): 221-253.
- 고수일 (2002). 내재적 동기에 대한 성과-보상 연계성과 경쟁 피드백 결과의 효과, 경영학연구 31권 제2호 2002년 4월(pp.509-528)
- 국세청 통계연보
- 노정식, 오세조, 임성요 (2008). 기부금 조성을 위한 간청 전략; 동일시의 세 가지 차원을 이용한 로열티 효과 비교, 경영학연구 제37권 제6호 2008년 12월(pp. 1497~1524)
- 김주원, 김용준 (2008). 자선단체기부자의 기부동기와 기부행동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제37권 제3호 (pp. 629~658)
- 박태규·윤병호·정진욱(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1(3): 79-100.
- 손원익 (2012).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통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손원익, 박태규 (2008).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이용규 (2011). 국내·외 기부문화 고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용규, 송용찬 (2012).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과 동기 이론 결합모형을 토대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6권 제3호(2012. 9): 189~211
- 정정호 외 (2006).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육구조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조주희 외 (2014). 2014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Auten, G. and Joulfaian, D. (1996) ‘Charitable Contributions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9: 55-68.
- Banks, J. and Tanner, J. (1997) *The state of donation: household gifts to charity, 1974-96.*
- Brooks, A. (2002) ‘Charitable Giving in Transition Economies: Evidence from Russia.’ *National Tax Journal* 4: 743-753.
- Chang Seek Lee, Hye Kyung Lee, Sheri N.Slick (2013). Factors Affecting the Donation Behavior of Korean Adolescents, *Advances in information Sciences and Service Sciences(AISS), Volume5, Number15.*
- Charles Lamman and Nachum Gabler(2012), Determinants of charitable giv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Fraser Forum* March/April 2012
- Chua, V. and Wong, C. (1999) ‘Tax incentiv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haritable giving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26(12): 1492-1504.
- Clotfelter, Charles T.(1980).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Giving: Evidence from a Panel of Taxpay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3.*
- Clary, E. G., & Snyder, M. (1991). A functional analysis of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The case of volunteerism. In M.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2, pp. 119-148). Newbury Park, CA: Sage.
- Coke, J S , Batson, C D , & McDavis, K (1978) Empathic mediation of helping A two-stag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52-766
- Edd Cowley, Tom McKenzie, Cathy Pharoah, Sarah Smith (2011). *The new state of donation: Three decades of household giving to charity 1978 - 2008*, CMPO and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Bristol

- Edward L. Deci, Richard M. Ryan(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 Fultz, J., Batson, C. D., Fortenbach, V. A., McCarthy, E M., & Varney, L. L. (1986). Social evaluation and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761-769.
- Gittell, Ross, and Edinaldo Tebaldi (2006). Charitable Giving: Factors Influencing Giving in US Stat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 4: 721-736.
- Gouldner, A. W. (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61-178.
- Hughes, M. (2002). They're willing to donate. *The Guardian*, Saturday, October 12.
- Independent Sector. (2002) *Faith and Philanthropy: the connection between charitable behaviour and giving to religion*
- James Carroll, Siobhan McCarthy, Carol Newman, The Determinants of Charitable Donations in the Republic of Ireland
- Jones, A. and Posnett, J. (1991) 'Charitable Donations by UK households: evidence from 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Applied Economics* 23: 343-351.
- John B. Ford, Douglas C. West, Perceptual Determinants of Nonprofit Giving Behavior
- Kitchen, H. and Dalton, R. (1990) 'Determinants of charitable donations by families in Canada: a regional analysis.' *Applied Economics* 22: 285-299.
- Kitchen, H. (1992) 'Determinants of charitable donations in Canada: a comparison over time.' *Applied Economics* 24: 709-713.
- Kotler, Philip and Alan Andreasen(1991), *Strategic Marketing for Nonprofits Organizations*, 4th ed., Prentice-Hall, Inc., NJ: Englewood Cliffs.
- Marudas, Nicholas P., Hahn, TeWhan, Jacobs, Fred A.(2012) An Improved Model of Donations to Nonprofit Orgazization, Volume 19 Number 1.
- Peltier, James, Schibrowsky, John, and Schultz, Don (2002). Leveraging Customer Information to Develop Sequential Communication Strategies: A Case Study of

- Charitable-Giving Behavior.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July-August, 23-33.
- Pharoah, C. and Tanner, S. (1997), 'Trends in Charitable Giving.' *Fiscal Studies* 18(4): 427-43.
- Radley, A. and M. Kennedy (1995). Charitable giving by individuals: A study of attitudes and practices. *Human Relations*, Vol. 48, pp. 685-710
- Reece, W. (1979) 'Charitable Contributions: New Evidence on Household Behaviou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9(1): 142-151.
- Richard M. Ryan and Edward L. Deci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Robin L. Snipes., Sharon L. Oswald (2010). Charitable giving to not-for-profit organizations: factors affecting donations to non-profit organizations, *Innovative Marketing*, Volume 6, Issue 1
- Russell D. Clark AND Larry E. Word (1972). Why Don't Bystanders Hel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4, No. 3, 392-400.
- Sana Alajmovic and Philip Wehtje, The Determinants of Private Donations to Humanitarian Disasters,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 Course 659: B.Sc. Thesis in Economics Spring 2010
- Sargeant, A., Douglas C. West and John Ford (2001), "The Role of Perceptions in Predicting Donor Value,"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7, 407-428.
- _____(1999), "Charitable Giving: Towards A Model of Donor Behaviou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5, 215-238.
- Schervish, P. G. and J. J. Havens(1997), "Social Participation and Charitable Giving: A Multivariate Analysis," *Voluntas*, 8(3), 235-260.
- Wen Chun Chang (2005). Determinants of donation; empirical evidence from Taiwan, *The developing economies* XLIII-2, 217-34

<한국사회 기부증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

정 무 성

송실사이버대 부총장

발제자 양용희 교수는 우리나라 기부문화 관련하여 현장의 실천경험과 이론적 토대를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에 걸맞게 한국 사회의 기부 증가에 관련된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개인요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경제·사회적 양극화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부증가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함의를 제시한 것은 시의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경쟁과 효율을 강조한 정부들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성장/고실업 사회의 도래와 함께 중산층은 대폭 줄어들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고용구조도 악화되어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다. 경제수준에 비해 국민들의 행복도는 매우 낮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복지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열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단기간에 선진국 주요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도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국민들의 복지체감은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복지제도가 제각각 확대되어 부문별, 제도별로 분절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비효율이 누적되어 오히려 일부 국민들의 불신과 조세저항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사회통합은 지연되며,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인해 국가, 가족, 기업, 사회,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부의 복지시책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구조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그들의

가족관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문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민간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공공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많은 사회복지활동이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며, 종교계나 지역공동체의 비공식적인 원조망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북유럽처럼 공공부문 중심의 복지국가를 창출하기 어렵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OECD 평균이하의 공공복지지출을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유럽 복지국가 국민들 못지않게 높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들이 높지 않은 공공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복지수준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활동이 다양하고,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매우 활발하여 부족한 공공부문을 보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민간 복지를 활성화시켜 부족한 공공복지를 보완한 나라들도 많다.

우리 사회의 급증하는 복지수요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지재원의 조달 문제인데 정부의 복지예산 수준은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기간에 복지재정을 상위권 국가 수준으로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가정에서 담당했던 복지기능을 지역사회에서 누군가 대신해주어야 한다. 실제로 종교성(불교 혹은 기독교 무관)이 강한 나라일수록 기부지수가 높아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사회보다 종교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신앙이 기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발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개인기부자들은 심리학적 내재 동기에 의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부자들은 합리적 동기보다는 감성적 동기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적 기부가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감성적 기부는 박애와 자선에 의한 현금 또는 물질적 기부 행위로 이어져서 사회의 취약 계층을 일시적으로 돕는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는 주는 사람의 동기, 우월감, 또는 만족 때문에 주어지는 일방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기부자나 수혜자 간의 불평등하거나 일방적인 우열관계, 또는 갈등관계가 아닌, 수평적, 생산적, 시너지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기본문화가 형성되어야 사회통합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형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기부문화의 확산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기부문화는 정부, 기업,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시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특히, 모금 주체들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전문적인 후원자 관리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부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정과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야 하며, 언론은 기부문화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언론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종교계도 자신들의 내부성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신자(신도)들의 나눔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토론자는 발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경제위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발제자는 단순히 개인들의 연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부유층들의 기부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기부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둘째, 기부의 개인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법제도적인 요인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부관련 법제도는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며, 최근 다양해지는 기부행태를 뒷받침해주는 역할도 충분히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했다가 1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어떠한 법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세계 기부지수 통계를 보면 미얀마가 1위를 차지하는 등 불교, 기독교 등 종교성이 강한 나라의 순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도 종교인구가 매우 많은데, 상대적으로 기부지수는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종교계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발 표 자 오 승 민



오승민 교수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Prof. Seungmin O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UK)

<학력>

가톨릭대 대학원 생명윤리학 박사
연세대 대학원 의학교육학 석사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경력>

가톨릭의대 의료협력본부 사무국장
가톨릭의대 국제보건연구소 부소장
가톨릭의대 보건대학원/가정의학과 조교수
카리타스 인터네셔널 운영위원
前) 말라위 대양병원 파견자문의사

<주요논저>

인문사회학(2010, 청년의사)

국제개발협력활동에서 윤리적 접근의 중요성

빈곤, 기아, 건강불평등으로 인한 피할 수 있는 죽음(Avoidable death)이 반복되고 있는 오늘날, 인류의 생명이 처한 비참함의 정도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¹⁾ 이에 국제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개발 또는 발전이란 명목으로 빈곤, 기아,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게는 특정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적 접근에서 크게는 국가 정부 단위의 보건의료체제 개혁까지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왔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노력의 모습은 지난 2000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서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이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과 기아 퇴치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초등 교육 실시, 양성 평등, 유소아와 산모의 사망률 감소, 말라리아, HIV/AIDS 와 같은 주요 질병 퇴치, 환경 보호, 원조협력체제 구축 등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많은 개발원조 또는 개발협력활동은 현재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개발의 결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빈곤과 기아, 건강불평등,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의 한계는 무엇보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인하여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상위 부자 20명의 부가 하위 10억 명의 부 총합보다 더 크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극심한 빈부 격차와 양극화로 인하여 사실상 새로운 봉건시대의 도래를 가져온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깊은 폐해를 남기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빈곤, 기아, 건강불평등으로 인한 어린 생명들의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에 대한 탐구와 함께, 이러한 모든 병리적 현상의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깊은 성찰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개발원조가 갖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한계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하며, 개발원조를 시행하는 사람에 대한 접근, 즉, 도덕적, 윤리적 원인에

1) 장 지글러. 탐욕의 시대. 양영란 옮김. 갈라파고스. 2008. 35쪽.

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에 대한 장애는 어디까지나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결정에 의해서만 극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발 담론의 흐름과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진화론적 개발 개념의 폐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제개발협력에서, 특히 국제보건의료활동에서 어떤 나눔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인지 제시해보려고 한다.

I. 개발의 개념

역사적으로 개발에 대한 담론 형성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강대국의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부딪힌 문제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태동되었다. 이들 국가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독립국가로 출발하였으나,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낙후된 채 정치적인 불안까지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다.²⁾ 독립 이전의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국가들에게 서구화는 근대화나 발전과 동의어였기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개발을 둘러싼 논의는 서구의 식민 통치와 이후의 근대화 과정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³⁾ 개발은 관례적으로 근대화와 동일시되어온 것이며, 여기서 근대화란 소득 증가, 건강 개선, 교육의 질 향상, 민주적 참여, 개인의 인권 존중으로 상징되는 서구의 경제 및 사회적 진보를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와 정책 우선순위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개발은 곧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었다.⁴⁾

이와 같이 갈수록 부를 축적하는 단계적 과정을 밟는 것이 개발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주된 이론을 진화적 개발 이론⁵⁾이라고 한다. 이 진화적 개발 이론에서 전통사회(traditional society) 단계는 농업을 위주로 생산성이 낮은 사회다. 그 다음 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preconditions for take-off)단계에서는 정부가 강화되고 교육 제도가 만들어지고 과학이 발전하며, 은행업이 시작되면서 수익의 체계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도약(take-off)단계로 이어지는데 성장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확대된 산업 재생산을 뒷받침할 만큼 투자율이 오른다. 그 후 성숙(maturity) 단계

2) 주동주. 국제개발과 국제원조. 시나리오친구들. 2011. 22쪽.

3)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최민경, 이태주 옮김. 아르케. 2013. 148쪽.

4)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51쪽.

5) 필립 맥마이클. 거대한 역설 :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조효제 옮김. 교양인. 2013. 37쪽 참조.

에 접어들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방직과 제철 산업에서 기계, 화학, 전기 공업으로 산업 이동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고도의 대량 소비 사회(age of high mass-consumption) 단계에서는 기초 생필품 생산 산업에서 내구 소비재 생산 산업으로 바뀌고, 도시화가 진행되며 공장의 육체 노동자 대비 사무실 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난다. 이렇듯 전통사회에서 시작하여 도약, 성숙단계를 거쳐 고도의 대량 소비 사회가 되는 것이 개발과 발전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후발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경험을 습득하고, 그 핵심을 모델화해 이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⁶⁾ 개발이 성취한 내용은 다른 나라들이 모방해야 할 이상적인 것이라는 식으로 이론화되어 제시되어 온 것이다.⁷⁾ 이러한 개발 담론은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시대에 이미 근대적 서사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담론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현재처럼 국가의 공식적인 개발 프로젝트⁸⁾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세기 중반은 탈식민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던 시점으로, 앞서 설명되었듯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은 개발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다.⁹⁾

한국의 개발의 역사 또한 이러한 진화론적 개발의 흐름을 타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개발 과정을 분석해보는 것은 개발의 개념을 성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다. 현재 진화론적 개발의 흐름 상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제대로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갈수록 정보 격차가 발생하여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은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가 되었고 사실상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많다. 하지만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개발 사례는 개발 역사상의 무조건적인 성공담이라기보다 극히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배경과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던 과정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¹⁰⁾ 김운회는 불과 50여 년 전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의 개발 및 발전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¹¹⁾ 첫째, 시기적으로 한국은 발달된 사회주의 공업국들이 세계 시장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다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수출 지향 공업화 경쟁에 뛰어들던 1970년

6)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62쪽.

7)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32쪽.

8)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조직화 전략, 동맹과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 시스템을 포함하며, 이 시스템은 냉전 시대의 경쟁적이고 군사화된 조건 속에서 수립되었다.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35쪽 참조.

9)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34쪽.

10)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9쪽.

11) 김운회. 왜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는가. 알렙. 2013. 14-18쪽 참조.

대보다도 훨씬 이전인 1960년대 초반에 이 전략을 채택하여 세계 경제의 상승기인 1960-70년대의 선진국 투자자들의 전폭적인 자금 투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자율도 낮았고, 무역 장벽도 거의 없었으며, 무엇보다 경쟁 상대국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한국은 패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여타 개발도상국들처럼 경제적인 재종속의 가능성이 없었고, 일본이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건설해 둔 기반 경제 시설을 아무런 방해 없이 양도받을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던 토지 개혁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사회학적으로 한국은 구시대의 모든 전통 질서를 붕괴시키는 계급 전쟁으로 한국 전쟁을 겪게 되어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새로운 사회 토대로 쉽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빈곤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자본주의의 발달에 필요한 값싼 노동 시장이 형성되었고, 원조 자본의 대량 유입,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달성되었다. 넷째,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컸으므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미국의 엄청난 원조로 한국은 사회경제적인 질서의 유지 뿐만 아니라 사회 기초 부문의 발전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다섯째, 경제 개발을 진두지휘한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 있었으며, 여섯째, 빈곤의 절벽 끝에서도 교육열이 강하고 부지런한 국민성이 경제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은 개발 과정을 통하여 농업의존, 부족한 교육, 제한적 과학기술 기반, 그리고 빈곤으로 인한 선택의 부재로 특징되는 후진성을 극복한 것¹²⁾이었지만, 한국의 개발 성공 사례는 일반화되기 어려운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경제 개발의 성공에 작용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세계사에서 다시 반복되기 힘든 여러 상황적 조건이 맞물려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같은 개발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개발 담론은 20 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들에 의한 소비자들의 시장 거버넌스로 그 초점이 이동하게 되었다.¹³⁾ 이제 개발은 전통사회에서 도약, 성숙단계를 거쳐 이행된 고도의 대량 소비 사회의 자유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비자들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수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진화론적이고 자유 시장 중심의 개발 개념과는 대척점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아마티야 센의 자유로서의 개발 개념이다. 아마티야 센은 한 국가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과

12)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51쪽.

13)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35쪽.

정인 개발을 자유의 확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¹⁴⁾ 여기서의 자유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¹⁵⁾ 궁극적으로 개인 행위주체는 박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된다. 동시에 각 개인들이 향유하는 행위주체의 자유는 주어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회에 의해 불가피하게 규정되고 제한된다. 이렇게 개인 행위주체와 사회적 제도배열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 자유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이 개인적 자유의 범위와 한계에 행사하는 힘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자유를 사회적 기여로 간주해야만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자유의 확장을 개발의 일차적 목적이자 주요한 수단으로 바라본다. 개발은 부자유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에 아마티아 센은 실질적인 부자유를 제거하는 것을 발전으로 정의하고 개발의 최우선 목적은 인간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¹⁶⁾ 센은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 현금 급여뿐 아니라 일자리를 포함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이러한 개념은 교육, 의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빈곤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으며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의 도입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¹⁷⁾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소비사회로 경제가 발전하여 자유 시장에서 구매력이 강화되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것이 개발이라는 진화론적 담론에서 벗어나서 센은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확대해가는 과정을 개발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설정한 것이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진화론적 개발의 결과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큰 함의를 주고 있다. 개발은 인간사를 진화론적이고 유물론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설 수 있고 개발에서 기술이 줄 수 없는 초월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길을 따를 때,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는 온전한 인간 개발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¹⁸⁾이라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지적 또한 개발의 의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려준다고 하겠다.¹⁹⁾

14) 연세대학교 빈곤문제연구원. 같은 책. 35쪽.

15)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501쪽.

16)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김원기 옮김. 갈라과코스. 2013. 32쪽.

17) 김윤태, 서재욱. 같은 책. 39쪽.

18)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114쪽.

19)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285쪽.

센의 개발 이론과 함께 국가는 개발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⁰⁾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가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 교육, 식수, 위생을 보장하고, 안보, 법치, 사회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며, 경제를 규제하고 개발해 수준을 높인다. 따라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가,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 또 능동적 시민권이 번성하도록 존중하는 국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 또한 진화론적 개발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개발의 결과로 자유 시장에서 적절한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로 편입되지 못하는 것을 개인적 원인으로 돌리는 것과 상반되는 이론으로 그 함의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화론적 개발 이론이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개발의 주요한 담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볼 때 개발이 다루어 온 주제는 국제 사회의 빈곤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철저한 고민을 요구하는 문제들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개발학은 다른 어느 학문보다 이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에 시선을 두고 정면으로 도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환경, 노동, 여성, 아동, 인권 등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세계를 통틀어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학문이 국제개발학²¹⁾인 것이다. 국제개발학은 사회적 조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여 인류 사회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휴머니즘의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²⁾

경제학자 폴 콜리어가 쉽게 표현한 개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

“개인적으로 개발은 보통 사람들에게 자식들은 자신들과 달리 좀 더 나은 형편에서,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²³⁾

이 설명에 따르면 개발은 ‘희망을 주는 활동’이다. 희망을 주는 활동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부터 개발은 그 자체적으로 한계에 갇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발에 대한 설명에서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과연 무엇이 ‘더 나은 형편이고 더 나은 사회인가’라는 점

20) 던컨 그린. 같은 책. 36쪽.

21) 주동주. 국제개발과 국제원조. 시나리오친구들. 2011. 25-26쪽.

22) 같은 책. 46쪽.

23) 폴 콜리어. 빈곤의 경제학 - 극빈국 10억 인구의 위기. 류현 옮김. 살림. 2010. 37쪽.

이다. 누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충분한 부를 축적한 상황에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을 나은 형편과 나은 사회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시장의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을 수 있으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나은 형편과 나은 사회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의 결과로 받아들일 더 나은 형편과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해석과 관점의 차이가 개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낳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리학자 클라이브 해밀턴은 <개발과 윤리 - 세계화 시대, 그 후의 전망>에서 개발을 통한 이러한 더 나은 형편과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삶에서의 목적을 <표 1>에서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²⁴⁾

〈표 1〉 삶에서의 목적과 그 철학적 기반²⁵⁾

접근법	목표	측정수단	극복할 문제	철학적 기반
즐거운 삶	즐거움	국내총생산량 (GDP)	희소성	공리주의, 쾌락주의 (벤담, 밀)
좋은 삶	능력의 개발	인간개발지수 (HDI)	실현되지 못한 잠재성	행복, 역량, 자유 (칸트, 롤스, 셴, 누스바움)
의미 있는 삶	타자와 고차원적 존재에 대한 헌신	없음	의미의 부재	덕윤리, 통찰과 연민의 전통들(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불교)

즐거운 것, 좋은 것,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추구는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한 내재적인, 혹은 외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다. 즐거운 삶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주된 문제가 자원의 희소성에 있으며, GDP의 성장이 이를 극복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즐거운 삶에 대한 개인적인 추구는 경제 성장과 소비를 강조하는 사회 구조 위에 위치해 있다.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으며, 좋은 삶에 주목하는 사회는 자유를 포함한 개인 역량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좋은 삶에 대한 개인적인 추구는

24)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최민경, 이태주 옮김. 아르케. 2013. 355-361쪽. 참조.

25) 같은 책. 359쪽.

인간 잠재성을 개발하고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민주주의의 사회 구조 상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개인적인 추구하고 부합하는 사회구조의 형태는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는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선 물질 소비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공유된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것이다. 모든 사회 내에서는 연민, 이해, 자기 희생 등의 더 높은 목표를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자선 단체, 종교 단체가 존재한다. 학문적으로도 개발학은 다른 어느 사회과학 분야보다도 더욱 가치 지향적인 방향성을 가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발학의 연구 대상 자체가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절박한 저개발 문제들이기 때문이며 이를 개발 상태로 바꾸려는 목표를 추구하는 학문이 개발학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 대한 윤리적 규범적 판단이 개발학의 핵심적 특징인 것이다.²⁶⁾

일반적으로 개발은 형평성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 정치 경제적 구조 강화 및 창조 과정으로 설명된다.²⁷⁾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 정치 경제적 성장을 넘어서서 개발은 시장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개인적 행위의 개선 동기로 설명되고 있다.²⁸⁾ 개발의 관점은 에너지, 식량, 기후, 금융 위기 등의 복합적인 양상에서 영향을 받아 변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일본의 개발학자인 가쓰마타 마코토는 ‘개발,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관계의 재고’라는 논고³⁰⁾에서 개발을 재고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점을 세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로 오늘날에는 시민적 자유를 희생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개발 독재형 패러다임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2011년에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아랍 세계의 시민적 자유에서 비롯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열의는 되돌릴 수 없는 움직임이 되었고, 빠른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IT 혁명은 이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둘째로 아프리카 지역은 오로지 원료 공급지로서 선진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자원 획득 경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프리카의 개발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변화가

26) 주동주. 국제개발과 국제원조. 시나리오친구들. 2011. 43-44쪽.

27) Solomon Benatar & Gillian Brock. Global Health and Global Health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191.

28) 필립 맥마이클. 거대한 역설 :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조효제 옮김. 교양인. 2013. 36쪽.

29) 같은 책. 497쪽.

30)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최민경, 이태주 옮김. 아르케. 2013. 114-117쪽 참조.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로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는데 자연을 단순히 시장과 이윤의 대상으로 거래하여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류 생존을 위한 전 세계의 공유 자원으로 자연을 재인식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원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희소성 차원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 사회 본연의 모습이나 체제 논의로 고찰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서도 드러나듯이 개발이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여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개발원조 프로그램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적절한 지적 증여, 즉 자립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식의 증여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수혜자를 자립적이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는 일이다.³¹⁾ 이와 같은, 수혜자를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키워내는 일의 한 사례로 베트남에서 시행되었던 영양 개선 프로그램³²⁾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제까지 시행되어 왔던 다른 여러 해외 원조기구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할 뿐 지속될 수 없었다.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에는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그걸로 끝이었다. 이런 프로그램이 실패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수혜자로서 자기 아이들을 영양실조에 빠뜨린 근본 문제를 개선해야겠다는 의무와 동기가 없었다. 오히려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은 전적으로 해외 식량자원 덕분이었다. 해외 원조기구가 떠나버리면 식량도 끊일 것이다. 게다가 기존 영양 프로그램은 식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데만 신경 쓸 뿐 육이나 위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한마디로 원조기구는 와서 먹여놓고 떠났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었다. 결국 현실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모형을 만들려면 대부분의 자원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와야 한다. 이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영양상태가 양호한 아이가 있는지 물었다. 몹시 가난한 환경에서도 영양상태가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원봉사자들은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이끌어내 프로그램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의 극대화였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두 달 동안 가

31) E.F. 슈마허. 같은 책. 249쪽.

32) 제리 스티닌. 긍정적 이탈. 박홍경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2012. 43-78쪽 참조.

난한 집 아이도 양호한 영양상태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들 사람들도 그것을 실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다시 모여서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하고 교육했다.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에 대한 관념이 바뀌면서 내면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영양 개선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됐으니 외부의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 사람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기에 성공도 그들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미래는 그들의 것이다. 따라서 각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미래를 정의하고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반드시 공동체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변화를 설명이나 지시가 아닌 새로운 습관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전파할 수 있느냐가 이 부분에서 관가를 나는 것이다. 이러한 여정에서는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도자는 반드시 배경에 녹아 들어 현재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지형을 본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수혜자가 단순히 수혜자로 끝나지 않는 협력방안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 영양 개선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수혜자가 단순하게 대상자로 머물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개발 사업에 협력할 수 있게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개발 사업의 목표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발 사업과 반대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상으로 물품을 기부하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국제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서 단순하게 물품이나 보조금이 지원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일반적인 농촌 마을의 한 사례³³⁾를 통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기부 물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부들은 정부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 뿐이다. 이들은 무상으로 제공되거나 지원된 보조금으로 농사 관련 기계를 얻게 된다. 반면에 하루에 1달러 이하의 수익으로 살아가는 소농들은 이러한 거래에서 소외된다. 게다가 보조금이 지급되면 작은 규모로 저렴한 농사 관련 기계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타격이 간다. 그럼에도 결국 성공적인 빈곤 퇴치 프로그램으로 홍보된다. 무상 지원이나 보조금으로 해결하지는 태도는 개발 사업계에 뿌리 박힌 관행이다. 실제 성과에는 관심이 없고 전시 효과만 노리는 정부, 세계은행, 유니세프, 유엔, 정치인, 많은 개발 사업 전문가들이 이러한 논리를 내세운다. 실제로 1980년대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농부들은 저렴한 소형 수동 페달펌프를 보조금의 도움 없이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방글라데시 대통령 선거 몇 달 전

33) 폴 폴락. 같은 책. 70-72쪽 참조.

에 한 후보가 페달펌프 2 만개를 지역 농민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지역의 농민들은 즉시 구매를 중단하고 공짜 펌프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지역에서 사업하던 소규모 펌프 제조 업체, 중개 업체, 우물 굴착 업체 등 많은 수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페달 펌프는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대형 제조업체가 정부 연줄을 이용하여 페달 펌프 계약을 따냈고, 아주 질이 낮은 펌프를 약 2 천개 제조했다. 약속했던 페달펌프 2 만개는 소식도 없었고, 25 달러를 주고 페달펌프를 샀더라면 한 해에 100 달러는 벌 수 있었을 농부들 수천 명이 큰 손실을 보았다.

이와 같이 개발의 개념에는 이제 현장에서만 존재하는 시간과 장소의 특수 상황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진화론적 개발 이론에서 이미 상정해 놓고서 도달하고자 하는 소비 사회의 시장을 통한 원리로는 끌어낼 수 없는 지식의 수맥이다.³⁴⁾ 이에 개발의 개념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프로네시스(Phronesis, 실천지)의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³⁵⁾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실천지는 말이나 숫자로 치환하기 쉬운 형식지나 이론지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통합적이며, 몸으로 배우는 지식이라는 것, 즉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개인적인 지식이라는 사실이며, 문맥과 개별적 사항을 중시하는 지향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실천지(實踐智)로 규정되는 개발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진위 판정이나 자연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보편성의 획득이 아니라, 다른 사례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다른 방식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힘이다.

개발학자 가쓰마타 마코토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개발을 되돌아 보면서 바람직한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논점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³⁶⁾

34)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73-175쪽 참조.

폴 폴락은 대부분의 개발 전문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하는 현장에서 이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듣는 데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지만 본인이 빈곤을 없애는 실용적인 해결책은 대부분 현장에서 얻은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폴 폴락. 같은 책. 46쪽 참조.

- ① 현장으로 가라
- ②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대화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
- ③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 ④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라
- ⑤ 아이처럼 생각하라
- ⑥ 성과확장이 가능한 접근법을 취하라
- ⑦ 구체적인 목표 원가 및 가격을 설정하라
- ⑧ 실용적인 3개년 계획을 따르라
- ⑨ 당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워라

35)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76쪽.

36)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18-122쪽 참조.

① 새로운 요구의 창출 없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기본적 요구의 충족을 모색하여 개발도상국의 생활 향상을 이루는 방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자연환경의 보전 없이는 개발을 통한 생활 향상은 실현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강조가 더욱 필요하다.

③ 지역 주민 스스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며, 국가는 이를 방해하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 공적개발원조(ODA)의 발상은 개발이 자국의 공무원과 외국의 원조기관 사이의 사업이라는 타율성을 심어주었다. 형식적 또는 의례적인 참여적 개발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시행 착오를 거치더라도 생활 향상을 위해 생각하고, 관찰하고, 행동할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역, 국가, 국제 수준으로 전달하는 민주적인 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 지역 주민은 단순한 외부 원조의 수혜자가 아니다.

④ 생활 향상의 길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모두 암묵적으로 선진국과 동등한 생활 수준을 달성시키는 것이 개발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길은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다르다. 정부와 외부 원조기관의 전문가 집단이 대의에 입각해 국민 복지와 번영을 달성하려는 획일적인 개발 사상과 사업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⑤ 세계화(globalization)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지 않는 생활 향상은 지속성이 없다. 개발이란 만물의 상품화를 통해 각자가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은 세계화 시대에 개인적 욕망의 분출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였다. 이는 자연을 전대미문의 규모로 자원화, 상품화함으로써 주민 연대와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세계화를 추진하는 주체를 분석하고, 지배적 사상과 보편적 규칙의 준수를 강요하는 규범의 성격과 범위를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폴 폴락은 ‘실제 개발의 현장에서 농촌 빈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은 정말 간단하고 모두 다 아는 사실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농촌 지역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제안을 하였다.³⁷⁾

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이다.

② 전 세계 절대 빈곤 인구 대부분이 1 에이커(약 4천 제곱 미터) 농지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다.

37) 폴 폴락, 같은 책, 33쪽.

③ 과일이나 채소를 제철이 아닌 시기에 재배하는 것과 같이 노동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할 방법을 찾게 된다면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다.

④ 그러기 위해서 빈민들은 아주 저렴한 소규모 농지용 관개시설, 품질 좋은 종자와 비료, 그리고 작물을 내다 팔 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빈곤층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먹을 것’보다는 ‘현금’이 더 적절하다. 현금이 있으면 어려운 처지를 개선할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 보장 접근법에 더 합당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여덟 개 빈곤 농촌 마을의 500여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관찰한 결과 채무 상환, 가축 구입, 집 수리와 건축, 교육, 농자재 구입, 의료 순이었다. 이는 빈곤층이 어떻게 미래에 투자하는지를, 그리고 빈곤층의 욕구가 얼마나 다양하며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수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사후에 인간적 존엄성을 갖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관을 구입하였다. 빈곤층은 수령한 현금을 어떤 일에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³⁸⁾

이상에서 개발의 역사와 개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의를 살펴보았다. 개발은 저개발 사회가 이미 발전한 선진개발국을 따라잡기 위해 펼치는 행동이 아니다. 개발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마치 이 세계의 전체 인구 중 소수만이 누리고 있는 발전된 상태가 이미 존재하므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상태를 선망하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발이 종착점이 아니라 끝없는 과정임을 망각한 관점이다. 서구 사회는 인도나 중국 같은 지역으로 일자리가 넘어가고, 공공 인프라가 쇠락하고, 교육이나 의료 같은 사회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급격하게 개발의 후퇴를 겪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개발은 직선형 진보로 볼 수 없으며, 저개발국들이 따라잡아야 할 모델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³⁹⁾ 개발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천지인 프로네시스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개발은 국가의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발은 원조 전문가나 학자들의 문제도 아니다. 개발은 매일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지구촌 99% 민중들의 문제이다.⁴⁰⁾ 이

38) 던컨 그린. 같은 책. 254-255쪽.

39)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54쪽.

40)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1쪽.

사람들 각자의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개발은 정의되고 시행되어야 하지 일괄적인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향적으로 계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개발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인간 전체와 인류 전체의 개발이 전체적인 것이라야 한다.⁴¹⁾

Ⅲ. 진화론적 개발 이론의 한계

앞서서 살펴보았듯 진화론적 개발 이론은 사회나 국가의 발전은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고도의 소비 사회로 진화적이고 단계적으로 변화해가는 일직선 상에 있으며 개발이란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면서 개발도상국이 현재의 선진국처럼 되는 것에 있다는 관점이다. 이에 2000 년에 들어서며 국제연합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같은 선진국의 대규모 개발원조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킨다는 전세계적인 개발원조활동이 있어 왔다. 이렇듯이 오랫동안 개발문제를 낙관적이거나 단순하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개발도상국에게는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자금과 기술이 풍요로운 국가가 그것을 가난한 국가에게 이전함으로써 가난한 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빈곤과 그 외의 여러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⁴²⁾ 이라 여겨졌다. 개발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화하듯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는 관점은 왜 경제 성장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경제 성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인간능력의 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빈곤을 극복함으로써 개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생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⁴³⁾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부의 획득은 불행의 근원인 식량,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은 행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하기에⁴⁴⁾ 부의 획득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요건이 되는 것이다. 진화론적 개발 이론에서 가장 진화된 개발의 상태를 고도로 발달된 소비 사회로 제시하는 것 또한 자유 시장에서의 소득 획득의 결과로 소비자로서의 구매력을 갖출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진화적인 발전 순서에 따라 현재의 선진국처럼 고도

41)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30쪽.

42)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83쪽.

43) 같은 책. 362쪽.

44)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52쪽.

소비 사회가 되는 것이 역사 발전 과정의 최종 단계이며 개발 도상국이 밟아야 할 모델로 내세운 것에는 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진화적 단계로 이론화된 개발은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틀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무역, 화폐, 투자 규칙, 국제 원조, 군사적 보호 등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의 다자 간 제도와 양자간 협정을 통해 마련된 것⁴⁵⁾이었다.

진화론적 개발 이론의 한계는 개발은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돈’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의 개발 현장에서 양적인 측면은 질적인 측면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다.⁴⁶⁾ 개발은 재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교육, 조직, 규율로부터 시작된다.⁴⁷⁾ 개발은 경제 차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⁴⁸⁾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은 인간의 통제 아래 머물러야 한다. 과도한 경제력을 가진 소수의 강자나 집단, 강대국들의 통치에 개발이 맡겨져서는 안 된다.⁴⁹⁾ 실제로 재화 중심의 원조 의존적인 개발로 인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의 교육, 조직, 규율과 같은 굿 거버넌스의 실현이 가로막혀져 왔다.⁵⁰⁾ 국가도 시장도 시민사회도 개발의 주인인 사람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이 국가, 시장, 상품, 돈과 다른 어떤 것에 종속되거나 지배 받게 된다면 이것은 개발이 아니다.⁵¹⁾ 이러한 진화론적 개발 이론에 따른 성장을 위한 성장, 노동을 위한 노동은 오히려 복지를 파괴하고 삶의 기초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⁵²⁾ 상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위 욕구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관점 또한 한결같이 국내총생산량의 성장에만 집중하는 진화론적 개발 이론의 주요한 정당화 수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빠른 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 초기에 심각한 환경 오염을 정당화시키고, 불평등, 착취적인 노동 조건,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폐기하기 위한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⁵³⁾ 양적인 분석을 통해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이 5 퍼센트 증가했다고 측정되었을 때 진화론적 개발 이론에서는 이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게 된다. 실제로 증가한

45)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38쪽.

46) E.F. 슈마허. 같은 책. 247쪽.

47) E.F. 슈마허. 같은 책. 213쪽.

48)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93쪽.

49) 기쁨과 희망.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5쪽.

50) 담비사 모요. 같은 책. 211쪽.

51)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0쪽.

52) 마인하르트 미겔. 성장의 광기. 이미옥 옮김. 뜨인돌. 2011. 43쪽.

53)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62-363쪽.

것이 무엇이며,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와 상관없이, 경제 성장은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여기며 병적인 성장, 건전하지 못한 성장, 파괴적인 성장도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⁵⁴⁾ 이제는 이러한 경제 성장과 소비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 교육, 삶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인간 개발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함⁵⁵⁾에도 진화론적 개발 이론은 단순하게 선진국의 경제적 성장 양상을 개발도상국이 따라가야 한다는 식으로 설정한 것이다.

개발 초기에 경제 성장의 목적은 일단 광범위한 물질적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초기에는 이러한 경제 성장의 모습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으며, 일단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류가 보다 고차원적인 목적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⁵⁶⁾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일단 제 3 세계에서의 경제 성장 자체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하에서는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불가능하였으며, 경제 성장을 통하여 보다 고차원적인 것에 헌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욱 큰 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개발 원조의 집행은 수많은 제 3 세계 국가를 영구적으로 구호품에 의존하는 존재, 다시 말해 복지 식민주의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렸다.⁵⁷⁾ 개발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인식 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성장의 결과로서 개발도상국 내부에서는 도시-농촌 간 격차, 빈부 간 격차, 빈곤의 확대, 분쟁, 테러 등의 사회 불안 문제, 또 그에 수반하는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자연 재해들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⁵⁸⁾ 또한 개발의 문제는 인간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발전은 물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정신적 영적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발전과 보편적인 공동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⁵⁹⁾ 개발의 문제는 인간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발은 물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정신적 영적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발전과 보편적인 공동선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⁶⁰⁾ 이제는 단순하게 진화론적 개발 이론에

54) E.F. 슈마허. 같은 책. 65쪽.

55)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499쪽.

56)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68쪽.

57) 에릭 라이너트.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김병화. 부키. 2012. 356쪽.

58)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20쪽.

59)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113쪽.

60) 같은 책. 113쪽.

치중하여 경제적 부의 획득을 추구하는 개발 행위 이전에 먼저 개발의 의미와 본질을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따져보고, 개발을 직선적 진보 논리와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⁶¹⁾ 또한 공여국들은 빈곤한 국가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자문과 정책 구조들을 공식화하면서 수원국의 개발과 발전에 대한 결정권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도 개발이란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일컫는 명칭이 되어야 한다⁶²⁾는 지적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진화론적 개발 이론의 한계는 앞에서 다루어졌듯이 그 역사적 맥락 안에 이미 담겨있다. 유럽인의 눈에 식민지 주민은 스스로 설정한 유럽식 기준에 따라 개발이 안 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진화로서의 개발은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그 성격이 수탈이든 문명 교화가든 간에, 사상적으로 정당화해주었다.⁶³⁾ 아프리카를 비롯한 위험한 땅에서 식민지를 경영하거나 그리스도교를 알리는 것은 백인의 책무(White man's burden)로 여겨졌다. 식민지 지배는 탐욕스러운 이익 추구하고 인종 차별을 내포하면서도 문명 보급을 지향한 개발의 틀이라는 점을 내세워 19세기 말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⁶⁴⁾ 이미 백인의 책무란 용어 자체가 백인 우월주의적 시각을 담고서, 백인 이외의 사람들을 개화의 대상으로 여기며 이들을 개화시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듯이 백인 우월적이고 서구 중심의 개발에 근거한 사회 공학적 발상이 서구에 의한 비서구권의 식민화를 추진하는 주된 접근 틀이 된 것이다.⁶⁵⁾ 이러한 식민지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개발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1960년대까지 물질적 성장을 주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80년대 개발도상국의 채무 부담이 커지자 구조조정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90년대 들어 성장 중심의 시장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발 문제가 드러나며 다양한 개발의 부작용이 국제 사회에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⁶⁶⁾ 결국 서구 중심의 개발학적 관점의 접근은 가난한 자들을 이롭게 하는 데 실패했음⁶⁷⁾ 이 드러난 것이다. 개발은 남들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잘못되고 무모한 일일 수도 있는데 서구의 국제개발 전문가들과 학자들, 정부와 국제기구의 관료들과 은행가들은 개발이라

61)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34쪽.

62)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28쪽.

63)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33쪽.

64)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49쪽.

65)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33쪽.

66)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27쪽.

67) 폴 파머. 같은 책. 237쪽.

는 미명하에 개입을 당연시하고 정당화하며 미화하였고, 때로는 개발을 명분으로 자원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부패한 정권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국제개발 분야만큼 화려한 수사과 미사여구, 전문 용어들이 난무하는 곳도 없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미사여구와 전문 용어에도 불구하고 전후 반세기 동안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⁶⁸⁾ 이런 상황에 이스털리는 ‘서구의 공여국들이 수원국 국민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후견인적인 자신감은 버려라, 총체적이며 비현실적인 제도 개혁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라, 우리의 목표는 정부나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더 잘살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⁶⁹⁾고 하며 서구 중심의 하향식 개발 원조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개발이 갖고 있는 프로네시스적이며 내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스털리의 이 비판은 매우 타당한 것이며, 서구 중심의 하향적인 개발 사업은 이제 그 자체로 한계에 처해 있음이 분명하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제 3 세계에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서구적 물질주의를 일방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제 3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음⁷⁰⁾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개발의 한계는 무엇보다 개발이라는 영역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실천적 속성에서도 기인한다. 개발은 의술(*medical practice*)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프로네시스(*Phronesis*)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여러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개발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으로 가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⁷¹⁾ 그렇지 않고 개발에 있어 모방해야 할 기존의 모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개발에 자연과학적인 보편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 자연과학적 보편성이란 재현 가능성을 뜻한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본 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이라는 사고 방식도 재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재현 가능성은 한 지역의 경험을 그 장소에 한정 짓지 않고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개발을 프로네시스가 아니라 에피스테메(*Episteme*)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⁷²⁾ 그러나 개발학은 문맥을 중시하고 가치나 권

68)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1쪽.

69) 윌리엄 R. 이스털리. 같은 책. 573쪽.

70) 연세대학교 빈곤문제연구원. 같은 책. 39쪽.

71) 폴 폴락. 같은 책. 285쪽.

72)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62쪽 참조.

력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문맥을 배제하는 자연과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개발을 다룸에 있어서도 에피스테메와는 별개로 실천지인 프로네시스라 불리는 지(智)의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 과학적 진리와 관련된 에피스테메는 최종적인 답을 하나로 도출할 수 있지만, 행위와 관련된 프로네시스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양자의 성격이 다름에도 자연과학의 흉내를 내려하는 것은 주류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의 잘못이며,⁷³⁾ 개발을 단순한 경제학적인 학문 영역으로 국한시키고 그 행위에 대한 성찰이 없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개발은 그 자체적으로 한계를 내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내려지는 판단이 편향적이고 부분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경제적 측정이라는 것은 장기보다 단기를 훨씬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모든 자유재, 즉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환경을 배제하는 비용 개념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재화를 그것의 시장 가치에 따라 평가하지, 그 자체의 실제 모습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좁고 부분적이며 방법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⁷⁴⁾

개발이란 이러한 경제적 측정보다 훨씬 더 폭넓고 심오하다. 이것의 뿌리는 경제 영역의 외적 요인, 즉 교육, 조직, 규율과 같은 영역에 존재하며, 더 나아가 정치적 독립이나 국민들의 자립 의식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은 개발도상국 국민들과 접촉이 없는 선진국의 전문가나 그 사회의 엘리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를 교육하고, 조직하며, 훈련하는 일이 포함된 성장 과정을 통해서만 개발은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⁷⁵⁾

또한,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프로네시스적 성격의 고려와 함께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찰의 이유는 개발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인간의 고통을 다룬다는 데 있다. 분명 고통을 견디는 것은 분명 인간의 삶의 일부이지만, 모든 고통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⁷⁶⁾ 개발원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수혜자들이 겪고 있는 빈곤, 기아, 건강불평등과 같은 고통은 선진국에서 삶의 기반을 갖추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는 같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에 있으면서 개발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개발시킨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⁷⁷⁾ 실

73) 같은 책. 173쪽.

74) E.F. 슈마허. 같은 책. 59쪽.

75) 같은 책. 257-258쪽.

76) 폴 파머. 같은 책. 93쪽.

77)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42쪽.

제로 개발학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 조건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⁷⁸⁾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들이 살고 있는 북반구의 선진국 사회가 말하는 개발의 목적에는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이 존재하게 될 수 있다. 첫 번째 폭력은 희생자를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대상화, 타자화하고 모든 규범과 질서, 이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 희생자가 하나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규정되고 생산되는 의미 체계의 간극이 지금의 북-남 현실을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두 번째 폭력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의도와 현실과는 관계없이 희생자 계층을 생산하는 것이다. 즉, 그들을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못 박는 것이다.⁷⁹⁾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발이 역사적으로는 일종의 정치적 구성물로서, 식민 지배 본국, 정치 경제 엘리트, 다자 간 국제 기구 등 지배적 행위자들이 세계 질서를 수립하고 그 질서에 대한 반대를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과연 우리는 서구와 비서구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서구 중심의 국제 정치 질서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빈곤과 배제, 차별을 철폐할 수 있을까?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어떻게 파트너십과 오너십이 실현될 수 있을까? 위선과 가식, 몰지각과 무지로 점철된 개발원조 전문가들이 내놓는 문제 해결 방식과 처방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⁸⁰⁾ 예를 들어,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도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말은 선진국의 개발학자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도 된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교육의 어떤 요소가 더해져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교육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장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교육뿐만 아니라 농업, 금융, 의료 등 빈곤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문제다.⁸¹⁾ 본래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사회의 변화는 외부 개입자의 단순한 논리 구조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이 자국의 문제를 취급할 때 단순하게 사업 개발계획표(Project Design Matrix)를 활용하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원조 실

78) E.F. 슈마허. 같은 책. 229쪽.

79)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28-329쪽.

80) 같은 책. 9쪽.

81) 딘 칼린,제이콥 아펠. 빈곤의 뒷 건어차기. 신현규 옮김. 청림출판. 2011. 309쪽.

무자가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취급할 때는 이 방식을 주로 채택한다⁸²⁾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상에서 기존의 진화론적 개발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단계적인 경제 성장 중심의 문제점, 역사적 서구 중심의 하향적인 관점의 문제점, 실증주의적, 타자적 관점의 문제점, 그리고 개발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개발이 무엇인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그리고 목표하는 개발의 결과는 결국 누구에게 무엇을 의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되물음이 있어야 개별 사례에서 얻은 지식이나 교훈을 다음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되물음이 있어야 현재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⁸³⁾ 이와 함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강화되고 경제 금융 위기가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 때, 앞에서 제시되었던 개발에 대한 성찰적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개발의 결과로 현재 부유층은 갈수록 더 부유해지고, 중산층은 갈수록 공동화되고, 빈곤층은 갈수록 늘어가는 까닭은 무엇일까?”⁸⁴⁾

IV.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개발

세계화(Globalization)⁸⁵⁾ 는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가 긴밀한 통합을 이루는 상태⁸⁶⁾ 를 뜻한다. 세계화는 제 3 세계에 상품 시장 개방, 자본 시장 개방, 노동 시장 개방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⁸⁷⁾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세계화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

82)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95쪽.

83)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46쪽.

84)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책. 43쪽.

85) Globalization은 보통 세계화 또는 지구화로 번역되어 사용되며, 본 논문에서는 문맥의 흐름과 인용된 본문의 표현에 따라 둘 다 사용되었다.

86)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책. 157쪽.

87) 폴 콜리어. 같은 책. 166쪽.

된 방향으로 나아가 빈곤과 불평등을 증대시켰으며,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고, 참으로 인간다운 발전을 이루게 해주는 양심이나 지성의 윤리적 상호 작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세계화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사람들을, 국가와 국가를, 경제와 경제를 연결시키며 상호 번영을 촉진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지만, 탐욕과 고통을 확산시키는 데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⁸⁸⁾ 세계화는 세계의 모든 지역과 국가 간의 소통, 접촉, 교환을 증가시킴으로써 상호 개방과 문화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개인의 능력과 중요성을 고양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세계화는 수출과 투자 자본 흐름의 불균형, 국민총생산량의 불균형, 세계 노동 시장의 유연성에서 기인한 고용의 불안정성, 문화의 획일화와 상품화, 인간 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간과한 인간을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⁸⁹⁾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주고 받는 교환 정의뿐만 아니라 분배 정의와 사회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세계화라는 현상의 원인을 꼭 짚어낼 수도 없고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동하는 어떤 힘이나 구조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큰 재앙인 것처럼 말하는 일이 더러 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하나의 사회-경제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세계화의 유일한 차원은 아니다. 이 눈에 띄는 흐름의 저변에서는 인류 자체가 점점 더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개인과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각기의 책임을 수행하기만 한다면, 세계화는 많은 혜택과 발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한 과정으로서 세계화가 지니는 진리와 그 근본적 윤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든 인류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화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을 부인하거나 과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자체로 볼 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그것을 선이나 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고 사랑과 진리로 바로잡아 그것이 선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맹목적으로 반대만 하면, 그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 과정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을 깨닫지 못하여,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세계화 과정은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만 하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88)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책. 30쪽.

89) 양해룡. 세계화된 한국과 교회의 선교 전망.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8. 9쪽.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가난과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전 지구적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 프리츠프 카프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산업혁명기에 형성된 자본주의와 완전히 다르고, 2차 대전 후에 태동된 자본주의와도 다르다고 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들어 설명하였다.⁹⁰⁾ 첫째, 경제활동이 범세계적이다. 둘째, 생산성과 경쟁력을 낳는 주요인이 혁신과 지식생산과 정보처리이다. 셋째, 금융네트워크를 통해 구조화된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확장에 있어서 반드시 동반되는 개념이며, 범세계적인 경제 활동을 통하여 세계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신자유주의 경제 활동은 지식 생산, 정보 처리를 바탕으로 금융 산업이 주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개념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후에 논의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발의 한계 또한 이미 이 세 가지 특징 속에서 연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란 자유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득, 부, 자원을 최고의 가치로 하며,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 이윤 추구를 우선하며, 각 개인과 기업은 시장에서 자유 경쟁 기초로 움직이며, 모든 인간 활동을 상품화하여 나타내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⁹¹⁾ 세계화는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개념 설정에 있어서는 자유 시장에 대한 이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에 대한 믿음은 서구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 교의에 속한다⁹²⁾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신고전과 경제학은 신자유주의 논리로 뒷받침하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도상국에게 작은 정부와 시장 경제 원리의 도입 요구를 타당화하였다.

그러나 신고전과 경제학이 가정하고 있는 이러한 완전한 시장, 완벽한 합리성 등은 학문적인 산물이지 개발도상국의 현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으며,⁹³⁾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적인 추진을 지향하기로 합의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배후에는 패권국 미국의 이념과 의도가 있었다⁹⁴⁾고 보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세계로 퍼트리려 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방임이라 말은 하면서도, 강렬한 정책 지향성을 갖고 개발도상국 정부의 개입을 배격하면서 자신들의 정치력을 이용하여 주권국 정부의 정책을 바꾸려는 개입을 실시하는 역설에 빠진 것이다.⁹⁵⁾ 시장의

90) 프리츠프 카프라. 히든 커넥션. 강주현 옮김. 휘스. 2003. 188쪽.

91) 양해룡. 세계화된 한국과 교회의 선교 전망.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8. 8쪽.

92)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35쪽.

93)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157쪽.

94) 같은 책. 152쪽.

95) 같은 책. 155쪽.

힘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과정에 의해 형성되기에 시장은 그 자체로 자율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규정, 그리고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률, 규정, 제도가 시장에서의 분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⁹⁶⁾

이제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개발도상국의 개발 과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대해서 살펴볼도록 하겠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폐해는 바로 불평등의 확대와 심화에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개발도상국을 자유 시장에 편입시켜서 개발을 시키고자 한 그 노력은 학문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더욱 큰 불평등을 발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스티글리츠는 ‘자유 시장은 한마디로 불평등을 생산하는 기계 장치’⁹⁷⁾라고 까지 비판하였다. 왜곡된 정치와 법률, 규정, 제도를 통하여 형성된 자유 시장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개발의 결과, 전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빈익빈 부익부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개발원조 계획으로는 이 추세를 극복하기 힘들어 보인다.⁹⁸⁾ 빈곤 타파를 위한 대규모 재원 지원 중심의 개발 원조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이 오히려 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를 왜곡시켰다⁹⁹⁾ 는 지적까지 나오게 되었다. 개발이 야기할 수 있거나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로 인해서 등한시 되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가의 대다수 사람들은 재산 소유자들의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장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기껏해야 기업 활동의 자유거나 소득이나 생활 보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의 자유에 불과하며, 이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것도 대규모 금융 투자 회사나 독점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허구에 불과할 수 있다. 시장자유주의적 관점에는 사회 전체에 대한 고려가 제한되어 있다. 중요한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할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책임의식이 결여되면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자유의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의 사회 현실을 외면하게 되었다.¹⁰⁰⁾

96)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책. 149-150쪽 참조.

97) 같은 책. 10쪽 참조.

98) E.F. 슈마허. 같은 책. 217쪽.

99)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27쪽.

100) 김영진.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한울아카데미. 2005. 151-152쪽.

척 콜린스는 1970년대 이후로 가치가 달라지고, 권력이 이동하고,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들이 변하면서 현재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영향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그가 언급하고 있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영향이란 스티글리츠와 마찬가지로 불평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¹⁰¹⁾ 그는 일단 가치와 규범이 공동체적 가치에서 보다 더 개인적인 가치로 변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가치가 그렇다. 그 다음으로 권력의 이동이다. 권력이 상위 1퍼센트와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로 집중했다. 예를 들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소득 상위 1퍼센트의 선거 기부금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이 나머지 하위 99퍼센트의 표를 이기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칙의 전환이다.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들과 정책들이 변했다. 이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감세를 받고 최저 임금은 동결된 정책 결정이 그러하다. 경제적 부의 집중은 권력을 상위 1퍼센트로 집중시켰고, 이들은 이 권력으로 경제 규칙과 정책을 조작하였으며, 이 바뀐 규칙과 정책으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이다. 그 결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99퍼센트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부는 더욱더 상위 1퍼센트로 집중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세계화된 체계에서는 이미 잘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더욱 잘 살게 되며, 성장의 열매 대부분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는 상위 1퍼센트는 재화에서부터 회사 주식에 이르는 모든 소유권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최빈곤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복리와 미래는 환경 파괴와 불평등의 여파로 인해 더욱 암담해지고 있다.¹⁰²⁾ 전 세계 시민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1퍼센트는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부와 기회, 수명, 삶의 질을 누리고 있지만, 상위 1퍼센트는 생산에 기여한 것이 많아 그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양을 빼앗아 가는 지대와 이자 추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이 부를 창출한 대가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몫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차지하는 행위를 지대 추구(rent seeking)라고 부른다.¹⁰³⁾ 스티글리츠는 상위 계층은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이 눈치 채기

101) 척 콜린스. 같은 책. 154-157쪽 참조.

102)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502쪽.

103) 지대rent는 원래 토지로 인한 수익을 이르는 말이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 지대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임금은 노동자들이 제공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지대라는 용어는 독점 이윤 혹은 독점 지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얻는 소득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용어

어려운 지대 추구 방법을 이용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뽑아내는 법을 터득했으며, 미국 상위 계층이 획득한 부의 대반은 부의 창출이 아니라 부의 이전에서 비롯한 것¹⁰⁴⁾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각종 제도는 경쟁과 효율성과 투명성 등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 경제의 각종 요건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 1 퍼센트의 지대 추구가 더욱 큰 규모로 확대 재생산되고 또 안정적으로 영구화되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애초부터 디자인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제도나 장치에 대해서 척 콜린스는 ‘무시무시한 기계 장치’, ‘가공할 전쟁터’ 등으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적어서 그토록 눈꼽만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기계 장치의 작동에 치이고 밟히면서 저소득과 불안정성과 파멸의 상태로 밀려나고 있을 뿐이다. 시장이 이처럼 가공할 전쟁터로 변질되어 갈 때,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각종 정치적, 사회적 영역의 제도 장치들 또한 이 1 퍼센트의 특권과 안녕을 영구화하기 위한 장치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상위 1 퍼센트의 관심사에 좌우되고 소수의 세계적 기업들에게 장악 당한 상태이다.’¹⁰⁵⁾

과도한 불평등은 상위 1 퍼센트 중의 소수가 수십 년 동안 99 퍼센트를 희생시켜서 1 퍼센트에게 이롭게 경제 규칙들을 조작했기 때문에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칙들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많은 자산을 소유한 상위 1 퍼센트에게 이롭게 자리 잡았다. 과세제도와 세계무역, 법률, 공공지출과 관련된 정부의 대처와 정책들이 그렇다. 이러한 규칙의 조작으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 위태로워졌다.¹⁰⁶⁾ 상위 계층이 차지한 돈의 일부는 정치를 왜곡시키는 활동에 투입되어,¹⁰⁷⁾ 정치 시스템은 상위 계층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 권력의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고 정치와 경제의 사악한 결합을 낳았다.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은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의 의미는 더욱 확장되어 이와 유사한 소유권 주장으로부터 얻는 수익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책. 130쪽 참조.

104)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책. 121-122쪽.

105) 척 콜린스. 같은 책. 36쪽.

106) 척 콜린스. 같은 책. 26-27쪽.

107)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책. 54쪽.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사회적 요인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¹⁰⁸⁾ 이것이 세계화된 오늘날의 국제무역법과 같은 규칙과 정책들이 강요의 도구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된 이유이다. 개발되고 발전된 선진국들, 특히 미국은 세계무역을 규제하기 위해 서 국내법을 국제적으로 부과한다는 것¹⁰⁹⁾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세계화된 국제 사회에서는 무역 경제 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규제 기구들이 많이 있다. 문제는 무역 경제 부문의 지도자들, 기업가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관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제 기구에 포진시킨다는 데 있다. 이를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고 한다.¹¹⁰⁾ 이 규제 포획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규제 기구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선진국이 주도한 자유무역의 확대에 산출된 이익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¹¹¹⁾을 발생시켰다. 기반이 파괴되거나 불안정한 발전 중에 있는 국가들의 현 상황에 적용된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자유 무역의 규칙들은 빈곤을 줄이기는커녕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¹¹²⁾

프리츠 카프라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금융 네트워크를 통한 범세계적이고 단기적인 경제 활동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금융투기꾼, 기업가, 첨단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급을 더욱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최상층의 부자들은 유례없는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가 사회와 경제에 미친 충격은 재앙에 가깝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압력에 따른 노동의 분열과 개인과 그리고 복지국가의 와해를 달리 해석하면 자본주의의 세계화로 인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뜻¹¹³⁾이라고 하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108) 같은 책. 38쪽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소득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음에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부자들의 부담이 큰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개별 소비세의 감소, 서민들의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의 증가였다. 그 결과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 63.7%에서 이명박 정부 때 13.2%로 줄었으나, 하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 3.8%에서 이명박 정부 때 65.7%로 대폭 상승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심각한 빈부 격차를 더욱 악화시켜 버린 것이다. 세율이 높은 낮은 세금에 대한 부자들의 저항은 계속 되어 왔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책. 19-20쪽., 샘 피지개티. 같은 책. 523쪽 참조.

109)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34쪽.

110)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책. 140쪽.

111) 크리스티앙 트루베. 같은 책. 143쪽.

112) 같은 책. 144쪽.

113) 프리츠 카프라. 같은 책. 197쪽.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더욱 우려할 만한 현상은 이러한 시장 가치가 시장이 아닌 삶에서의 영역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더하여 전통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현대 소비 중심 자본 만능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¹¹⁴⁾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을 무수히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된 신자유주의에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척, 민주주의의 와해, 자연환경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파괴, 빈곤과 소외의 급증 등 모든 문제가 서로 맞물려있다. 세계화된 신자유주의는 범세계적인 범죄경제를 잉태시켰고, 범죄경제는 국내외 경제와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신장을 이루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지역공동체를 위협하며 와해시키고 있다. 여기에 생명공학까지 가세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는 복합영농을 단종재배로, 생태학을 공학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생명체마저 상품화시키면서 생명의 존엄성까지 침해했다.¹¹⁵⁾ 결론적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전세계적인 개발 현장에 불평등, 환경 오염, 실업을 낳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용인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가치의 타락을 낳은 것이다.¹¹⁶⁾

이상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기본적 개념을 자유 시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개발에 미치고 있는 그 역기능과 한계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세계식량기구의 전문 연구관으로 빈곤과 기아 문제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장 지글러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을 이루는 자유 시장에 대해서 ‘모든 곳에서 사회적인 통제를 비롯한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시장은 죽음을 불러온다.’¹¹⁷⁾고 까지 표현하였다. 전세계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자유 시장의 논리로 인하여 빈곤, 기아, 건강불평등으로 인한 피할 수 있는 죽음을 겪고 있는 제 3 세계의 수많은 생명을 생각해볼 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하의 자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만천하에 드러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아래 자유 시장 경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불평등¹¹⁸⁾이며, 이 불평등의 확대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기존의 개발원조 정책으로는 제 3 세계가 마주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시킬 수 없다. 세계화된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왜곡시킴으로써, 또한 자본 만능 자유 시장의 직접적 결과라 할 수 있는

114)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66쪽.

115) 프리츨프 카프라. 같은 책. 279쪽.

116)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책. 36쪽.

117) 장 지글러. 같은 책. 177쪽.

118)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책. 82쪽.

사회배척(social exclusion) 과정을 통해서 빈곤층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¹¹⁹⁾

이러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속에서 과연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과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그 기원과 본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의 소명인 개발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까? 다음에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V. 결론

진정한 개발과 발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베네딕토 16 세 교황의 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서 만큼 자세하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회 문헌은 없다. 개발학 학문 영역에도 <진리 안의 사랑>이 주고 있는 의미는 매우 깊고 풍부하다. 이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대안적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진리 안의 사랑>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발전은 무엇보다도 참되고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후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 발전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¹²⁰⁾

“진정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재화와 자원의 분배는 단순히 기술 진보와 실리 관계로는 보장되지 못합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는 사랑의 힘(로마 12, 21 참조)만이 분배를 보장합니다. 양심과 자유가 함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¹²¹⁾

“발전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데 제도의 창설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역사를 통하여 종종 견지되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제도가 기대하는 목표를 저절로 이루어 줄 것처럼 과신하게 되었습니다.”¹²²⁾

“참된 인간 발전은 모든 차원의 인간 전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인간 발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 발전은 단순한 부의 축적에 머물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¹²³⁾

119) 프리초프 카프라. 같은 책. 198쪽.

120)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36쪽.

121) 같은 책. 18쪽.

122) 같은 책. 21쪽.

123) 같은 책. 21쪽.

인간은 단순한 개체가 아닌 인격체이다. 인격체라는 말은 지성과 자유 의지를 갖고 있는 본성을 뜻한다.¹²⁴⁾ 인간은 인격, 즉 그 자체 안에서 전부이며,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완전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지성과 자유 의지처럼 태초부터 주어진 것이 있고, 인간은 자기의 몫, 즉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침범 당할 수 없는 권리를 절대적으로 가진다.¹²⁵⁾ 그러므로 인간은 물질적 차원에서만 비롯되는 요구들로 규정되는 주체보다 훨씬 뛰어난 실재임에도, 기존의 개발 활동의 근본적인 한계는 인격체인 수혜자를 단순한 개체로 파악하여 사업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욕구나 선호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과 관련해 제약 받기 싫어함¹²⁶⁾에도 개발은 하향적, 포괄적, 획일적인 원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개발을 통하여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님¹²⁷⁾에도 경제 성장만을 우선시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는 다른 수많은 집합적, 사회적 지속 가능 전략을 부정하거나 비서구 문화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생적 개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¹²⁸⁾

경제 성장의 근본 목적은 단순한 생산품의 증가 또는 이익이나 지배가 아니라, 오로지 인간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곧 인간의 물질적 필요와 지성적,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생활의 요구를 다 고려하는, 참으로 전인에 대한 봉사가 바로 개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¹²⁹⁾ 인간은 자신의 쓸모 없음을 마음 속에서 확신하는 것만으로도 타락할 수 있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이러한 상실감을 보상할 수는 없다.¹³⁰⁾ 따라서 개발을 계획할 때에는 개발의 첫째가는 책임 주체인 인간 중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¹³¹⁾

이에 인간 중심의 개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전인적 교육이다.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¹³²⁾

124)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같은 책. 297쪽.

125) 요세프 피이퍼. 같은 책. 30쪽.

126) 딘 칼런, 제이콥 아펠. 빈곤의 덫 걷어차기. 신현규 옮김. 청림출판. 2011. 162쪽.

127) 김윤태, 서재욱. 같은 책. 395쪽.

128)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41쪽.

129) 기쁨과 희망.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4쪽.

130) E.F. 슈마허. 같은 책. 243쪽.

131)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75쪽.

경제 위기 중에도 국제 차원의 더 큰 연대는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데에서 드러난다. 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국제 협력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교육이라는 말은 교실 수업과 직업 훈련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전인적 인성 교육을 가리킨다.¹³³⁾

최상의 개발원조는 지식 원조, 즉 유용한 지식의 증여¹³⁴⁾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며, 교육은 무엇보다도, 가치관, 즉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상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¹³⁵⁾ 개발학적으로도 개발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가장 소중한 자원 또한 인적 자원이 되어야 하며, 최빈국들의 진정한 자율적 미래를 보장하려면 실물 자본인 인적 자원이 축적되어야 한다.¹³⁶⁾ 실패하는 국가가 나쁜 통치와 경제 정책을 좋은 통치와 경제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밑바닥 최빈국 국가들에는 그런 사람들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¹³⁷⁾ 원조를 이용해서 새로운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 뒷받침해줄 만한 교육 수준이 이미 상당히 폭넓게 확보되었을 경우에만 유용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교육, 조직, 규율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이후에도 진정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다.¹³⁸⁾ 따라서 앞으로 개발 정책은 단지 가난한 국가에 관한 정책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개발 정책에 있어서 사람을 강조하게 되면, 정보 소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진다. 누가 도움을 주고, 누가 도움을 받는가에 대한 성찰¹³⁹⁾이 필요한 것이다. 큰 규모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무리 훌륭한 전략을 짜냈다고 해도 그런 전략이 반드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¹⁴⁰⁾ 온전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생각하고자 하다면, 고통 받고 억압당하는 하위 주체들의 일상생활을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¹⁴¹⁾

개발을 촉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재화인가, 사람

132) E.F. 슈마허. 같은 책. 102쪽.

133)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95쪽.

134) E.F. 슈마허. 같은 책. 248쪽.

135) 같은 책. 105쪽.

136)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92쪽.

137) 폴 콜리어. 같은 책. 194쪽.

138) E.F. 슈마허. 같은 책. 214쪽.

139) E.F. 슈마허. 같은 책. 242쪽.

140) 딘 칼런, 제이콥 아펠. 같은 책. 26쪽.

141)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49쪽.

인가? 사람이려면, 어떤 사람인가? 그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왜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그가 도움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면,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과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가?¹⁴²⁾ 개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개발을 하는가? 개발이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와 그것이 나타내는 통계의 총계는 얼마나 들어맞는가?¹⁴³⁾ 이러한 성찰적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성찰의 결과 국제개발기관 내에서 국내총생산량(GDP)의 성장 극대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인간 잠재력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오랜 논쟁에서 이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인간개발지수(HDI)가 국내총생산량(GDP) 보다 선호되고 있다는 점¹⁴⁴⁾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생산을 강조하는 측정 방식에서도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경제 실적 측정 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고 복지 향상을 측정하는 방식 역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¹⁴⁵⁾는 점이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인 국내총생산량이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 사람들 간의 유대 관계, 사회의 질적 성장,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의 기준에서 사회 발전과 삶의 풍요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¹⁴⁶⁾ 이와 함께 영국의 대표적인 국제구호기관 옥스팜은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단절하려면 기회는 물론 권력과 자산도 근본적으로 재분배되어야 한다고 하며, 빈곤에 놓인 사람들도 적절한 교육과 보건, 식수와 위생을 보장받아야 하며 일상에서 겪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게 지원하고, 빈곤층도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 또 정당 정치와 사법체계 그리고 토지, 노동, 재화와 서비스 시장 등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¹⁴⁷⁾을 강조하였다.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진화론적 개발 이론에서 벗어나서 구성원의 권리와 다양한 가치관을 최대한 반영하는 다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질적 요인과 비물질적 요인 사이의 균형,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 복지 정책의 당위성과 복지 정책의 강도 등에 대한 다양

142) E.F. 슈마허. 같은 책. 241쪽.

143)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44쪽.

144) 같은 책. 361쪽.

유엔은 1990년에 발표한 인간 개발 보고서에서 ‘사람이야말로 국가의 진정한 재산이다.’라는 명제와 함께 소득 관련 수치에 기대 수명과 문자 해독률을 합친 인간 개발 지수(HDI)를 내놓았다. 개발 담론에서 인간 자원을 확인한 것은, 시민의 복리가 전체론적인 개념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중요한 변화였다. 이것은 1948년에 제정된, 정부-시민 간 시민권적 사회 계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와 존엄을 지닌다고 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연결되는 개념이었다.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500쪽 참조.

145)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499쪽.

146)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21쪽.

147) 던컨 그린. 같은 책. 24쪽.

한 관점과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 가운데, 구성원들이 살아온 역사 문화적 토대를 이해하고 그 맥락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의 개발 내지 발전 전략의 수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 필요한 지점이다.¹⁴⁸⁾

교육을 통하여 개발의 주체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강조되어야 하는 대안적 개발 방향 중 한 가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재의 대량 생산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존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어버린 대량 생산 경제 체제에 대해서 슈마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재의 대량 생산 기술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재생될 수 없는 자원을 낭비하며, 인성을 망쳐놓는다. 대량 생산 기술이 아니라, 대중에 의한 생산 기술이 근대의 지식과 경험을 가장 잘 활용하고 분산화를 유도하며 생태계의 법칙과 공존할 수 있고, 최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며, 인간을 기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¹⁴⁹⁾

이러한 ‘대중에 의한 생산 기술’을 슈마허는 과거의 원시적인 기술에 비해서는 훨씬 우수하지만 부자들의 거대한 기술에 비하면 소박하고 값싸며 제약이 적다는 의미에서 중간 기술¹⁵⁰⁾이라 명명하였다. 전기, 수도 등 기본 인프라가 취약하고, 석탄, 석유 등 에너지를 구하기도 어려운 지역에서 가난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이용하기 간편하고 저렴한 적정 기술을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발 사업 현장¹⁵¹⁾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중간 기술의 실제적 적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대안적 개발 방향은 생태환경적인 측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

148) 연세대학교 빈곤문제연구원. 같은 책. 43쪽.

149) E.F. 슈마허. 같은 책. 197쪽.

150) 이러한 기술은 자조의 기술, 민주적, 혹은 민중의 기술이라 부를 수도 있다. 이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부자와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같은 책. 197쪽.

151) 김윤태, 서재욱. 같은 책. 401쪽.

“오늘날 발전에 대한 주제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무들과도 밀접히 관련됩니다.”¹⁵²⁾

“이 땅에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 인류 가족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인 자연의 도움으로, 그리고 근면한 노동과 창의력으로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서 미래 세대 역시 계속해서 이 땅을 일구며 거기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보존하여 물려줄 막중한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¹⁵³⁾

전 세계적 경제 성장에 수반하는 인간적 비용과 환경적 비용을 치르지 않는 개발은 없다.¹⁵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경제학, 물리학, 화학, 기술 따위의 관점에서 보면 뚜렷한 한계가 없지만 환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장애 요인에 직면하게 된다. 오로지 부를 추구하는 데에서만 삶의 충만함을 찾는 생활 태도는 이 세계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주변 환경이 엄격히 유한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원리를 내부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연은 그 한계에 도달한 여러 가지 징후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화론적 개발 개념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 목표처럼 보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생태환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런 목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목표이다. 지구 환경 자체가 중국이나 인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도시화, 산업화 추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도 이러한 새로운 현실의 극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¹⁵⁵⁾ 인간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윤리의식을 하나로 결합시키려면 생태계에서나 인간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관계망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급선무이다. 달리 말하면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인간 공동체는 모든 생명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모든 생명계가 고유한 원칙에 따라 살아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세계이다.¹⁵⁶⁾

필립 맥마이클은 현재의 성장 중심 개발 현실 속에서 지구의 생태환경이 다다른 한계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였다.

152)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76쪽.

153) 같은 책. 80쪽.

154)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513쪽.

155)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41쪽.

156) 프리츨프 카프라. 같은 책. 288-289쪽.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발이 하나의 혜성과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를 비추는 찬란한 북극성, 하지만 개발의 에너지 자원 집약적인 토대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결국에는 한 줄기 불꽃처럼 사그라질 운명에 처한 별똥별 말이다. 에너지를 둘러싼 딜레마로 인해 인류가 지구 행성 위에서 장차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놓고 비판적이고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¹⁵⁷⁾

분명한 것은 물질주의에 기반을 둔 생활 양식, 즉 유한한 환경에서 항시 무한한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방식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¹⁵⁸⁾

이상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대안적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인간 중심, 교육과 중간 기술의 강조, 지구의 생태환경 내에서의 지속가능성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더 이상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 개발 모델은 유효하지 않다. 우리는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제 성장 모델에 토대를 둔 새로운 대안적 개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¹⁵⁹⁾ 우리는 개발 또는 발전의 은유를 버리고,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주의적 목적론의 의미에 대해서도 재고해야만 한다.¹⁶⁰⁾ 필립 맥마이클은 탈성장 경제학의 관점에서 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탈성장 경제학은 오늘날 흔히 개발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제한의 성장을 옹호하는 정통 경제 이론을 반대하고, 제 3세계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자립적이며 물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책임 있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⁶¹⁾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이 시작된 이래 개발 활동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논리와 사례는 축적되어 왔지만, 그에 반해 개발이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의는 부족한 현실¹⁶²⁾속에서 탈성장 경제학과 같은 노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157)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31쪽.

158) E.F. 슈마허. 같은 책. 189쪽.

159) 척 콜린스. 같은 책. 150쪽.

160)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39쪽.

161) 필립 맥마이클. 같은 책. 516쪽.

162)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같은 책. 30쪽.

참고문헌

- Anderson, J. M., Rodney, P., Reimer-Kirkham, S., Browne, A. J., Khan, K. B., and Lynam, M. J. (2009). Inequities in health and healthcare viewed through the ethical lens of critical social justice: contextual knowledge for the global priorities ahead. *ANS Adv Nurs Sci* 32 (4):282-94.
- Anyangwe, S. C., and Mtonga, C. (2007). Inequities in the global health workforce: the greatest impediment to health in sub-Saharan Africa.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4 (2):93-100.
- Barros, F. C., Victora, C. G., Scherpbier, R., and Gwatkin, D. (2010). Socioeconomic inequities in the health and nutrition of children in low/middle income countries. *Rev Saude Publica* 44 (1):1-16.
- Black, R. E., Morris, S. S., and Bryce, J. (2003). Where and why are 10 million children dying every year? *Lancet* 361 (9376):2226-34.
- Birdsall, N. (2006). The world is not flat: Inequality and injustice in our global economy. WIDER annual lectures. Helsinki.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2006.
- Stuckler, D., and McKee, M. (2008). Five metaphors about global-health policy. *Lancet* 372 (9633):95-7
- 김운희. 왜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는가. 알렙. 2013.
- 니시카와 준, 시모무라 야스타미, 다카하시 모토키, 노다 마사토.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최민경, 이태주 옮김. 아르케. 2013.
- 던컨 그린. 빈곤에서 권력으로. 주성수 옮김. 이매진. 2010.
- 마이하르트 미겔. 성장의 광기 - 왜 경제가 성장할수록 삶은 피폐해지는가. 이미옥 옮김. 뜨인돌. 2011.
- E.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이상호 옮김. 문예출판사. 2001.

-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김원기 옮김. 갈라파고스. 2013.
- 윌리엄 R. 이스털리. 세계의 절반 구하기, 왜 서구의 원조와 군사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황규득 옮김. 2011
- 전제성 김형준 홍석준 황인원 채수홍 이상국. 맨발의 학자들-동남아 전문가 6인의 도전과 열정의 현지조사. 도서출판 놀민. 2014
- 제리 스티닌. 긍정적 이탈. 박홍경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2012.
-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2013.
- 폴 콜리어. 빈곤의 경제학 - 극빈국 10억 인구의 위기. 류현 옮김. 살림. 2010.
- 폴 파머. 권력의 병리학. 김주연, 리병도 옮김. 후마니타스. 2009.
- 폴 폴락. 적정 기술 그리고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 박슬기 옮김. 새잎. 2012.
- 필립 맥마이클. 거대한 역설 -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조효제 옮김. 교양인. 2013

<국제개발협력활동에서 윤리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문

김 준 석

가톨릭대 국제학부

약 10여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오고 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이 분야로의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2012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한 이후로는 한국 정부 역시 ODA, 즉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꾸준히 늘려서 2014년 현재 총 18억 5천만 달러를 지출했다. 하지만 관심의 증가가 개발협력활동의 양적 증가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질적인 향상을 수반할 것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수치상으로도 한국의 개발협력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현재 한국의 ODA 규모는 GNI 대비 0.13% 수준인데, 이는 DAC 평균 0.2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 한국의 개발협력 수원국 중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의 비율은 2013년 현재 40% 수준으로 역시 DAC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나 학계에서 개발협력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전략’의 수립에 그칠 뿐 개발협력의 비전과 철학,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격(國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도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의 길목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들이 해오던 바를 국제적 규범,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다분히 자국중심적인 논리이다. 이는 개발협력의 대상국, 대상국 국민들의 삶의 향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목표치의 충족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한국적’ 개발협력이라는 전제 하에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수원국에 전파하는 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 역시 대상국 국민들의 실제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다. 논문의 저자도 지적하듯 한국의 경제발전 경

힘은 일반화되기 어려운 여러 특수한 요인의 우연적인 결합의 결과이어서 그러한 시도가 효과적이라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그러한 시도에서 중심축이 ‘도움이 필요한 측’이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는 측’에 있기 때문이다. 수원국의 개발 필요성 충족이 아니라 원조 공여국의 ‘자기만족’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가 지적하듯 개발협력활동에서 서구의 경험이나 일반화된 이론을 통해 개도국의 현실을 파악하는 대신 각각의 국가와 사회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에 관한 실천지(知)로서의 프로네시스에 기초한 현장중심 접근법이 한국의 개발협력활동에서도 매우 절실하게 요청된다. 또한 ‘발전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기초하여 개발협력의 틀을 다시 짜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저자는 현재 개발협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구중심주의’에서 유래하는 ‘진화론적 개발이론’이 지배적인 담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서구중심주의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다분히 자국중심적인 개발 담론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과 발전을 위해 한국 사회에서 개발협력의 근본 의미와 철학과 윤리에 대한 숙고와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Themes of the Forum

|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1. 포럼 주제 선정의 기본 방향

-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이하 BWL Forum)의 주제 선정 형식은 중장기(10년)와 단기(1년) 형식을 통합한 '장·단기 통합형'으로 한다.
- 이 방식은 10년 주기와 1년 주기 형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10년 주기 형식은 향후 10년간의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정해진 주제에 따라 포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 선정 및 강사 초청에 있어서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 반면, 1년 주기 형식은 그 시기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할 수 있기에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민감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 BWL Forum은 위의 두 가지 형식의 장점을 살려, 기본적으로는 10년 주기 형식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 하되, 강연 하나는 '열린 주제'(open theme)로 남겨두어 그 해의 이슈에 알맞은 주제로 선정한다.

2. 포럼 주제 선정 방식

- BWL Forum의 주제 선정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0년 주기 포럼은 9년(3년+3년+3년)+1년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 9년 동안은 선정된 주제에 따라 포럼을 진행하고, 마지막 해에는 9년 동안 개최되었던 포럼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 주기 포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포럼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대주제 선정 → 포럼방향 설정/주제 범주 선정 → 주제(어) 선정 → 발표 주제 선정

1) 대주제 선정

- 'BWL Forum 연구위원회'에서 포럼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10년을 주기로 포럼의 대주제를 선정한다.
- 이 대주제는 향후 10년 동안 포럼을 이끄는 '키워드'로서의 역할을 한다.

2) 포럼방향 설정/주제 범주 선정

(1) 포럼방향 설정

- 9년을 세 부분(3년+3년+3년)으로 구별하여 각 부분의 포럼방향을 정한다.
- 포럼방향은 대주제와 관련된 원칙적 담론(3년), 현실 상황(3년), 미래를 향한 노력(3년)을 기본틀로 삼는다. 예를 들면, 대주제를 '공동체'로 정했을 때, 첫 3년은 공동체와 관련된 원칙적 담론들을 다루고, 두 번째 3년은 공동체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마지막 3년은 공동체의 미래적 모습을 다루는 형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 Themes of the Forum

1. Basic Direction in the Selection of the Theme

-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BWL Forum) takes a unified approach in the selection of the forum theme by combining the long- and short- term themes.
- This approach aims to emphasize the merits of both the 1-year and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allows us to prepare for the forum every year with a pre-set theme, thus providing stability in selecting forum themes and inviting speakers accordingly.
- The 1-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enables us to select a theme that is sensitive to pending social issues and the needs of the given period. Through this selection process, BWL Forum will be able to reflect upon society's most prevalent demands.
- The BWL Forum will follow a theme selected under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and one of the lectures will be set aside for "an open topic" to reflect upon the pending issue of the given year.

2. Forum Theme Selection System

- The BWL Forum takes the following approaches in selecting its themes.
-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the 9-year cycle (three years + three years + three years) and the 1-year cycle.
- For the first nine years, the forum will proceed with the selected themes. In the tenth year, the forum will be devoted to reviewing the previous themes covered in the last nine years and preparing for the next 10-year period.
- The theme of the forum is selected as follows: Select a general theme → Set the direction and guidelines for the forum / Set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 Select a theme (key words) → Select a presentation topic.

1) Selection of a General Theme

- The BWL Forum Research Committee selects a general theme under the 10-year cycle selection system.
- The selected general theme serves as the keyword that leads and guides the forum for the next 10 years.

2)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Forum /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1)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Forum

- The first nine years will be divided into three segments (three years + three years + three years). Each segment will be assigned a direction.
- The direction of the forum will be set within the framework of principal topics related to the general theme (for three years), specific issues (for three years), and efforts for the future (for three years).
For example :

|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2) 주제 범주 설정

- 원칙(3년), 현실(3년), 미래(3년)의 방향과는 별도로, 대주제에 속하는 하위 범주를 3가지 선정한다. 예를 들어 대주제를 '공동체'로 정했을 때,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는 가능한 하위 범주가 될 수 있다.
- 주제 범주를 세 가지로 정하는 이유는 원칙, 현실, 미래의 방향이 각각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포럼방향과 주제 범주의 연결

- 포럼방향의 기본틀인 원칙(3년), 현실(3년), 미래(3년)에는 각각 세 가지 주제 범주가 배치된다.
- 예를 들어 포럼방향을 '원칙', '현실', '미래'로 설정하였고, 주제 범주를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로 선정하였다 할 때, 포럼방향을 '원칙'으로 설정한 첫 해에는 주제 범주의 '가정 공동체'를, 둘째 해에는 '사회 공동체'를, 셋째 해에는 '자연 공동체'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포럼 방향을 '현실'로 설정한 3년과 '미래'로 설정한 3년도 '가정 공동체'(첫 해), '사회 공동체'(둘째 해), '자연 공동체'(셋째 해)로 배치한다.
- 이 두 가지(세 가지 포럼 방향, 세 가지 주제 범주)는 매년 포럼의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3) 주제(어) 선정

- 포럼의 방향과 주제 범주에 맞춰 주제(어)를 선정한다.

4) 발표 주제 선정

- 포럼 발표자가 포럼의 대주제, 포럼방향, 주제 범주 및 당해 연도 주제(어)에 맞는 발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열린 주제

- 열린 주제는 'BWL Forum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포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 해의 국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정하는 방식이나, 포럼 준비단계에서 참가자들(학생, 교수, 교직원)의 투표를 통해 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Themes of the Forum

- o If the general theme is "community," the firs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dealing with the principal topics related to "community:"
- o The nex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the discussions of specific issues prevalent in various communities.
- o The las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efforts for the future of the communities.

(2) Setting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 In addition to the basic outline sketched above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 three categories will be established related to the general theme. For example, if the general theme is "community," such categories as "family," "social communities," or "natural communities" can be selected as possible theme categories.
-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is set to be three categories so that they match the basic directions of the forum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3) How to Connect the Direction of the Forum to the Scope of Theme Category

- The forum will take three different directions during the 3-year span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 For instance, if the forum takes the direction of "principal topics" for the first 3-year span, and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is set to be "family," "social community," or "natural community," then the first-year forum will deal with "family," the second-year forum, "social communities," and the third- year forum, "natural communities." If the forum takes the direction of "specific issues" or "the future" for the proceeding 3-year spans, the same sequence of theme categories – family, social communities, and natural communities- will be covered.
- These two elements (three forum directions/ three theme categories) become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a theme of every forum.

3) Selection of Topics

- Topics ar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forum direction and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4) Selection of the Presentation Topic

- The forum speakers should be given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general theme, the direction of the forum,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and the keywords of the open topic of the given year so that they have ample time to prepare an appropriate presentation topic.

5) Open Topics

- The members of the 'BWL Forum Organizing Committee,' decide on the open topic of the given year while planning the forum. A variety of methods are used to select the year's open topic; one of the international pending issues can be selected by the committee, or a different topic can be chosen through a vote by the participants (students, professors, and staff members) of the forum.

|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3. '제1차 10년 주기 BWL Forum' 주제 (2011~2020년) (안)

- ◆ 대주제: 인간과 공동체
- ◆ 주제 범주: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

1) 제1~9차 BWL Forum

차수	포럼방향	주제범주	주제(어)	관련 주제어	열린 주제
제1차	공동체의 형성(원칙)	가정 공동체(I)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족/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포럼 취지, 인본주의/ 만남, 대화, 관계, 공동체	포럼이 개최되는 해의 국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선정
제2차		사회 공동체(II)	배려와 정의	배려, 정의, 형평, 진실성	
제3차		자연 공동체(III)	생명: 존재의 시작	생명, 창조	
제4차	공동체의 발전(현재)	가정 공동체(II)	결혼과 출산	사랑(인격적 일치), 결혼, 출산, 불신, 이혼	
제5차		사회 공동체(II)	참여와 나눔	참여, 나눔, 공동선, 지구촌, 열린 공동체, 기아, 양극화	
제6차		자연 공동체(II)	존재와 성장	기후, 물, 자원, 고갈, 오염, 재해, 변화	
제7차	공동체와 책임(미래)	가정 공동체(III)	신뢰와 용서	용서, 화해, 존중, 신뢰, 인격, 헌신	
제8차		사회 공동체(III)	자유와 책임	자유의지, 의무, (공동)책임, 책무	
제9차		자연 공동체(III)	보존과 미래	보존, 평화, 책임 있는 공동체	

- '인간과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갖는 BWL Forum의 첫 번째 10년의 포럼방향은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발전', '공동체와 책임'이다.
- '공동체의 형성'은 공동체의 시작 혹은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가정(제1차 포럼), 사회(제2차 포럼), 자연(제3차 포럼)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며,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포럼이다.
- '공동체의 발전'은 제4차~제6차까지의 포럼방향으로,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의 현실 상황과 문제점, 현실 속에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 '공동체와 책임'은 제7차~제9차까지의 포럼방향으로,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 포럼에서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노력과 책임 등을 제시될 것이다.
- 관련 주제어는 주제(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주제들로서, 주제(어)가 제시하는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첨부하였다.

Themes of the Forum

3. The Themes of the First 10-year span BWL Forum (2011~2020) (Proposal)

- ◆ General Theme : Human Being and Community
- ◆ Theme Categories : Family, Social and Natural Communities

1) The 1st~9th BWL Forum

Year	Direction of Forum	Theme category	Topics	Related Keywords	Open Topics
1	Formation of Community (Principles)	Family(I)	Catholic Humanism and Family/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Purpose of the forum, humanism, meeting someone, dialogue, relationship and community	One of the pending international issues raised during the year of the forum
2		Social Communities(I)	Compassion and Justice	being considerate toward others, justice, fairness and truthfulness	
3		Natural Communities(I)	Life: Beginning of Beings	life, creation	
4	Development of Community (Present)	Family(II)	Marriage and Procreation	love (humanistic unity), marriage, procreation, distrust, and divorce	
5		Social Communities(II)	Participation and Sharing	participation, sharing, communal good, global community, open community, starvation and polarization	
6		Natural Communities(II)	Existence and Growth	climate, water, natural resources, exhaustion, pollution, natural disasters, and changes	
7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Future)	Family(III)	Trust and Forgiveness	forgiveness, reconciliation, respect, trust, personality, devotion	
8		Social Communities(III)	Freedom and Responsibility	free will, duty,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9		Natural Communities(III)	Conservation and Future	Conservation, peace, responsible community	

- The BWL Forum will take place under the general theme of "Human being and Community" and the directions of the forum will b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first ten years.
- The direction for the first, second and third forums will be "Formation of Community," which will deal with the beginning or forming of a community. We will discuss how communities such as family (first year), social communities (second year), and natural communities (third year) are formed and what is needed to form a community.
- The direction for the fourth, fifth, and sixth forums will be "Development of Community." We will look into examples of today's family, society, and nature, and discuss the pending issues and problems they face. We will also examine how these communities develop in reality.
- The direction for the seventh, eighth, and ninth forums will be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These three forums aim to envision the future of family, society, and nature. These forums will make concrete suggestions concerning the effort required and responsibility we have to create better communities in the future.
- Related keywords can be used to replace given topics. They are added to further explain the general direction set by each topic.

|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1) 제1차 BWL Forum

- 제1차 BWL Forum은 총 2막(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막 구성은 1차 포럼 이후 10차 포럼 때도 활용한다.

① 제1막

- 주제 : 가톨릭 인본주의
- 이덕효 신부, Jenkins 총장의 주제 강연
- 발표주제 1 : Bernard Lee의 인본주의 정신(이덕효 신부)
- 발표주제 2 : 가톨릭 휴머니즘과 가톨릭 대학(Jenkins 총장)

② 제2막

- 주제 :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 제1차 포럼의 주제인 '만남에서 공동체까지'에 대한 주제 강연

2) 제10차 BWL Forum

- 10차 포럼은 총 2막(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일제 포럼의 경우, 오전 시간은 1막, 오후 시간은 2막이 될 수 있다.
- 제1막은 9차까지의 '제1차 10년 주기 포럼'을 총정리 하는 시간이다. 제2막은 '제2차 10년 주기 포럼'의 대주제를 개관해 주는 시간이다.

(1) 제1막

- 주제 : 지구 공동체
- 관련 주제어 : 화해와 평화
- 이 부분의 '제1차 10년 주기 BWL Forum'의 주제는 '지구 공동체'이다. 주제에서 암시하는 대로, 10차 포럼에서는 9년간 살펴보았던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화해와 평화'는 하나의 가능한 주제어이다. 화해는 많은 이들이 원하는 이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다. 서로 다른 사회적 신분 계층에서 서로 다른 신념, 가치, 이상, 종교, 이데올로기 등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화해, 국가 간의 화해 등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평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화해는 이전 포럼에서 살펴본 주제(어)들과도 연관된다. 진실한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에 '참여' 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서로를 '용서'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향해 '자유'롭지만 '책임'있는 방식으로 현재의 것을 '보존'하고 가진 것을 '나눔' 때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2막

- 제2막은 '제2차 10년 주기 BWL Forum'의 서막 역할을 한다.
- 이 시간은 '제2차 10년 주기 포럼'을 홍보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주제(어)는 '제2차 10년 주기 BWL Forum'이 확정된 후 정하도록 한다.

| Themes of the Forum

(1) The 1st BWL Forum

- The first BWL Forum will consist of two sessions. The tenth forum will also follow the two-session system.

① The First Session

- Theme : Catholic Humanism
- Speakers : Rev. Paul D. Lee, and Archbishop Paul S. Coakley
- Topic 1 : Bernard Lee's Humanism Spirit (Rev. Paul D. Lee)
- Topic 2 : Catholic Humanism and Catholic Universities (Archbishop Paul S. Coakley)

② The 2nd Session

- Theme :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a community
- Keynote speech on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the theme of the 1st forum.

2) The Tenth BWL Forum

- The tenth forum will also consist of two sessions. If organized as a whole-day program, the first session will be held in the morning and the second session in the afternoon.

- The first session of the tenth forum will be devoted to summarizing the previous nine forum themes that were covered under the first 10-year cycle forum system. The second session will be devoted to giving a general overview of the themes covered in the second 10-year cycle forum system.

(1) The First Session

- General theme: The Global Community
- Related Keywords: Reconciliation and Peace
- The general theme of the 10th BWL Forum will be "Global Community." As implied in the theme, the 10th forum aims to provide us with an integrative view of all the themes – "family," "society" and "nature" - discussed in the previous 9 years.
- "Reconciliation and Peace" is one possible keyword for the forum. Reconciliation is a practical path to peace. Only through genuine efforts of reconciliation amongst people of different social statuses, different beliefs, different values, different ideals, different religions, and different ideologies, between humankind and nature, and amongst nations can we achieve real peace in this world.
- Furthermore, "reconciliation" is related to the themes of the previous forums. In order to achieve genuine reconciliation, we must first "meet" and "participate in" dialogues. We must approach others with "thoughtfulness," "respect," and "trust." We must make efforts to "forgive" one another. We also have to make efforts to create a better "future" together in a free, but responsible, atmosphere by preserving what we are and sharing what we have.

(2) The Second Session

- The second session will serve as a prelude to the second 10-year cycle BWL Forum.
- The session will also be devoted to articulating the themes of the upcoming second 10-year cycle BWL Forum.
- The topics will be chosen when the schedule for the second 10-year cycle forum is decided upon.

제5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The 5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발행인 「제5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발행일 2015년 10월 1일

운영위원장 구 본 만 (ELP학부대학장)

운영위원 김 용 석 (국제교류처장)

정 윤 경 (심리학전공 교수)

심 영 숙 (영어영미문화전공 교수)

윤 정 우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김 남 희 (ELP학부대학 교수)

이 상 민 (ELP학부대학 교수)

방 담 이 (ELP학부대학 교수)

김 상 수 (총 무 팀 장)

권 정 희 (국제교류팀장)

김 진 수 (대외협력팀장)

김 두 겸 (ELP학부대학운영팀장)

이 지 연 (ELP학부대학운영팀)

진 행 제5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디 자 인 양승주

제 작 한기획

문 의 제5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Tel. +82_2_2164_4931